

머리말

지금까지 청소년 이지매의 문제는 일본사회에 독특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어 일반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학교폭력 문제, 청소년 자살문제 등이 매스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이들 사건의 배우에 존재하는 청소년들간의 집단따돌림 현상의 실상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따돌림 현상은 피해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정신적·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해당 청소년의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집단따돌림 문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매스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느 정도 높아졌지만, 그 구체적인 실상과 대응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본사회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청소년 이지매가 주요한 사회현안으로 대두되어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추진되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지역사회·국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아래 그 정책적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지매와 관련된 일본사회의 주요 논의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편역한 자료집으로서, 이지매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연구성과, 정책적 노력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사회의 청소년문제 양상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본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앞으로 집단따돌림 현상과 관련된 본격적인 학술연구와 정책대안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원에서는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해외의 연구·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수집과 번역과정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998년 12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최 충 욱

차 례

머리말	3
자료의 성격과 내용	9
국문초록	13
I. 논 의	15
일본의 이지메 - 그 특징과 연구경위	17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관련되어 왔는가	23
이지메 가해자·피해자의 심리와 구조	31
이지메 사건에 있어서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43
이지메의 국제비교	49
유럽에 있어서의 이지메	59
II. 실 태	73
문부성 이지메 실태조사 결과(1995)	75
문부성 이지메 실태조사(1996)	89
규범감각과 이지메	107
"내가 이지메 당한 일기"가 의미하는 것	117
III. 대 책	127
이지메대책 긴급회의 긴급 어필	129
이지메 문제 대응을 위한 체크 포인트	131
문부대신 긴급어필	137
이지메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에 관하여	141
지역단위의 이지메·부등교대책 추진활동	193
ABSTRACT	201

표 차례

표 I-1: 이지메의 의미에 의한 분류	37
표 I-2: 친구들로부터 이지메를 당했을 때 부모님의 태도	51
표 I-3: 이지메 발생상황 - 영국·일본	66
표 II-1: 문부성 학생 문제행동 조사 조사항목 및 대상	76
표 II-2: 1994 년 이지메 발생학교 수·발생건수	78
표 II-3: 1993 년까지의 이지메 발생학교수·발생건수	79
표 II-4: 이지메 발생건수의 학년별, 성별 내역	81
표 II-5: 이지메 발견의 단서(1994)	82
표 II-6: 이지메의 해소상황(1994)	83
표 II-7: 1994 년도 이지메의 양태	84
표 II-8: 1994 년도에 있어서의 이지메 문제에 대한 대응	85
표 II-9: 취학학교의 지정변경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수	86
표 II-10: 이지메에 기인한 사건의 인지건수(경찰청 조사)	87
표 II-11: 이지메에 기인한 사건의 보도인원(경찰청 조사)	87
표 II-12: 이지메에 기인하는 사건의 추이(경찰청 조사)	87
표 II-13: 이지메 실태조사 표본구성(베넷세교육연구소)	107
표 II-14: 이지메한 체험	108
표 II-15: 이지메 당한 체험	108
표 II-16: 이지메했다 X 이지메 당했다(전체)	109
표 II-17: 이지메 했다 X 이지메 당했다(전체)	109
표 II-18: 학교에 다니는 즐거움 X 이지메	110
표 II-19: 자기능력의 발휘 X 이지메	111
표 II-20: 장래의 전망 X 이지메	112
표 II-21: 자기평가 X 이지메	113
표 II-22: 일탈행위의 체험 X 이지메	114
표 II-23: 중학생으로서 좋지 못한 행동 X 이지메	115
표 III-1: SOS 상담창구의 이지메·부동교문제의 주된 활동사례 ..	196
표 III-2: 실천활동을 통해 체득한 지역활동의 방식·관점	198

그림 차례

그림 I-1: 육아·교육의 “학교화”의 전개	24
그림 I-2: 조사대상 학급의 소시오그램	34
그림 I-3: 이지메의 구조	36
그림 I-4: 이지메 피해체험 - 노르웨이 전국조사(1983)	65
그림 I-5: 이지메 가해체험- 노르웨이 전국조사(1983)	65

자료의 성격과 내용

본 보고서는 일본사회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지메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한 자료집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이지메는 일본 특유의 청소년 문제로 간주되어 일반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학교폭력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가 매스컴에 크게 부각되면서 이들 사건의 배후에 존재하는 청소년들간의 집단 따돌림, 약자 괴롭힘과 같은 유사 이지메현상 이지메의 실상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른바 “한국형 이지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자료집은 우리사회 청소년문제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지메 문제에 관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의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를 촉발하는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자료집은 모두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논의”에서는 이지메 문제와 관련한 일본사회의 학술적 논의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마쓰우치(松浦善滿, “일본의 이지메- 그 특징과 연구경위”)는 일본사회에서 이지메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현상이었으나 이것이 사회적·학문적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으며, 이 때부터 단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오다가 1994년 아이치현 중학생의 이지메 자살사건을 계기로 국제비교 연구가 진행되는 등 연구가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일본 이지메의 특성으로서 동일 연령집단 내부에서, 동성의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 장소는 학교(교실)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일원적 경쟁가치를 추구하는 일본의 교육풍토가 이지메를 낳은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쓰모토(松本良夫,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관련되어 왔는가”)는 일본 근대교육 125년의 역사를 모두 여섯 시기로 구분짓고 제5기에 해당하는 현 단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육아·교육의 “학교화” 현상이 포화상태에 달하여 “이지메” “교내폭력” “부등교”와 같은 일련의 부작용이 일시에 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

근 일본 교육당국에서는 정책적으로 “학교의 슬림화” “학교 주 5 일제” 등과 같은 사상 초유의 정책적인 “학교감축”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성공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다의 논문(羽田紘一·“이지메 가해자·피해자의 심리와 구조”)은 이지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학교의 인간관계를 소시오메트리 기법을 원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모두 5 가지 유형의 이지메 구조를 제시하고 각 유형별 성격과 특성, 그 지도방법을 설명을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시의 글(大石剛一朗·“이지메사전에 있어서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은 최근 일본에서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는 이지메의 법률적 책임 소재를 논한 것으로서 이지메의 구성요건, 학교·보호자·가해자의 책임 문제, 이지메 피해자의 자살을 둘러싼 법 적용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후카야(深谷和子·“이지메의 국제비교”)는 “이지메”와 그 유사행위(“작은 공격” “이지메 비행”)를 엄밀하게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이지메 유사행위는 어느 사회이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일본의 이지메는 이와는 구분되는 매우 독특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 고유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구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히라코의 논문(平野恵子·“유럽에 있어서의 이지메”)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스칸디나비아제국과 영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유럽의 이지메 연구를 개관하고 있다. 필자에 따르면 유럽의 이지메 연구는 노르웨이의 베르겐 스터디, 영국의 셰필드 프로젝트의 예에서 잘 드러나듯이 정책 대안 중심의 실천적 성격이 농후한 것으로서 일본 이지메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 2 장 “실태” 부분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이지메관련 실태조사의 자료와 이지메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수기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 문부성에서는 정기적으로 이지메를 포함한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994 년과 1995 년에 실시된 전국 규모의 조사결과 데이터(발표는 각각 1995 년, 1996 년)이다. 특히 1995 년 자료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지메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 및 보호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이지메 문제를 둘러싼 학교와 가정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민간 연구기관인 베넷세교육연구소의 자료(“규범

감각과 이지메”)는 1996년에 실시된 조사결과로서 비록 조사지역과 표본은 소규모이지만 이지메 가해·피해 경험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격 및 행동특성을 소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쓰치야의 글(土屋 守·“「내가 이지메 당한 일기」가 의미하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 베스트 셀러가 된 「내가 이지메 당한 일기」의 저자(딸과 공동 저술)가 그 책을 저술하기까지의 경과를 기록한 글이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우연히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이지메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한 충격을 느끼게 되고, 딸을 구해내기 위해 기울였던 자신의 노력과 교사, 학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이지메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사회의 다양한 시각과 이지메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3장 “대책”에서는 이지메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문부성)와 지역사회의 대응책을 소개하는 자료를 소개하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1980년대부터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일본의 청소년 이지메 문제는 1994년 11월 아이치현의 중학생 오가와우치(大河内清輝)군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에 문부성에서는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된 “이지메대책 긴급회의”를 설치하고(1994.12) 이지메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호소문(문부성·“이지메대책 긴급회의 긴급 어pell”)과 유의사항(문부성·“이지메 문제 대응을 위한 체크 포인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1996년(1.30)에는 문부대신의 명의로 대국민 성명(문부성·“문부대신 긴급 어pell”)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자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명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이지메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시각이 매우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다. 한편 1996년 7월에는 문부성에 위촉한 청소년문제관련 각계인사들이 공동집필한 이지메대책 종합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문부성·“이지메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에 관하여”), 여기서는 이지메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일체가 되어 상호유기적인 협력하에 공동대응해 갈 것과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자료(丹羽 仁·“지역단위의 이지메·부동교대책 추진활동”)는 문부성의 지원하에 니이카타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단위의 이지메 근절운동의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서,

이 운동은 현재 이지에 대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 전역으로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다.

국문초록

본 보고서는 일본사회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지메에 관한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한 자료집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이지메는 일본 특유의 청소년 문제로 간주되어 일반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학교폭력문제, 청소년 자살문제가 매스컴에 크게 부각되면서 이들 사건의 배후에 존재하는 청소년들 간의 집단 따돌림, 약자 괴롭힘과 같은 유사 이지메 현상의 실상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른바 "한국형 이지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는 일본사회의 이지메와 관련된 주요 자료들이 분야별로 정리·번역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 이지메와 관련된 일본의 사회적 배경, 이지메 문제에 관한 학계의 실증적 연구결과, 외국의 청소년 이지메 의실태와 일본과의 비교, 청소년 이지메의 구체적인 사례와, 이지메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본 보고서가 우리사회 청소년문제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지메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고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 논 의

일본의 이지메 - 그 특징과 연구경위*

松浦善滿

(마쓰우치 요시미츠·和歌山대학 교수)

1. 일본 이지메 연구의 경위

이지메라는 행위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나타나게 된 문제상황으로서 일본사회에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지메가 학교에 있어서의 아동·학생의 문제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이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이지메 문제를 조사연구한 최초의 시도는 교토시 교육연구소이다. 그 뒤 오사카시립대학의 모리야마(森山洋司) 교수 등이 전국조사를 실시한 것이 1984년이였다. 이른바 “이지메의 4 층구조론”으로 알려져 있듯이 이 조사연구는 이지메를 학급집단의 구조적 병리로서 파악했다. 일본의 이지메 연구는 이무렵부터 학교 교육문제로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지메 문제는 그 뒤 문부성, 교육위원회, 각 학교의 노력을 통해 한 때 “진정되는 조짐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1994년 11월 아이치(愛知)현 니시오(西尾)시의 중학생이 자기집의 감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이지메의 재발·증가”가 지적되게 되었다. 게다가 그 중학생이 자신이 이지메 당한 사실의 경위를 기록한 일기와 유서가 공표되어 이지메 문제는 다시금 사회문제화된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 이지메 연구도 새로운 발전을 보았다. 특히 국내의 이지메뿐만 아니라 구미제국의 이지메 문제도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일본과 영국 및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연구자와의 공동연

* 출처: 松浦善滿(1998), “日本のいじめ - その特徴と研究経緯,” 青少年問題研究會, 「青少年問題」45-12, pp.24-27.

구와 국제비교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정의의 동일성과 실태의 차이

그러면 일본의 이지메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제비교 조사결과가 내년쯤이면 정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면 문제가 상당히 명확해지리라 예상된다. 여기서는 몇가지 선행연구를 토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982년 노르웨이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을 계기로 정부에 의한 대규모의 이지메 조사가 실시되었다. 베르겐대학의 D.Olweus를 중심으로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그는 이지메를 “특정 학생이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한 사람 또는 복수의 학생들에 의한 거부행동을 당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¹.

여기서 “거부행동”이란 “특정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공격을 가하거나 가하려 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말로 위협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욕을 하는” 구두의 공격과 “때리거나 발로차거나 꼬집거나 감금하는” 등의 폭력, 또한 “험상궂은 표정·야비스러운 제스처 등을 보이거나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그룹으로부터 따돌리거나 친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지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부성에서는 “이지메란 자신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하여 상대방이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지메의 정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이지메 행위의 내용을 살펴 보면, 노르웨이의 이지메는 일본의 그것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지메의 실제적인 장면에서 양자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¹ 森田洋司(1996-7), “児童學生のいじめの生成メカニズムとその対応,” 과학연구비 보조금 연구성과 보고서; 森田洋司 감수, “世界のいじめ,” 金子書房, 1998.

² D. Olweus (1995), “いじめこうすれば防げる,” 川島書店, 1995

Olweus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이지메는 동일 연령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이지메의 상당 부분이 연상의 학생에 의해서 행해진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2, 3학년생의 절반이 상급생으로부터 이지메를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둘째, 일본에서는 남자의 이지메는 남자들 사이에서, 여자는 여자들 사이에서 하는 식으로 동성간의 이지메가 많지만, 노르웨이에서는 동성간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지메도 많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중학 1학년생 중에서 남자가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지메가 60%에 달하고 있다.

셋째, 이지메가 일어나는 장소는 일본에서는 교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노르웨이에서는 교실 이외에 교정이나 등·하교시에도 이지메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에서는 교정에 교사가 서 있으면서 감시하거나, 청소년들이 즐기는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3. 교실에 갇혀있는 이지메

이와 같은 일본 이지메의 특징은 최근 국내조사 데이터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지메 피해자의 75%가 "교실"에서 이지메 당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의 80%가 "동일 학급의 학생"으로부터 이지메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중학교에서는 "그룹이 모이는 장소"(약 20%)에서 "다른 학급의 같은 학년 학생"으로부터 이지메 당했다는 응답도 다소 나타나고 있다¹.

이처럼 이지메가 동일 연령의 같은 학급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질적인 연령집단 속에서는 적다는 사실로부터 일본의 이지메가 교실이라는 장에 갇혀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일본의 이지메는 교실을 장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일까. 필자의 사견이기는 하지만, 그 요인으로서 교실이 청소년의 생

¹ 森田洋司, "児童學生のいじめの生成メカニズムとその對應," 앞의 책.

활공간이라기보다는 학습공간으로서, 일원적으로 경쟁가치를 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실은 청소년의 학습결과가 측정되는 장이 되어, 일상생활의 모순이 수용되거나 이해되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은 이와 같은 장에 대한 강한 반발감을 품으면서 수업시간을 보내고 배포된 시험지나 통지문을 거리낌 없이 휴지통에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실은 경쟁가치로부터 멀리 있는 청소년과 사로잡혀 있는 청소년이 함께 모여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없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지메하는 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4. 공·의존관계로서의 이지메 그룹

그러나 90 년대의 이지메는 교실을 벗어나서 외견상 사이좋은 것으로 보이는 그룹 내의 이지메로 변모하고 있다. 이 그룹내에서 경쟁에서 뒤쳐진 청소년이나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청소년이 모두 함께 모여 강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끼는 자신들을 무마하기 위해 “표면적인 친근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의존관계를 맺어 간다.

아이치현 오가와우치 키요테루군의 자살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사이좋은 그룹” 내부에서 이지메 당하면서도 친구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획득 경쟁은 바야흐로 가정내의 가치마저도 일원화하는 추세로서,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녀를 강한 기대와 함께 불안감을 느끼면서 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종래의 교실 내에서의 이지메 구조로부터 이탈하여, 이지메와 유착(癒着)의 양면을 지닌 그룹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이지메는 구미제국의 이지메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학력경쟁이라는 독자적인 요소에 의해서 규정되면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5. 살아가는 힘을 체득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지메에 대한 대응책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청소년 자신이 이지메의 해결력을 체득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성인과 교사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후원자로서 그들에게 대항하는 힘을 원조해 주는 존재이다. 청소년들에게 교실과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생활 규칙과 수업 방식을 말하게 하고 그 중 한두가지라도 실현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휴식시간을 늘리거나 교정에 청소년이 희망하는 놀이기구를 설치하거나 화초를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지메를 비롯한 생활주변의 갈등과 고민을 극복할 수 있게 된 사례가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 “살아가는 힘”을 함양시켜야만 이지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관련되어 왔는가*

- 일본 근대학교 125 년의 궤적 -

松本良夫

(마쓰모토 요시오·東京學藝大學 교수)

1. 머리말

1998 년 3 월, 학년말을 맞아서 “학교”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연일 “칼에 찢린 소년” 사건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다. 신문 일면에 “소년사건, 학교에는 한계 - 문부성협력자회의가 보고”의 표제가 눈에 띄인다(98. 3.25). 이제 다시금 학교의 존재이유가 의문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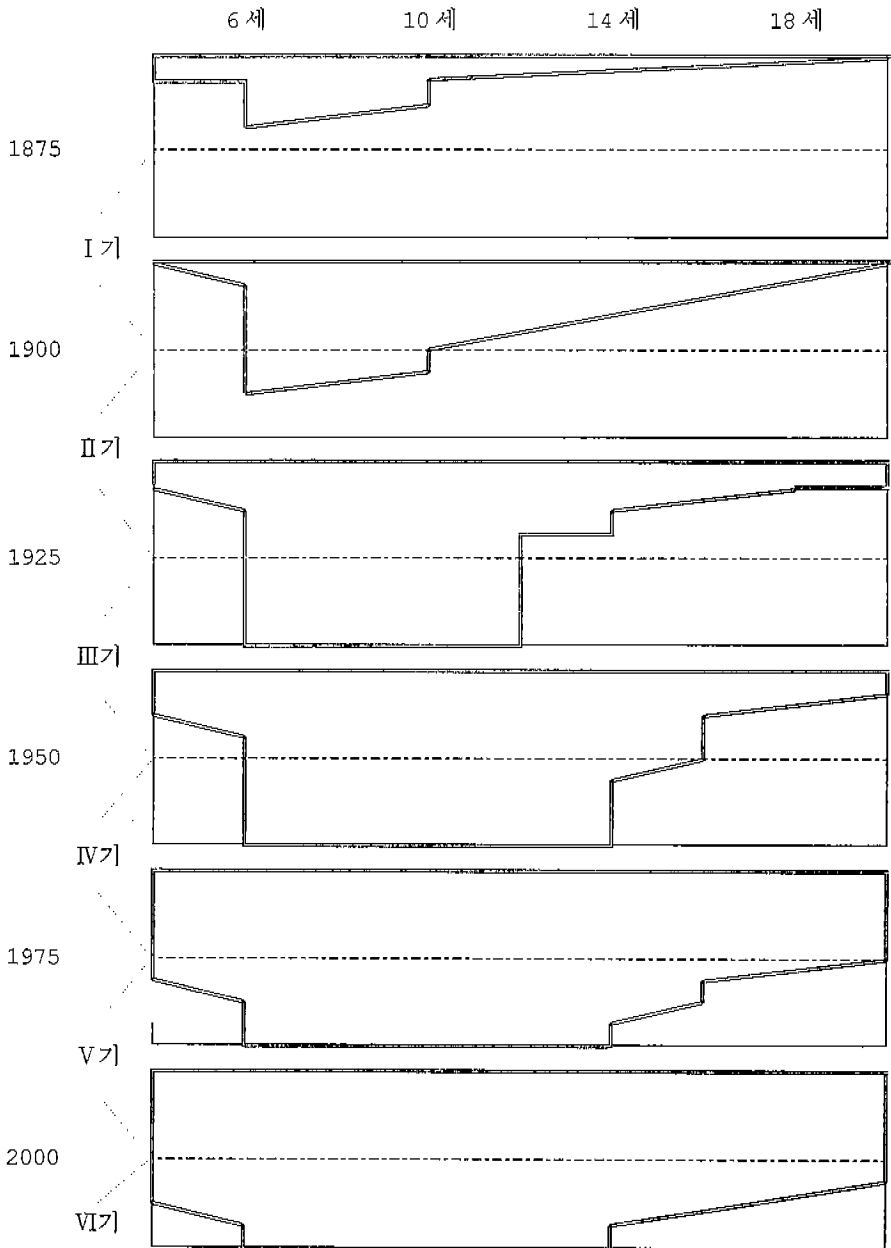
필자가 의뢰받은 과제는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해왔는가? 메이지(明治) 시대 이래 지금까지의 변천”이었다. 이것을 임의로 주제를 변경하여 우리나라의 근대학교 125 년을 회고해 보고자 한다.

학교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문제로 할 경우 그 시대의 학교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 를 질문하기에 앞서 “육아·교육의 학교화”가 소년 전체에 미치는 의미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근대 학교제도가 창설된 이후 125 년이 경과하였다. 이 과정은 학교 증식의 역사로서 자녀양육의 “학교화”, 소년의 “학생화”의 역사였다. 그 과정에서 각 단계에 따른 “교육문제”가 파생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 125 년간을 25 년씩 5 기로 나누어서 각 시기의 양상을 묘사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근대학제는 1972(明治 5)년에 시작되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1975 년부터 25 년씩 지표연차를 설정했다.

* 출처: 松本良夫(1998), “學校は子どもたちにどう関わってきたか - わが國の近代學校 一二五年の軌跡,” 青少年問題研究會, 「青少年問題」45-5, pp.10-15.

그림 I-1: 육아·교육의 “학교화”의 전개



앞의 그림은 각 연차에 있어서의 4 세부터 19 세까지 연령대의 취학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당초는 매우 소수의 아동이 짧은 기간 동안만 취학하였지만, 백년 뒤인 1975 년에는 4 세 이상 미성년자의 대부분이 취학하기에 이르렀다. 이 연령대의 전원이 취학하는 상태를 100 이라고 하고 “학교화지수”를 상정해 보자. 1875 년에 이 지수는 10 미만이었지만 1900 년에는 30 정도, 25 년에는 50 전후, 50 년에는 75 정도, 그리고 75 년에는 90 을 넘었다. 2000 년에는 95 에 접근할 것이다.

학교의 지도내용은 그 세부에 걸쳐서 보면 시대와 더불어 변천하고 있다. 그러나 대국적으로 보면, 근대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적 성격은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다. 변화는 오직 사회상황의 변화에 수반하는 “정치적 분식(粉飾)”과 “제도내적 정비”정도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아무튼 학생들(비학생도 포함)은 표면적인 커리큘럼에 의해 생활상황에 따라 의미변용 하는 “감추어진 커리큘럼”을 학습해 왔던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의 영향도 각 세대의 발달상황에 있어서의 학교의 위치·역할과 관련지워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근대학교의 창설·정착

1) 제 1기: 근대학교 창설기 - 1875 ~ 1900 년

1892 년(明治 5), 치산흥업(治産興業), 수신개지(修身開智)는 “학문”에 의거해야 한다 - 고 하여, 국민 개학(皆學)을 기하는 “학제”가 발족되었다. 당초 학령아동의 취학률은 28%였다. 이 비율이 50%를 넘어서 안정경도에 오르는 데에는 약 20 년이 걸렸다. 그 뒤 취학률은 해마다 상승하여 1900 (明治 33)년에 80%대에 달하였다.

최초의 25 년은 우리나라에 근대학교가 이식되어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교과과정의 면에서도 1900 년의 소학교령(제 3 차)으로 기본형(수신, 국어·산수, 체육)이 정해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청소년 전체의 인격형성에 미치는 학교의 비중은 아직 미약하였다. 1900년 당시에도 10세 아동의 반수는 학교 밖에 있었다. 이 사실은 소년의 육아·교육의 커다란 부분이 가정·지역·직역(職域)에서 담당하였음을 시사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령아동을 어떻게든 “취학” 시키는 것이 국가정책의 중요과제였다.

2) 제 2기: 근대학교의 정착기 - 1900~1925년

제 2기는 메이지 후기에서 다이쇼(大正)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근대 학제 중 토대(초등교육)가 거의 완성되고 그 위의 학교단계(중등·고등교육)의 정비가 시작되었다. 앞서 설명한 학교화 지수가 30 정도에서 50 이상으로 상승한 단계이다.

학령아동의 취학률은 이 기간에 81%에서 99%에 달하였다. 이 기간중인 1907년(明治 40)에 의무교육 연한은 6년으로 연장되었다. 이어서 제 2기 말에는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졸업자의 4할 이상이 고등과에, 약 1할 정도가 중등단계 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실업학교)에 진학하였다. 이와 같이 제 2기 말에는 아동기는 “학교”에 편입되었지만, 14세 소년의 대부분은 학교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이 시기에 ① 각 학교 유형마다 교과과정의 정비 ② 각종 학교행사의 정형화(소풍·운동회 등의 체육적 행사 외에 입학·졸업의 의식, “학예회”의 보급 등)가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근대학교는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

또한 “교육풍토”의 측면에서는, 국가주의적인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청소년을 티없이 깨끗한 존재로 간주하는 낭만주의적 청소년관”이 명치 말부터 대정 중기에 대두되었고, 도시부에서는 “자유주의적”인 교육실천을 시도하는 학교도 나타났다.

3. 근대학교의 전환과 확장

1) 제 3기: 근대학교의 전환기 - 1925~1950 년

제 3 기는 쇼오와(昭和) 의 전전(戰前)·전중(戰中) 과 종전 직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격동”의 시대로서 당연히 학교도 이 격동 속에서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취학상황을 보면 이 기간에 국민의 학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서 1937 년(昭和 12) 의 시점에서 보면 소학교 심상과(尋常科) 졸업자 중 55%가 고등과에, 20%가 중등단계 제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의 전기 중등단계로의 연장은 전후까지 유예되었다. 전후 “6·3 제” 시행에 의해 신제 중학교까지가 의무제가 되어 단선형 접속으로 고등학교로의 진학도 용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년인구 중 취학자 수는 대폭 증가하였다. 1950 년(소화 2 년) 의 취학상황을 취학(원)·진학률로 나타내면, 유치원 9%, 소·중학교 99%, 고교 43%로 되어 학교화 지수는 75 정도로까지 상승한다.

이 시기의 학교는 전전·전중기와 종전 직후의 혼란기로 나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육아·교육의 학교화”, “청소년의 학생화”는 큰 진전을 보였다.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전전·전후의 “단절”도 현저하여 초국가주의·군국주의에서 민주주의·평화주의로, 전체주의·통제주의에서 개인주의·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념적 차원으로서 전전부터의 “집단주의적 학교풍토”는 상당 기간 전후에도 계속되었다.

필자 자신도 그중 한 사람이지만, 이 시기의 학교를 체험한 사람들은 학교 자체보다도 학교를 둘러싼 생활상황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시대에도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 4기: 현대 학교의 확장기 - 1950~1975 년

제 4 기는 쇼오와 25 년에서 50 년까지 전후의 부흥기에서 고도성장의 중언기까지에 해당된다. 학교의 역사로는 전후 교육의 시작에서 부분적인 반동

(反動)을 거쳐 “대중교육” 체제에 도달한 시기이다.

이 기간에 유치원 취원율은 9%에서 64%로, 고교진학률은 43%에서 92%로, 대학진학률은 10% 미만에서 38%로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세 이상 미성년자의 대략 90%가 학교에 적을 두는 “고학력(장기취학)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변화는 혜택받지 못한 사회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보급(교육의 평준화) - 라는 의미에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고 획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환경에 커다란 왜곡을 남게 되었다.

이 시기에 학교는 시설·설비, 교육과정, 교원의 근무조건 측면에서 제도적으로는 “정비·확충”되었지만, 반면 생활 리얼리티로부터 이탈이 심화되었다. 바꿔 말하면, 육아·교육에 얽힌 제문제들을 학교의 내부로 “안고 들어오는” 형태로 “학교확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학교의 기능은 둔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의 교육력의 저하” “학원분쟁” “무관심·무감동” 등의 단어는 당시의 실정을 말해주고 있다.

3) 제 5기: “포화”기 - 1975~2000 년

그리고 현재. 20세기 최후의 25년도 3년이 채 남지 않은 채 끝나가고 있다. 취학지표는 1980년 이래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아마 2000년의 수치도 1980년~90년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육아·교육의 “학교화”가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1970년 무렵을 경계로 사회동향은 “산업화·학교화”에서 “정보화·서비스화”로, 사회형태는 “분절형”(分節型)에서 “크로스 오버 형”으로 변환했다(藤田英典). 이제까지는 대체로 “포지티브”하게 생각되었던 학교는 이 시기에 접어들어 “교내폭력, 이지메, 부등교...” 등 학교를 둘러싼 트러블의 현재화와 더불어 “네거티브”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편, 진학경쟁은 해마다 격화하여 학원진학의 저연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안식처(부재)” “양호실 등교” “‘보통아이’의 칼부림” “학원붕괴”와 같은 단어는 오늘날 학교의 폐색상태 - “숨쉬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부터 사람들은 과도한 “학교화”의 폐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교육

행정 당국도 학교의 슬림화, 학교 주 5 일제로의 이행 등 “학교사상 최초로” “학교감축”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향학교”(向學校) 풍의 압도적으로 강하여 “학교감축”의 모습은 아직 분명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제까지 학교가 “무엇을 가르쳤는가”(지도내용)를 거의 다루지 않고 학교가 “청소년기를 어느 정도 자신의 영역으로 포괄하며 확장해 왔는가”를 기술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보다 많은 소년들에게, 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다 고도의 “교육(내용)”을 전수해 왔다. 현재의 일본인 전체의 “학력수준”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근대학교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 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연동(連動)한 “육아·교육의 학교화”가 야기한 부정적인 산물도 적지 않다. 생활로부터의 이탈로 인한 학습내용의 획박화, 집단 “동조”와 과잉 경쟁이 야기한 스트레스 축적, 육아 “호송선단”(護送船團) 방식이 야기한 개성·독창력 육성의 부진 등... 그러면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4) 제 6기: 21 세기의 학교의 행방 - 2025 년의 학교는 ?

2025 년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와 같은 “학교만능” 방식은 조기파산하지 않을 수 없다. 근년에 공교육에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논의가 있지만, 교육을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사태가 타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불평등·불공정이 야기될 수도 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평등·다양”한 학습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1) 우선, 학교의 영역을 적절하게 “감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토대 위에 “유연한 공통부분”과 “다양한 선택부분”을 개성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학교체계를 마련하는 것, (2) 학교와는 별개로 가정·지역을 토대로 한 생활=학습의 장을 확보하는 것, (3) 소비·정보세계로 열려진 생활=학습에 배려하는 것 - 이 필요할 것이다. 21 세기의 학교에서는 이들 세 종류의 학습을 “교환”하는 인터체인지와 같은 역할이 기대된다.

개성적인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생활방식을 서로 인정하는 사회 (공생사회) - 이에 기초한 생활과 학습의 시스템이 요망되는 시점이다.

이지메 가해자·피해자의 심리와 구조*

羽田紘一

(하다 코오이치·東京都立教育研究所 상담부장)

본고는 “이지메 가해자·피해자의 심리와 구조에 관한 기초적 연구”(加室弘子・鮑田典子・多賀谷篤子, 東京都立教育研究所相談部, 1984-1986)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다. 이 연구는 학급경영·학교경영의 시점에서 종단적(縱斷的)으로 학급집단을 추적하여 집단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지메가 발생하고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 과정에 교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구명하려 한 것이다.

1. 연구의 개요

1) 본 연구의 이지메 정의

“이지메”란 동일집단 내에서 단독 혹은 복수의 성원이 자신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성원에 대해서 신체적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심리적인 고통이나 압력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일집단”을 “학급내”로 한정한다.

* 羽田紘一(1995), “いじめ・いじめられの心理と構造”, 稻村博・齊藤友紀雄 編, 「いじめ自殺」, pp.171-180, 東京: 至文堂.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학급내의 아동·학생(이하 “학생”이라 함)의 교우관계에서 이지메 가해자-이지메 피해자의 실태를 밝히고, 이지메 가해자-이지메 피해자의 심리와 구조 및 학급담임(이하 “담임”이라 함)의 지도방식을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연구 대상

초등학교 4 학급, 중학교 1 학년 1 학급, 2 학년 2 학급 등 모두 7 학급이다.

4) 연구 방법

(1) 대상학급의 분석

- ① 소시오메트릭(sociometric) 테스트
- ② 이지메 조사: 초등학생은 자기신고 방식, 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타자 신고 방식으로 실시했다
- ③ 조사의 회수
 - 초등학교 1·3·5 학년: 2 년간 소시오메트릭 테스트 8 회, 이지메 조사 7 회
 - 초등학교 6 학년: 1 년간 소시오메트릭 테스트 5 회, 이지메 조사 4 회
 - 중학교 1·2 학년: 1 년간 소시오메트릭 테스트 4 회, 이지메 조사 3 회
- ④ 담임과의 협력: 대상학급의 담임과 이지메의 실태, 개별 학생의 상태, 집단의 상태, 담임의 지도, 학급경영의 방식에 관해서 협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학급의 상태를 관찰했다.

(2) 내담(來談)사례의 분석

내담사례에 대해서 이지메의 실태, 담임의 지도, 학교와의 협력 등에 관

해서 분석·검토했다.

2. 이지메의 실태와 접근시각

다음의 시점에서 이지메의 실태를 파악했다.

1) 학급의 상태

학급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시오메트릭 테스트를 활용했다. 여기에 예로 든 두 학급은 같은 학년의 학급이지만 학급의 상태는 매우 상이하며, 또한 이지메의 실태도 서로 다르다.

(1) 이지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학급: 중 3- X 학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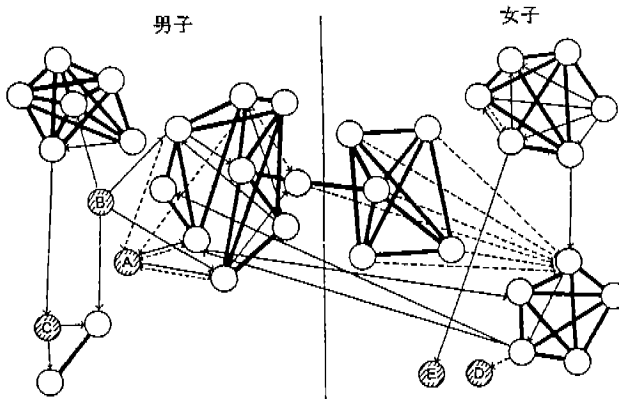
중 3-X 학급의 이지메의 실태: X 학급의 이지메 조사에서의 보고는 “제로”. 담임 및 다른 교사의 관찰에서도 이지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2) 이지메가 특정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학급: 중 3-Y 학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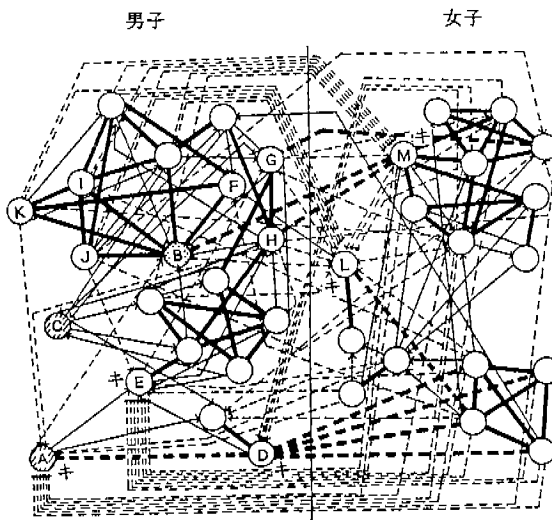
중 3-Y 학급의 이지메의 실태: Y 학급의 14 명의 학생들은 이지메 조사(타자신고 방식)중에 “고립”되고 “혐오받는” A 군이 구타당하고 발로차이고 라커에 갇히는 등 이지메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가해 학생들로 “스타”인 B 군을 중심으로 B 군과 상호선택관계에 있는 남학생 F, J, I, K와 그밖에 G, H, 나아가서는 “혐오받고 있는” D가 가담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A 군을 이지메하고 있는 모양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담임도 목격한 바 있어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림 1-2: 조사대상 학급의 소시오그램

- 중3 X 학급: 이지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학급 -



- 중3 Y 학급: 이지메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된 학급 -



소시오그램을 읽는 방식

- 굵은 실선은 상호선택, 가는 실선은 일방적인 선택. 굵은 점선은 상호배척, 가는 점선은 일방적인 배척을 의미
- ○은 각 성원, ○는 스타, ○는 "고립", "주변", ☆는 "혐오받음"을 의미

(3) X학급과 Y학급의 비교

같은 학년이면서 학급의 양상은 대단히 달라서 이지메의 실태도 상이하다.

이 두 학급의 커다란 차이는 피해척수(被排斥數)이다. Y학급의 높은 피해척수는 학급내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시오메트릭 테스트의 통계에 따라서 분석해 보면, X학급은 응집도는 높고 분열도는 낮아서 사회측정적 지위지수의 평균이 높아서 집단의 단합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Y학급은 X학급에 비해 응집도는 낮고 분열도는 높아서 사회측정적 지위지수의 평균이 낮고 단합도가 떨어지는 학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의 단합도와 이지메의 실태를 함께 고려했을 때 이지메와 집단의 단합도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이지메의 구조

이 연구에서는 같은 학급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면서 피해·가해학생의 학급집단에서의 위치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지메의 구조를 분석했다. 구조를 분석하는 관점으로서, 1) 피해·가해학생 양자가 학급집단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2) 양자가 소속한 집단이 같은가 다른가, 3) 소속된 집단의 크기는 어떠한가의 세가지 측면에서 소시오그램상의 구조를 살펴봤다. 그 결과를 표시한 것이 그림 3이다.

3) 이지메의 의미와 그 지도

본 연구에서는 대상학급의 양상의 변화와 이지메의 실태의 변화 및 담임의 지도를 검토했다. 각 학급에서 발생한 이지메는 그 상황, 구조, 이지메에 이르는 경과가 다양하고 이지메의 의미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의미가 다르면 당연히 지도의 방식이나 중점도 달랐다. 대상학급 속에서 특히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 및 내담사례에 기초하여 이지메의 의미의 분류를 행한 것이 <표 1>이다. 특히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준은, 1) 이지메를 통

해서 피해·가해학생의 교우관계가 붕괴하여 양자 모두 부적응상태에 빠져있는 경우 2) 단기간이더라도 가해학생이 많거나 조직적인 경우로 설정했다.

이하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그림 1-3: 이지메의 구조

(화살표의 방향은 이지메하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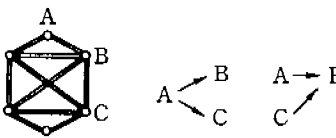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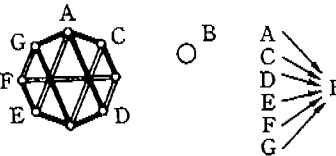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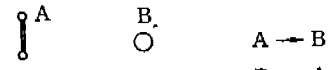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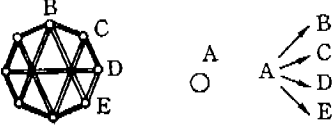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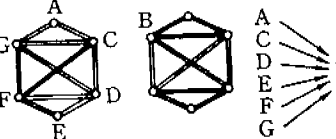
①	동일한 하위집단 속에서 상호선택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의 이지메 (이하 '집단'은 하위 집단을 의미) 	평소 서로 잘 알고 있는 친구인 A가 B, C를 이지메하는 경우와, A, C가 B를 이지메하는 경우. $A \rightarrow B \rightarrow C \rightarrow A$로 순환하는 경우도 있다
②	커다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작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및 '고립'·'주변'의 사람을 이지메한다 	여럿이서 함께 이지메한다. 이지메하는 쪽에 스타나 리더가 있는 경우는 클래스의 대부분(남자 전부가 여자 전부)이 이지메하는 일도 있다.
③	'고립'·'주변'의 사람들 혹은 서로 다른 작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간의 이지매하기·당하기 	커다란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이지매하거나, 당하거나 하고 있다.
④	'고립'·'주변'의 사람 혹은 작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큰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이지메 	'고립'·'주변'의 사람이 누군가를 이지메하고 있다.
⑤	서로 다른 큰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지매하기·당하기 	서로 다른 집단에 소속된 특정한 사람을 목표로 하여 여럿이서 함께 이지매한다.

표 I-1: 이지메의 의미에 의한 분류

	이지메의 의미	이지메의			특 징	지도의 포인트
		구조	상황	표적		
I	부적응상태의 사람이 친구를 만들기 위한 이지메	③ ④	개 인	밖	집단에 좀처럼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친구를 구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거나 난폭한 행동을 한다.	부적응 상태에 있는(친구를 간절히 바라는) 가해학생에 대한 이해와 개별지도
II	친구들간의 갈등에서 유발되는 이지메	①	소 집 단	안	대등한 친구관계에 있는 자가 리더쉽 다름 등으로 친구따돌림을 한다. 입장은 유동적	담임에게는 발견되기 어려운 이지메의 하나. 피해학생의 언행에 주목하고, 관계학생에 대한 개별지도와 소속된 소집단에 대한 지도
III	친구들 중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이지메	①		안	역학관계가 명확한 친구들 가운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복종시키려고 하고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다	담임에게는 발견되기 어려운 이지메의 하나. 가해학생이 지닌 문제의 이해와 개별지도
IV	친구들간의 결속을 피하기 위한 이지메	⑤		밖	가해학생(불만분자 등)이 친구를 만들기 위해 다른 목표물을 찾고 그럼으로써 결속을 피하고자 한다	담임에게는 발견되기 어려운 이지메의 하나. 불만분자를 찾아내고 그들의 기분을 철저히 파악한다. 가해학생이 소속된 소집단에 대한 지도
V	위화감에서 유발되는 이지메	②		안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거나 학력이 열등한 자에 대해서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로서 배제하고자 한다. 전학생, 귀국학생 등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지메의 발생, 장기화에 담임의 안동이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다. 담임의 인간관이 크게 좌우한다. 학급 전체에 대한 지도,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지지
VI	학급내의 심정 불안에서 유발되는 이지메	②	학 급 전 체	안	학교행사 등이 거둬지는 불안정한 시기에 학급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특정한 학생을 목표물로 하여 대부분이 이지메한다	담임을 테스트하여 돌발적으로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학급의 분위기가 집단역학을 파악하여 잘 리드하는 등 학급집단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

주: 이지메의 구조는 그림 I-3 참조

(1) “Ⅲ. 동료 내에서 자신의 우위성을 과시하는 이지메”

사 례: 초등학교 6 학년 학급에서 상호선택관계에 있는 L 군과 M 군 사이에서 2 학기부터 3 학기에 걸쳐서 이지메가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담임은 보호자로부터 상담요청을 받기 전까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 금품의 강요, 물건의 강매와 관련된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 L 군은 A 군, B 군과 여름방학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A 군, B 군이 미리 보러 갔다. 동료로부터 따돌림 받았다고 느낀 L 군이 추궁하지 한 사람이 가벼운 기분으로 “돈을 주면 되잖아”라고 말을 던졌다. 진지하게 받아들인 L 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사람에게 재촉했다. 그것을 전해 들은 M 군이 A 군과 B 군에게 재촉하게 되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느끼자 필요 없는 물건을 억지로 사게 하거나 물품을 강요하게 되었다. 2 학기가 되어 L 군이 M 군과 H 군에게 얼굴이 부을 정도로 구타당했다. L 군은 담임에게 “복도에서 뛰어가다가 엎어졌다”고만 하고 자세한 얘가지 않았다. 이후의 소시오메트릭 테스트에서도 L 군과 M 군은 상호선택관계를 계속하여 담임에게는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담임은 L 군이 M 군에게 매료되어 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건은 피해학생의 한 사람인 A 군의 모친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 들을 때까지 담임에게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이지메였다. 교사도 보호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차츰 피해학생의 범위가 확산되었다. 사건을 안 담임은 그 날중으로 바로 관계 학생 전원과 그 보호자를 불러놓고 지도했다.

사례의 특징

- 이 이지메의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은 상호선택관계에 있어서 담임에 눈에 띄기 어려워 발견이 지체된 경우이다.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역관계(力關係)가 있고 고정되어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게 될 두려움 때문에 상호선택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 가해학생은 집단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고 비행경향을 수반하고 있다.

- 이지메의 내용은 구타, 견어차기, 금품의 요구 등 약자에 대한 위협이다.
- 지도의 방식
- 이 이지메의 경우는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가 중심이 된다.
 - 가해학생의 개개인의 상황을 이해하여 각 학생과의 인간관계의 확립이 선결과제이다. 이것을 토대로 이지메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에는 피해학생을 기분을 전해주고 차분하게 지도한다.
 - 피해학생에게 신체증상이나 등교거부, 불안정한 거동 등이 발견되면 주의깊게 관찰한다.
 - 피해학생은 보복의 공포에 시달려도 호소할 수 없게 된다. 담임은 평상시부터 피해학생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두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찾아와서 얘기하라고 말해 둔다.
 - 담임은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해 어떤 감정이 있는지 들어 보고, 강한 자에 복종하는 형태가 아닌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을 뒷받침해 준다.

(2) 위화감으로부터 생기는 이지메

사 례: 초등학교 5 학년 남학생이 많은 학생들로부터 이지메 당한 사례이다.

사건의 개요: A 군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어 운동을 잘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조소를 받거나 따돌림 당하게 되었다. A 군이 교사에게 호소하자 고자질했다고 더욱 이지메 당하는 일도 있었다. 조사에서도 그 상태가 나타나고 있어 제 1, 3, 4 회의 소시오메트릭 테스트에서 “고립”, 제 2 회에서는 “기피자”로 분류되었다. 또한 제 1 회의 이지메 조사에서 A 군은 7 명으로부터 이지메 당했다고 신고했고 5 명으로부터 A 군을 이지메 했다는 가해신고가 나왔다. 이지메가 조직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담임은 이지메의 현장을 종종 목격하여 현장에서 가해학생을 질책하고 엄중히 문책하거나 했다. 학급회의에서 테마로 다룬 일도 있었다. 또한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학급 리더에게 A 군을 놀이에 끼워 주도록 부탁했다. 따뜻한 성격의 리더는 A 군에게 말을 걸거나 권유하거나 했다.

담임은 따돌림이나 이지메 등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A 군은 물론 학급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담임의 노력으로 A 군은 우선 리더와 사이좋게 되고 차츰 집단 속으로 편입되어 갔다. 이지메 당하는 일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사례의 특징

- 집단의 성원이 피해학생에게 위화감을 느끼고 친숙하지 않아서 배척하는 이지메이다.
- 이 이지메의 경우 피해학생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학력이 낮거나 생활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모든 이지메의 이유가 되고 있다.
- 피해학생은 학급 내에서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가해학생은 복수이고 학급전체로 확대된다. 중학교에서는 집단화하는 경우가 많고, 리더가 참가하는 경우 이지메는 현저해 진다.
- 담임 자신이 피해학생과 마음의 교류를 갖지 못하고 그로부터 유발되는 담임의 언동이 이지메의 발생, 상승, 장기화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다.

지도의 방식:

- 이지메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 피해학생을 충분히 지원해 준다. 피해학생 중에는 담임의 지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하는 학생도 있다. 이것은 담임이 피해학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즉 담임의 인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가치관의 편향에 기초한 이지메이다. 담임은 이지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학생의 방패가 되어 보호해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인간 각자의 차이를 차이로서 인정하면서 함께 어울려 학교생활을 보내야 함을 설득한다.
- 학급 중에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존재방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모두가 충실히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 담임에게 벽찬 경우에는 다른 교사에게 상담하든가 원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3. 맺음말

이지메는 청소년의 교우관계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발생은 학급편성 교체가 있어서 새롭게 학급집단이 형성되려 하는 시기, 또한 같은 성원이더라도 새로운 학년이 되어 학급이 재출발하는 시기에 집중된다. 교육상담의 창구에서도 이지메관련 상담이 많은 것은 연초와 5, 6월이다. 담임들은 1 학기에 학생들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지메의 발생과 소멸은 학급집단의 단합도와 관계가 있고, 이지메의 발생, 장기화, 해결에는 담임의 영향력이 크다. 이지메가 발생하면, 이지메의 상황, 구조, 그때까지의 경과를 검토해 보고, 이지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지도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지메의 해결을 담임의 힘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담임을 뒷받침하는 교내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상담기관에서의 이지메 상담은 학교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한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지메 사건에 있어서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大石剛一朗

(오오이시 코오이치로·변호사)

1. 서 론

이지메에 관해서는 전화상담·법률상담 등 말하자면 “고민상담”적인 상황에서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다. 1990 년의 공립학교에 있어서의 이지메 발생건수에 관한 문부성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7,718 건, 중학교에서 11,922 건, 고등학교에서 2,422 건으로 되어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른바 “사건”으로까지는 발전되지 않은 작은 이지메가 “일상적으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지메가 “사건”의 차원에 도달할 때 이지메 한 측의 법적 책임은 일반적인 민사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 (혹은 폭행·협박 등에 의한 형사책임) 과 동일하다. 이에 덧붙여서 “이지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교사·학교의 과실이 추궁된다는 점에서 이지메 사건의 특징이 있고 나아가서는 이지메 당한 측의 본인·부모의 과실이라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들 사항이 재판 등에서는 주요한 쟁점이 된다.

이하 판례를 토대로 하여 이지메 사건에 있어서의 학교측의 주의의무·과실·법적 책임, 본인·부모측의 과실, 자살에 관한 책임에 관하여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출처: 大石剛一朗(1993), “いじめ事件における法的責任について,” 青少年問題研究会, 「青少年問題」40-6, pp.18-22.

2. 학교측의 주의의무·과실·법적 책임에 관하여

1) 이지메의 “계속성”의 요건

일반적으로는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총칭해서 “이지메”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분야에 있어서의 “이지메”는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이 불가결한 요건이다. 그리고 이 “계속성”이야말로 이지메에 관해서 다른 돌발적인 학교사고의 경우와는 다른 주의의무를 교사·학교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중대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즉, 이지메는 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개의 작은 이지메가 행해지고 있는 단계에서 이것을 발견·인식하여 계속적인 이지메를 중지시키고 중대한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바로 그것이 학교측에 요구되는 의무인 것이다.

2) 저지해야 할 이지메

이지메의 근절은 이상에 불과하고 근절 자체는 불가능하다. 학교측의 안전유지 의무는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모든 이지메를 저지하여 금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東京地裁 1991. 3. 27 판결·⑥ 판결)

는 요지의 판례가 있지만, 모든 이지메가 근절 가능한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정한 청소년들간의 작은 이지메에 관해서는 이를 중지시켜서 “사건” 발생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또한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학생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험 또는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견되었음에도 이것을 저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안전유지 의무 위반이 된다(앞의 ⑥ 판결).

이지메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는 교육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

학교측의 안전유기 의무 위반을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치를 취하면 용이하게 학생의 생명 및 건강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결과를 방지할 수 없으며, 또한 교육기관이 위험의 절박성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東京地裁八王子支部 1991. 9. 26 판결·⑦ 판결)

는 요지의 판례가 있지만, 계속적인 이지메가 자살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하므로 학교로서는 이미 알려진 이지메에 관해서는 설사 그것이 작은 것으로서 학생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험,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야기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해도 그 계속을 중지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해서 학교측에 재량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이지메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의무

학교측은 청소년의 집단생활에서 이지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담임교사는 생활지도의 장면에서 이지메 사실의 유무에 관해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미 이지메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지메의 실태를 인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시·접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지메 근절을 위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 松江地裁 1981. 3.31 판결(① 판결)은,

학교(연수소) 측은 약자가 다른 학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파악했기 때문에 본건과 같은 세대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약자 이지메의 존재에 관해서 주의해야 했다

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지메를 당한 청소년측으로부터의 학교측에 대한 호소의 유무는 학교측의 이지메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東京地裁 1990. 4.17 판결·④ 판결). 그러나 이 점을 중시하면 학교측으로서의 이지메를 목

격하거나 전해 들은 적이 없다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 학교측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면 인식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가 추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이지메의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측은 그 조짐을 관찰하고 청소년으로부터의 사정 청취 등 적극적으로 이지메 사실이 없는가를 조사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4) 이지메 인식 후의 적절한 조치의무

학교측은 이지메 사실을 이미 인식 또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지메의 음습·은폐·잠재적인 성질을 감안하여 이것을 경시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의무를 진다(福島地裁岩木支部 1990. 12.26 판결·⑤ 판결, 同旨).

단순히 추상적·일반적인 주의·지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 의한 집단토론, 이지메 한 아이와 당한 아이와의 개별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이지메의 요인을 해명하고 가정과 협력하여 근본적으로 이지메를 제거하려는 노력, 또는 가해아동에 대해서는 가벼운 폭행·장난이 생명·신체 등의 손상으로 연결되는 일이 있음을 반복해서 신중하게 설명하여 이지메를 그만 두도록 엄중하게 지시하는 등 이지메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또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의무를 진다(浦和地裁 1985년 4월 22일 판결·판결, 同旨).

“이지메 사실을 파악한 뒤에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는가는 학교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고 한 판례도 있지만(앞의 ⑦ 판결), 예를 들면 현장의 교사가 흔히 취하기 쉬운 안이한 직접지도가 보복행위를 유발하리라는 것은 일반인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학교측의 재량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해도 엄격하게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3. 본인·부모측의 과실에 관하여

청소년은 이지메를 받음으로써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상대(양친, 담임교사 등)에 대해서는 이지메를 받고 있다

는 사실을 털어놓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지메를 계속 받고 있는 청소년은 반항하거나 도주하는 행동력을 결여한 청소년이기도 하다. 이지메를 당하는 청소년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약자”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이다. 이지메는 은밀하게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앞의 ① 판결)

라든가,

이지메를 당한 청소년이 일부 경위를 밝히거나 동교거부하거나 하여 사태를 회피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 및 그 가족이 이와 같은 이지메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 등에 관해서 본인·부모측에 과실이 있다(앞의 ⑤ 판결)

고 하는 것은 “이지메를 당하는 약자라는 사실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지메를 받고 있는 청소년으로부터 호소가 없었다는 것을 “과실”로서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부당하며 학교측의 인식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한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부모는 자녀로부터 이지메 사실을 들어서 알아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앞에 설명한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이지메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단, 이지메의 명확한 징표나 보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부모는 즉시 학교에 연락할 의무가 있고 이것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자녀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도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자살에 관한 책임에 관해서

본인이 자살을 털어놓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학교측의 예견가능성·과실을 부정한 판례도 있지만(新潟地裁 1981년 10월 28일 판결·② 판결, 앞의 ⑥ 판결), 학교의 안전유지 의무위반을 인정하는 데에는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지메를 받는 청소년의 심신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이지메라는 사실의 인식가능성이 있으

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앞의 ⑤ 판결 同旨). 자살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으로서 자살 자체의 심리학적·정신의학적인 기제는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며(앞의 ⑥ 판결), 앞서 설명했듯이 이지메를 받고 있는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외부에 발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약자”인 것이다. 자살이 이지메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결과의 하나임은 신문 등의 보도(이지메에 항의하여 자신의 팔에 유산을 뿌린 케이스는 기억에 새롭다)를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야기시킬 정도의 이지메에 관해서 학교측 혹은 부모의 인식가능성·과실이 추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5. 결 어

이상, 이지메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학교측의 책임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기술해 왔는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이지메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이지메에 관해서 물리적·능력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의 타개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우선 이지메의 징표를 파악하고 그 계속을 중지시키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결하며, 또한 아동·학생의 고민에 관한 상담만을 전담하는 요원을 한 학교에 최소한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지메의 국제비교*

深谷和子

(후카야 카즈코·東京學藝大學 교수)

1. 외국에서의 이지메 보도에 관하여

1995년 1월 7일자 동경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지메 자살, 중국에서도(상해발)

중국 四川省 成都市의 남자중학생이 학교에서 동급생에 의한 이지메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 16일 밝혀졌다. 아이치현 니시오시의 오가와우치 키요태루군의 자살문제와 유사한 케이스로서, 현지의 교육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대해서 “이지메 문제는 일본·중국의 국경을 초월한 공통과제”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이지메 방정책의 추이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에 따르면 자살한 것은 成都市립 제 51 중학 1학년생인 陳明志군(13세). 이번 달 3일 오후 자택에서 목을 메어 자살한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학교와 가족 앞으로 유서 각 1통을 남겼는데 매일 학교에서 같은 학급의 남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현금을 요구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0 위안을 내라고 협박받고 있다. 내지 않으면 구타당하는데 돈이 없다.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절박한 심경을 토로.

가족 앞의 유서에는 “어머님께 두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님과 사이 좋게 지내세요. 앞으로는 아버지와 싸우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진군은 원래 말 수가 적어서 주위에서 태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돌연 자살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동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의 이지메와 더불어 가정내의 불화로

* 深谷和子(1995), “いじめの国際比較,” 稻村博·齊藤友紀雄 編, 「いじめ自殺」, pp.204~212, 東京: 至文堂.

진균이 낙담하여 자살을 결심한 것은 아닌가” 하고 말하고 있다.

진균의 부친은 개인상점의 경영자. 모친은 국유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는 퇴직당하여 부친과는 다른 상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중국 내에서 이지메에 의한 청소년의 자살자가 발생한 것을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외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지메가 과연 존재하는가. 미국과 유럽에 관해서는 다른 필자가 언급한 일이 있지만, 일본의 이지메 문제는 1983년 9월 26일부터 28일의 NHK “오하요 광장”에서의 방송을 계기로 일거에 분출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지메는 외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지메 유사행위와 다소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서 1985년 1월 취재차 필자를 방문한 주간지 “타임”의 기자에게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지메의 실태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고, 그 뒤 보내온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표제가 붙어 있었다.

Cruelty in the Classroom - Japanese educators anguish over a plague of bullying in school.

본문 중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탤릭체로 “IJIME”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외국에서 이지메는 과연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국제비교라는 테마하에서 이지메 문제를 고찰할 때 우선 이 점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1994년에 동경, 상해, 서울, 런던, 뉴욕에서 “청소년과 가족”이라는 테마로 국제비교연구(초등학교 5학년 대상)를 행했을 때에도 “당신이 이지메 당했을 때 부모님은 어느 정도로 걱정해 주십니까”라는 항목을 넣었다. 그 때에도 이지메라는 단어의 번역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험적으로 일본과 동일한 실태를 가진 이지메가 있는가의 여부를 유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모두 간단하게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자세하게 물어보면 이지메 유사행위(다툼이나 혐오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의 이지메 행위)로서 일본의 이지메와 완전히 일치하는 이지메의 실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번역작업을 완료했다. 번역내용과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지메”의 번역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영어판

How much would your parents be worried under the situation?

When you are bullied by friends.

중국어판 (질문부분 제외)

被小朋友欺侮了

한국어판 (질문부분 제외)

친구로부터 매를 맞거나 놀림을 당한다면

표 1-2: 친구들로부터 이지메를 당했을 때 부모님의 태도

(단위 : %)

	동 경	상 해	서 울	런 던	뉴 욕
매우 걱정하신다	14.9	35.1	34.5	40.5	31.5
상당히 걱정하신다	19.1	28.3	33.3	26.8	28.9
약간 걱정하신다	25.5	17.7	15.2	16.5	20.6
별로 걱정하지 않으신다	22.1	11.1	10.8	9.3	9.2
전혀 걱정하지 않으신다	18.4	7.9	6.2	6.5	9.8

자료: 모노그래프·소학생나우 14-4 “가족 속의 청소년들” 福武書店, 1994

대상국에 “이지메”의 실태가 없으면 국제비교의 의미가 상실되지만, 아마도 청소년들은 어느 사회에서건 존재하는 일상적인 공격행위를 연상하고 회답하지 않았을까.

2. 이지메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비교 조사시에 중요한 것은 우선 조사에 사용되는 문장의 정확한 번역작업이지만 그와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사실이 대상국에도 존재하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이지메 문제의 국제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 사회에서 지금 일본에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이지메와 유사한 행위가 있는가의 여부를 정확하게 음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지메는 지금 어느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동문제인가. 국제비교가 가능할 것인가. 이지메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에서조차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지메라는 용어는 의미가 상당히 광범위하여 그것이 이지메 문제의 논의에 혼란을 야기하고 초점을 애매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5년 2월 19일의 도쿄신문은 수도권, 칸사이의 현지역에서 행해진 탐문조사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청소년들의 이지메에 대한 선악판단”에 관해서 “조금 있는 편이 좋다 6.1%, 중요한 일은 아니다 14.9%, 이유에 따라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32.1%”로서 모두 합쳐서 53%의 청소년들이 이지메를 긍정하고 있다.

고 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대단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응답자(청소년)가 질문의 이지메의 개념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공격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한 것은 아닐까. 국제비교와 동일하게 단어를 매개로 한 조사가 빠지기 쉬운 잘못의 하나이다.

그러면 “이지메”의 정의는 무엇일까.

문부성은 “자신보다 약한 청소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신체적, 심리적인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하여 상대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약자에 대한) 이지메는 “아이들이 거북이를 이지메 했

습니다"라는 우라시마 타로오의 설화 속에서도 나타나듯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어느 사회에도 있었던 보편적인 행위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이지메하지 말아주세요"하는 식으로 이 말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일상적인 이지메는 이제까지 "이지메하다·이지메 당하다"와 같이 동사로서 사용되는 일이 많았다. "이지메"가 있다 와 같이 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지메는 결코 우라시마 타로오 이야기 속에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악질적이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도적인 것이다. 최근의 예를 보면 오가와우치 키요테루군은 친구로부터 114 만엔에 상당하는 금전을 협박당하여 빼앗겼다. 그 상황은 동급생 4 인조에게 "이지메 당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그룹으로부터 갈취당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보다 실감날 것이다.

작년 12 월 10 일자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문부성 이지메대책 긴급회의의 호소문 옆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중 3 을 협박하여 130 만엔, 공갈용으로 동급생 30 명을 서류송검

후쿠오카현 타가와시의 중학교에서 30 명(여자 4 명 포함)의 중학생이 1 년간 동학년의 남학생으로부터 130 만엔을 협박하여 받은 혐의로 서류송검하였다. 남학생의 부모가 자택에서 현금이 수시로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여 추궁한 결과 학생이 "돈을 가져오도록 협박받았다"고 응답하여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한다. 가해자 그룹은 3, 4 명씩으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때린다"고 협박하여 뺏은 금액을 분배하였다

기사내용만으로 이해해 보면 이 동급생에 의한 공갈사건과 오가와우치군의 사건은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집단비행의 대상은 집단내 한 사람을 대상으로한 경우(오가와우치 키요테루군의 예)와 집단밖의 고립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아마도 타가와시의 케이스)가 있다고 간주되고 있는데, 어느 경우든 이지메가 도를 넘으면 이른바 비행집단에서 행해지는 비행(촉법) 행위

의 하나로서 간주되어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지메가 있었다”고 하기 보다는 공갈이 있었다,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또한 사소한 미움, 혐오나 싸움 등의 행위는 인간이 집단을 형성하여 생활하기 시작한 이래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때로는 문제해결의 수단인 하나로서 사용되어 왔다. 이것을 이지메의 범주에 넣어버리는 것은 인간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현재의 사회문제로서의 이지메는 그와 같은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범주의 것이 아닌가 한다.

3. “이지메”와 그 유사행위의 구분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볼 때, “이지메”를 정의하고, 이지메와의 근접행위를 유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지메와 그 주변의 행위를 가령 ① “작은 공격” ② “이지메” ③ “이지메 비행”으로 분류해 보면, 문제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는 듯이 생각된다.

우선 ① “작은 공격”은 미움이나 혐오감에서 출발하여 조롱, 싸움 등 일상적이고 순간적으로 시대와 사회, 사람들의 연령을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행위이다. 물론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사소한 공격행위까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감정을 버리고 기계나 식물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는 그 나름대로 인간의 일상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허용한계 내의 공격행동이라 할 수 있다.

③의 “이지메 비행”은 “이지메”라기 보다는 “폭행, 협박, 강도, 린치”등으로 불리는 편이 더 적절한 촉법행위, 범죄행위이다. 오가와우치군이 친구들로부터 당한 것은 “이지메”라기 보다는 “협박, 공갈, 폭행, 강도”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만약 같은 행위를 성인이 한 경우에는 공갈이나 살인으로 지칭된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지메가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행위의 성질을 애매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두 종류(①③)의 행위는 다른 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글머리에서 소개한 上海시에서의 “이지메 자살”은 ③의 범주에 있는 “이지메 비행”의 결과라고 보면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上海에서도 마침내 이지메에 의한 자살이 일어났다”고 개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비행집단에 의한 공갈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소년의 케이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유사한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①은 보다 일상적으로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②의 “이지메”는 바로 우리나라 고유의 현상이 아닌가 한다. 그것이 앞서 언급한, 타임지 기사를 곤혹스럽게 한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4. 일본적 이지메에 관하여

이와 같은 일본적 이지메(②)는 근년에 들어서 우리나라 청소년세계의 풍토 속에서 나타난 문제행동으로서 국제비교적으로 봐도 아마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이지메가 왜 우리나라에서 빈발하는 것일까.

그 요인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일본 청소년의 “인권의식의 희박성”이다. 일본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권을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나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성인들의 인권의식의 희박성과 관련되어 그로부터 청소년들 사이의 인권의식의 희박성이 파생된 것은 아닐까 한다.

생각해 보면, 성인 세계에는 이지메 행위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간략하게 살펴봐도, 시부모의 며느리 학대에서 시작하여 군대의 하사관 이지메, 승려 세계의 이지메, 전처소생에 대한 이지메, 남편에 의한 처의 학대, 아동 학대, 기업에서의 좌천과 한직 배치, 피차별부락 문제 등 이지메 행위는 성인의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 의식이 회복하였던 일본인 사이에서도 최근에는 그와 같은 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의 억제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세계의 그와 같은 음습한 이지메가 예전에는 청소년 세계에 침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양자가 사는 세계 사이에 말하자면 정보의 벽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보화의 진행에 수반하여 발달단계 속에서 “청소년기”가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근년의 청소년론 속에서 자주 행해지고 있다. (정보의 벽에 의해) 따뜻한 손길로 보호되었던 무구한 “청소년시대”는 상실되어 매스미디어가 부모라는 필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청소년에게 정보(예전 같으면 청소년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 성인세계의 비밀 ... 성과 부정과 오염)을 전달함으로써 비롯된 결과로 보는 지적이다.

TV를 중심으로 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들은 성인세계의 이지메를 학습하게 되었다. 최근의 TV 방송에서는 오직 시청률만을 의식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잔학하고 위험한 행위를 텔런트에게 맡기고 있다. 경계가 무너진 시대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정보가 분별력 있는 성인이나 미숙한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송출되고 수용되어 청소년은 청소년다움을 급속하게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5. 사회병리의 표현으로서의 이지메

그러나 만약 청소년집단 속에서 그와 같은 이지메 비행을 억제하는 기능이 보존되어 있다면 사태는 이만큼 심각해지지 않고 끝났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성인사회에 정의와 공정성을 사회적 가치로서 중요시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면 그것도 또한 청소년세계의 이지메에 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는 개탄스러운 정도로 그것이 결핍된 사회이고, 전자에 관해서는 소자화(小子化)와 그밖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청소년시기에 당연히 경험해야 할 친구와의 인간관계가 결여된 채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은 타인과의 유대 형성 능력이 부족하고 그것이 이지메의 발생요인으로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제비교 시점에서 이지메를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유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일본의 성인사회가 지닌 병리의 반영으로서 청소년 건전육성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유럽에 있어서의 이지메*

平野惠子

(히라코 케이코·文教大學 教育學部 교수)

1. 몇가지의 사례

우리나라에서 학교의 이지메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교육행정, 학교현장, 연구자들에 의한 다양한 시도가 행해져 왔지만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내부로만 향해졌고, 외부, 즉 외국의 이지메 실태, 이지메 연구의 성과, 실천적인 대응에 관해서 눈을 돌린 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 세계의 이지메는 수험경쟁과 관리교육의 중압감, 동질 사회 고유의 이질적인 것에 대한 불관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본의 독특한 문제로서, 다른 외국에 이지메가 존재한다 해도 그것은 경미한 것, 혹은 일본과는 상이한 양태의 것이기 때문에 참고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잠재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유럽 제국에서의 동향에 관한 우리의 인식은 희박하다. 경쟁적 요소가 적은 유럽 사회, 개체에 대한 존중, 인권사상이 확립된 성숙한 유럽사회에는 이지메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소박하게 생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약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최근의 사례로서 이지메 문제의 조사연구와 이지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런던의 단체, “키드스케이프”(KIDSCAPE)의 디렉터 M.

* 平野惠子(1995), “ヨーロッパにおけるいじめ,” 稲村博・齊藤友紀雄 編, 「いじめ自殺」, pp.181-194, 東京: 至文堂.

Elliot 에 의해서 보고된 것이다¹.

마크, 1985 년 9 월 25 일 교통사고로 사망

그는 장기간에 걸쳐서 상습적인 이지메를 당해 왔는데, 그날도 교사의 보고에 따르면 수업중 따돌림을 당하여 침울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하교시 다시 누군가 그의 자전거를 감춰버리는 이지메를 당했다. 그는 그 뒤 자전거를 찾아서 학교를 나왔지만, 급스피드로 도로에 진입하여 달리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사망했다. 그가 급가속했던 장소는 그 전날 그를 이지메하던 친구들로부터 구타당한 장소였다. 목격자에 따르면 급가속을 할 때 그는 학교쪽을 되돌아 보고 있었고 질주해 오던 자동차는 한번도 보지 않고 그대로 정면충돌했다고 한다.

“마크는 얌전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마크의 모친은 말하고 있다. “매일 따돌림이나 폭력의 이지메에 시달리면서 그 예의 생활은 비참했어요.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도록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느라고 필사적이었죠. 그래도 사태는 악화되지만 했죠. 교사의 조언에 따라서 보복을 하려고 했던 적이 몇번 있었지만 그럴수록 이지메는 더 심해졌어요.”

Elliot 는 또한 다음과 같은 키드스케이프 앞으로 온 청소년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 나를 이지메하는 여학생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도 그러지만 특히 나한테 심하게 이지메합니다. 책을 찢어버리거나 욕을 퍼붓거나 집까지 뒤를 쫓아옵니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지난 주 저는 아스피린을 다량 복용했습니다. 죽고싶다고 생각했지만 몸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 날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잠만 잤죠. 어머니는 그 아이가 저를 질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얘길 해 주셔도 저에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고,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심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¹ Elliott, M.(1989), "Bullying - Harmless Fun or Murder?," in E. Roland and Munthe(eds), *Bully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avid Fulton, London.

다음의 사례는 신문에도 보도된 이탈리아에서의 이지메 자살사건의 예이다.¹

로베르토, 15 세. 1987 년 4 월 24 일, 부친의 총으로 자살. 그는 한통의 유서를 양친앞으로 남겼다.

“저는 학교생활을 잘 해낼 수가 없어요. 매일 어떤 선생님과 아이들로부터 바보같다고 비웃음을 당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아이예요.”

로베르토는 컴퓨터와 사진을 좋아하는 보통의 소년으로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학업의 부진과 학교에서의 심리적 폭력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사례에서 일본의 이지메 사건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지적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유사성에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이지메는 국경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공통의 문제로서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2. 유럽의 이지메 연구

유럽에서 최초로 이지메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연구가 행해진 나라는 스웨덴이다. 인권존중과 복지의 국가 스웨덴이라는 우리의 이미지를 감안하면 그곳이 유럽 이지메 연구의 발상지였다는 사실이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이지메 문제가 그만큼 보편적이고 뿌리깊은 문제라는 증거가 아닐까. 혹은 이지메라는 현상이 날카로운 인권감각에 의해서만 문제로 의식될 수 있는 수면 아래 잠재해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유럽 이지메 연구의 발단은 스웨덴의 의사, P.P. Heineman 에서부터 비롯되었다. 1969년 어느 날 Heineman 은 학교 교정에서 소란스럽게 떠돌고 있는 아이들의 무리를 발견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그는 가까이 접근해 갔다. 한 소년이 다른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가려 하고 다른 아이들이 그 뒤를 쫓고 있었다. 모래밭에 발을 헛디더 그 소년의 신발이 벗겨졌다. 모래밭에서 그 신발을 주으면서 Heineman 의 머리

¹ Basalisco, S., "Bullying in Italy" 앞의 책에 수록됨.

속에는 자신의 청소년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Heineman은 이와 같은 청소년의 집단행동을 동물학자 Lorenz의 용어를 빌어서 "mobbing"으로 명명했다. 그는 1972년에 mobbing에 관한 연구를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발간했는데 그 책은 출판되자마자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다른 스칸디나비아제국에도 번역되어 널리 매스컴의 화제가 되었다. 스칸디나비아에 있어서의 청소년 이지메 행위에 대한 문제관심은 이 무렵부터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Heineman의 작업은 또한 심리학자 D. Olweus에게 이어졌다. Olweus는 일종의 유행어가 된 mobbing이라는 용어에 대신해서 영어의 "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¹. mobbing이라는 용어는 Lorenz의 동물행동에 관한 개념이었고 또한 앞서의 Heineman의 에피소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집단이 일탈한 개인 혹은 그룹을 배제하는 공격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Olweus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일대일, 일대다, 집단대집단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청소년세계의 이지메 전체를 포괄하는 과학적 연구를 의도했던 것이다. 또한 bullying이라는 개념을 채용함으로써 mobbing이라는 용어에서는 간과되기 쉬운 이지메 문제의 중요한 측면들, 예를 들면 육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심리적 폭력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고, 이지메는 돌발적·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거듭되는 행위이며, 그 표적이 일탈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측면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Olweus는 말하고 있다². 현재 스칸디나비아에서는 mobbing 연구 즉 그룹 바이올런스의 연구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예를 들면 Pikas, A)³, Olweus 이외에도 예를 들면 E. Roland 등의 연구자가 bully-

¹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Hemisphere, Washington, D.C.

² Olweus, D.(1978),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s," in N. Frude and H. Gault(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John Wiley & Sons. 1984.

³ Pikas, A., "The Common Concern Method for the Treatment of Mobbing". in *Bully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앞의 책.

ing으로서의 이지메 연구에 임하고 있다.

Olweus의 체계적·실증적 이지메 연구는 스웨덴, 노르웨이를 필드로 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실로 20여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이 되는 아동·학생의 수는 모두 15만명 이상에 달하고 이중에는 이미 성인기에 접어든 사람도 많다.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초로 그는 최근 이제까지 학교에서의 이지메 실태과악, 발생 메커니즘, 방지대책 연구에 덧붙여서 학교 시절의 이지메 피해 및 가해 체험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새로운 연구과제에 도전하고 있다¹.

유럽의 이지메 연구는 이상과 같은 경과를 통해서 스칸디나비아에서 그 본류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현재 그 지류가 유럽 각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지류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영국, 에이레의 연구이다. 이 지역에서는 1970년대 말엽부터 이지메 문제에 대한 몇몇 학술적인 조사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시도는 80년대 후반, 이지메 문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가는 것을 배경으로 Olweus, Roland 등 스칸디나비아의 연구의 흐름과 협력, 합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87년 “유럽 이지메문제 교사회의”가 노르웨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유럽제국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학적인 이지메 문제에 대한 접근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모두가 함께 도전해야 할 심각한 과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². 현재 노르웨이, 영국의 주도하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협동연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비교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¹ Olweus, D.(1992),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Long-Term Outcomes," in Rubin K.H. and Asendorff J.B.(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Erlbaum. 1992.

² O'Moore, M.(1987), "Bullying in Schools. Official english text of report presented at the Council of European Teachers' Seminar on "Bullying in Schools".

3. 이지메 발생상황

이제까지 유럽에서 행해진 이지메 조사의 전체를 개관하였지만, 유럽의 이지메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들 연구의 다수가 규모가 작고 각각 상이한 조사방법, 측정척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목되는 것은 Olweus 에 의해서 수집된 노르웨이의 대량의 데이터이다.

1982 년말, 노르웨이 북부지구에서 세명의 소년(10 세부터 14 세) 이 이지메를 피로워하여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듬해인 1983 년 사태를 중시한 노르웨이 교육성은 이지메 철폐를 위한 전국 캠페인의 전개를 결정하고 Olweus 에게 이지메 전국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조사는 아동·학생으로부터의 자기보고식 질문지 조사였다. 이 질문지는 Olweus 의 10 년간에 걸친 연구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교사 대상의 질문지조사 및 면접조사, 친구에 의한 신고, 학부모 대상 조사 등과 병행하여 실시됨으로써 그 신뢰도가 확인된 것이었다.

이 전국조사를 통해서 노르웨이에서는 1983 년 시점에서 약 57 만명의 전국 공립 초·중학생의 15%, 약 8 만명, 일곱명 중 한명이 그 어떤 형태로든(5 만명: 9%가 피해자로서, 4 만명: 7%가 가해자로서, 9 천명이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가끔” 이상의 빈도로 이지메를 체험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Olweus 의 질문지에서는 이지메를 하거나 당한 체험을 “없다” “한두번” “가끔”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몇번”이라는 선택지로 측정하였는데, Olweus 는 “가끔”을 체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의 심각한 이지메 체험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3% 남짓인 1 만 8 천명, 가해자가 2% 못미치는 만명으로 추계되어, 적어도 20 명 중 한명 정도의 노르웨이 아동·학생이 심각한 이지메문제의 당사자가 되고 있음이 밝혀졌던 것이다. 다음의 그림은 “가끔” 이상의 이지메 피해, 가해 체험자의 퍼센트를 학년별, 남녀별로 나타낸 것이다.

¹ Olweus, D.(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그림 1-4: 이지메 피해체험 - 노르웨이 전국조사(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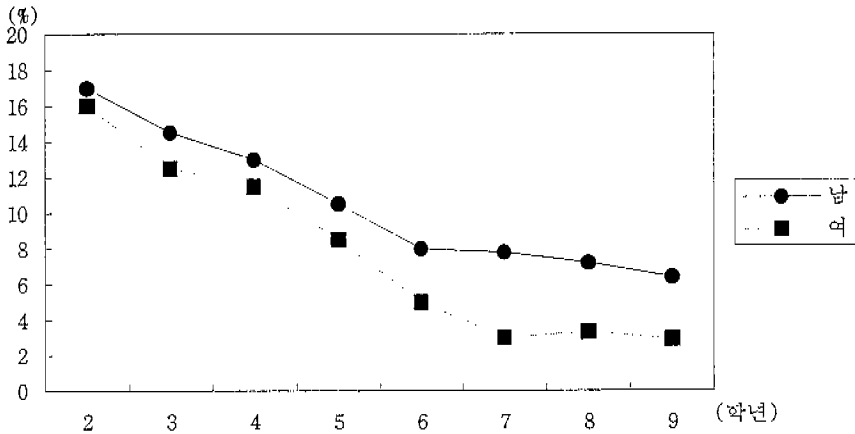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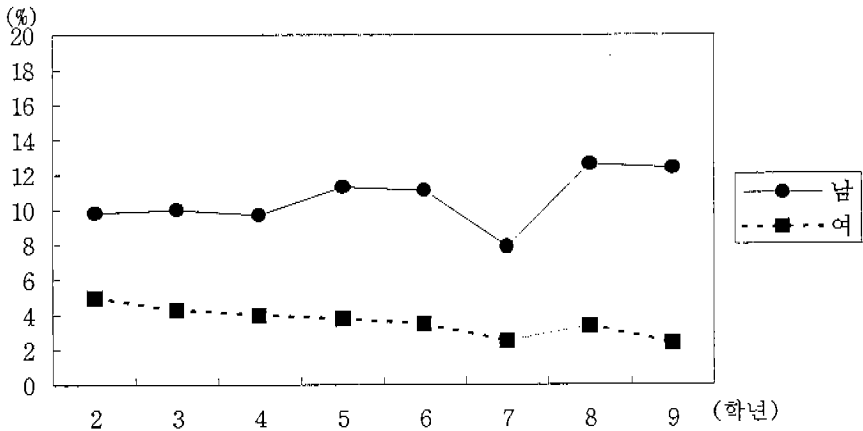


그림 1-5: 이지메 가해체험 - 노르웨이 전국조사(1983)



영국, 에이레 등의 상황은 어떠한가. 다양한 조사보고가 있지만, 방법의 서로 달라서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고 "Olweus 식 질문지"라는 동일한 척도

in Pelter, D.J. and Rubin K.H.(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l.

를 사용한 조사연구 결과 중 주요한 것을 소개하면, 표 1 과 같다. 이 표는 영국, 셰필드 대학의 P. Smith 에 의한 것을 기초로 하여¹, 그 뒤의 데이터를 추가하고, 또한 비교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필자가 1991 년에 埼玉현에서 행한 조사결과(초·중 학 2 학교, 초등학교 5 학년부터 중학교 3 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함)를 부기한 것이다².

표 1-3: 이지메 발생상황 - 영국·일본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요크셔	셰필드	일 본
피 해 체 험	초 등	가 끄	(보고없음)		20.1	17	11.1
		주1 회이상	8.0		6.0	10	3.8
	중 학	가 끄		6	17.7	6	6.4
		주1 회이상		3	7.5	4	4.0
가 해 체 험	초 등	가 끄	(보고없음)		8.4	8	11.5
		주1 회이상	2.5		1.7	3	0.3
	중 학	가 끄		4	10.3	5	8.6
		주1 회이상		2	3.3	1	5.3

그밖의 유럽제국의 조사연구는 아직 여명기에 있지만, 몇가지 예를 소개 하면, 1992 년 스페인 발달심리학 심포지움에서, 네덜란드의 이지메 피해학생수가 9~12 세에서 21%, 12~13 세에서 15%, 가해자측이 13~15%라는 수치가 제시되었고³, 스페인에서는 “일주일에 몇번”이라는 심각한 이지메를 당

¹ Smith, P.K.(1990), “The Silent Nightmare: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The Psychologists*, 4.

² 平野恵子(1991), “いじめ問題解決のために - イギリスにおける実践的取組みと日英比較調査” 文教大學教育學部紀要 第 25 輯.

³ Haselager, G.J.T. and Van Lieshout C.F.M.(1992), “Social and Affective Adjustment of Self and Peer Reported Victims and Bullies,” Paper presented at the 5th European Conference on Developmental Psychology, in Symposium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ev-

하고 있는 청소년이 중·고 단계(BUP-FP)의 14~16 세에서는 5%였음에 대해서 초등학교 단계(EGB)의 11~14 세에서는 26%였다고 보고되었다¹.

4. 이지메와 관련된 요인

앞서 제시한 그래프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듯이, 이지메는 연령, 성에 따라 변화가 심한 현상이다. 이제까지 유럽에서의 연구들은 일관되게 이지메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고 남자의 이지메 피해, 가해 체험자의 비율이 여자의 그것을 상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이좋은 친구의 존재와 쉬는 시간의 즐거움 등으로 측정한 학교생활 적응상태와의 관련성도 또한 널리 지지를 받고 있다.

지역차, 학교차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영국에서는 이지메 발생율은 도시부의 학교, 낮은 계층 지역의 학교, 대규모 학교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². 한편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전국조사에서는 그와 같은 지역차나 학교차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방대한 스칸디나비아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Olweus 는 이지메는 대도시의 문제로서 "목가적"(牧歌的)인 시골 학교에는 이지메가 없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일종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정한다. 또한 학력경쟁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지메의 발생원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또한 그것을 지지하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이 대담한 결론은 스웨덴, 노르웨이라는 작고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현

eral Countries, Seville, Spain.

¹ Ruiz, R.O., "Violence in Schools, Problem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pain," Paper presented in the symposium mentioned above.

² Stephenson, P. and Smith, D.(1989), "Bullying in the Junior School," in Tatttum D.P. and Lane D.A.(eds) *Bullying in Schools*, Trentham books.

시점에서 그 타당성의 판단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노르웨이에 비해 훨씬 큰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고 계급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학교의 다양화도 현저하며 학교규모도 노르웨이에서는 최대 9백명 정도임에 대해서 영국에서는 2천명 규모의 학교도 존재한다. 실업률, 진학률, 인종문제 등에 있어서도 양국은 완전히 판이한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생각하면, 앞서 언급한 조사결과와 불일치는 이들 두가지 연구의 조사방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더욱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할 문제로 남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상황하에서의 비교 가능한 보다 많은 데이터의 수집과 그 분석, 그리고 주의 깊은 상호비교이다. 유럽의 이지메 연구는 이미 그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다.

5. 이지메 방지 프로젝트

이제까지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착실한 발전을 보여 온 유럽의 이지메 연구를 개관해 봤다. 마지막으로 유럽 이지메 연구의 두드러진 특성, 즉 그 실천적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노르웨이에서의 Olweus에 의한 베르겐 스터디, 영국에서의 Peter Smith의 셰필드 프로젝트, 이 두가지는 그와 같은 특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구체적인 예이다.

Olweus의 베르겐 스터디는 1983년 5월부터 2년간에 걸쳐서 베르겐시의 42개 초·중학교 4학년부터 7학년까지의 112학급을 대상으로 행해진 액션 리서치이다. 그 경과와 개략은 다음과 같다. 베르겐 이지메 실태조사(83년 9월~6월) -> 전국조사, 반(反)이지메 국가 캠페인의 개시(10월) -> 프로젝트 학교 추적조사(84년 5월), 프로젝트 학교 스태프와의 회의(83년 조사결과와 피드백과 이지메 대책 프로그램에 관한 토의) -> 프로젝트 학교 추적조사(85년 5월).

Olweus는 세가지 시점(時点)에서의 Olweus 질문지에 의한 조사 데이터의 상세한 코호트(cohort) 분석을 통해 2년간의 이지메 대책의 효과는 매우 현저하여, 대책 실시 전인 제1회조사와 제3회조사를 비교하면 이지메

는 50% 이상 감소했으며 이 감소경향은 남녀, 학년의 구분없이 나타났다는 것, 학교내의 이지메의 감소가 학교밖에서의 증가를 야기시키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이지메 이외의 반사회적 행동, 예를 들면 절도, 폭력행위, 태학(怠學) 등도 명백하게 감소했다는 것, 학교생활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노르웨이에서의 성과에 고무된 한편, 영국의 상황이 스칸디나비아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임을 시사하는 연구보고의 집적과 여론의 비등을 배경으로 1990 년말부터 92 년말에 걸쳐서 행해진 것이 셰필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절차는 베르겐 스터디와 거의 동일하였지만, Olweus 질문지에 의한 사전조사(결과는 앞서의 도표를 참조할 것)의 실시 후, 그 결과의 피드백에서부터 최종적 추적조사에 이르기까지 약 1 년반의 기간 동안 프로젝트 팀에 의해서 빈번한 모니터링이 행해졌다는 것, 참가한 각 학교의 전학교방침(whole-school policy)의 확립과 실시가 강력하게 지원되었다는 것, 각종 이지메대책이 마련되어 그 실시에 대한 지도, 조언이 행해졌다는 것 등의 점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

교직원, 학부모, 아동·학생이라는 스쿨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전 멤버의 참가를 필요로 하는 전학교방침의 확립은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서 행해져서 실제로 그를 위해서 거의 1 년 가까운 시간을 요한 학교도 있다고 한다. 각 학교의 요청에 따라 활용된 이지메 문제해소의 대책으로서는,

- 1) 비디오영화, 연극, 문학작품 등을 이용한 지도, QC 법에 의한 문제해결적 학습도의
- 2) 교정, 점심시간 감시원의 훈련, 교정환경의 개선
- 3) Pikas Method(집단 이지메의 당사자들의 카운셀링), 자기표현과 소셜 스킬의 훈련, 동료 카운셀링 등의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개별지도와 그룹 워크 등이 있다.

셰필드 프로젝트의 성과는 베르겐 스터디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되었는

¹ Smith P.K., "Occurrence and Prevention of Ijime of Children in School," 일본 특별활동학회 강연, 1994. 2.3.

데, 그 결과 초등학교에서 이지메 피해가 17% (학교단위로 최대 81%), 이지메 가해가 7% (최대 51%) 감소하였고, 중학교에서는 유의미한 감소는 없었지만 (5%), 이지메 피해자의 교사에 대한 신고율이 32% 증가하였고, 가해자 측의 아동·학생과 교사, 부모가 대화하는 빈도도 38% 증가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들 효과의 학교간 차이는 매우 현저하였는데, 모니터링에 의하면 이지메 대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전학교방침의 확립과 실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 학교에서 높은 효과를 거두었다. 중학교에서의 성과가 낮았던 것은 중학교는 규모가 보다 크고 그만큼 전학교방침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프로젝트의 지도자, Smith는 지적하고 있다¹.

이상 “유럽에 있어서의 이지메”라는 주제하에 실제로는 유럽의 이지메 연구동향을 개관하였다. 유럽에서 추출된 이지메 가해·피해 청소년의 유형과 사례분석 등을 실마리로 하여 유럽에 있어서의 이지메의 양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유럽 이지메 연구의 끊임없는 착실하고도 실천적인 노력에 눈을 돌리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자칫하면 대증요법(對症療法) 레벨에 머물기 쉬운 일본의 이지메 대책을 되돌아 보는 한편, 거둬들이는 청소년들의 비극을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유럽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¹ DFE Sheffield Bullying Project, Newsletter, No. 6, Oct. 1994.

참고문헌

- 1) Besag V.E. (1989), *Bullies and Victims in Schools*, Open University Press, .
- 2) Smith P.K. and Sharp S. (eds) (1994), *School Bullying, Insights and Perspectives*, Routledge.
- 3) Sharp S. and Smith P.K. (eds) (1994), *Tackling Bullying in Your School, A Practical Handbook for Teachers*, Routledge.

Ⅱ. 실 태

문부성 이지메 실태조사(1995)*

문부성 초등중등교육국 중학교과

1995 년 12 월

1.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취지

학생의 문제행동에 관해서 전국상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도의 충실을 기한다.

2) 조사사항 및 대상

본 조사의 조사항목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본조사는 "조사개시연도"란에 표시된 연도 이래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3) 조사방법

1994 년 상황에 관해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조사하고 문부성이 집계

* 출처: 日本 國立教育會館 인터넷 홈페이지, "いじめ問題に関する行政資料情報: 生徒指導上の諸問題の現状と文部省め施策について"

(<http://www.naec.go.jp/kaigai/ijimeg>)

표 II-1: 문부성 학생 문제행동 조사 조사항목 및 대상

조사항목	조사대상	조사개시연도
1994 년 공립 중·고등학교 의 교내폭력 상황	공립 중학교, 공립 고등학교	1982 년
1994 년 출석정지 등의 조 치 상황	공립 중학교, 市區町村 교육위원회	1985 년
1994 년 공립 초·중·고등 학교 및 특수교육학교 이 지메 상황 등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 특수교육학교, 市區町村 교육위원회	1985 년(초·중·고) 1994 년(특수)
1994 년 공립 초·중학교 등교거부 상황 등	공립 초·중학교, 都道府縣·市區町村 교육위원회	1966 년 (50 일 이상 결석자) 1991 년 (30 일 이상 결석자)
1994 년 공립 초·중·고등 학교 자살의 상황	공립 초·중·고등학교	1974 년
1994 년 교육상당의 상황	都道府縣·市區町村 교육위원회	1983 년
1994 년 체벌로 문제시되 어 조사한 사건의 상황	都道府縣·市區町村 교육위원회,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 특수교육학교	1990 년

2. 결과의 개요

1994 년도의 조사결과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교내폭력의 발생은 중학교에서는 약 14%, 고등학교에서는 약 17%의 학
교에서 나타났다. 또한 교내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에 보도(補導) 등 조치
를 받은 인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 2) 이지메 문제에 관해서는 1994 년 12 월에 문부성 통지에 기초하여 모든

학교에서 총점검이 행해지는 등 각 학교에서도 자신의 학교에서 이지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태파악이 행해졌다. 이지메는 초등학교에서는 약 31%, 중학교에서는 약 55%, 고등학교에서는 약 38%의 학교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전체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학교의 1 개교당 발생건수는 1.4 건이었다.

- 3) 등교거부의 상황은 연간 50 일 이상 결석의 등교거부 아동·학생이 초·중학생 합쳐서 약 6 만 4 천명으로서 1966 년도의 조사개시 이래 최고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1991 년부터 조사된 30 일 이상 결석의 등교거부 아동·학생은 초·중학교를 합쳐서 약 7 만 7 천명이었다. 그 양태로서는 "불안 등 정서적 혼란형" "무기력형"이 높은 비율을 점하였다.
- 4) 아동·학생의 자살자의 총수는 166 명, 그중 초등학생 10 명, 중학생 69 명, 고등학생이 87 명이 있다.
- 5) 체벌로서 문제시되어 조사된 사건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모두 합하여 1.9%의 학교에서 발생하였다.

3. 이지메

이지메 문제에 관해서는 1994 년부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더불어 특수교육학교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이지메를 "1) 자신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2) 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하여, 3) 상대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발생장소는 학교 내외를 불문한다"고 규정하여 건수를 파악했다.

이지메 문제에 대한 대책은 1994 년 12 월 9 일에 개최된 "이지메대책 긴급회의"에서 "이지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든 학교에서 총점검을 행함과 아울러 실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 등 6 개 항목의 "긴급 어필"이 발표되어 이것을 토대로 모든 학교에서 총점검이 행해졌다. 또한 1995 년 3 월 13 일의 동 회의의 보고에서도 "이지

메가 발생하고 있는가의 여부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이지메 당하고 있는 아동의 인식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표면적·형식적인 판단에 머물지 않고 아동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성실한 지도를 행할 것" 등이 제언되었고 각 교육위원회, 학교에 대해서 그 취지를 철저히 주지할 것이 요청되었다.

1) 이지메의 발생학교수·발생건수

이지메가 발생한 학교수 및 발생건수는 다음과 같다. 금년도부터 조사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발생건수를 전년도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 II-2: 1994년 이지메 발생학교 수·발생건수

구 분	공립학교 총수	발생학교수	발 생 율	발생건수	1 교당 발생건수
	A	B	$B/A \times 100$	C	(C/A)
초등학교	24,390	7,626	31.3	25,295	1.0
중학교	10,568	5,810	55.0	26,828	2.5
고등학교	4,163	1,564	37.6	4,253	1.0
특수교육학교	905	95	10.5	225	0.2
계	40,026	15,095	37.7	56,601	1.4

표 II-3: 1993년까지의 이지메 발생학교수·발생건수

	연 도	공립학교 총수	발생학교 수	발 생 율	발생건수	1 교당 발생건수
		A	B	B/A*100	C	(C/A)
초·중·고등학교	1985	24,796	12,968	52.3	96,457	3.9
	1986	24,739	6,560	26.5	26,306	1.1
	1987	24,692	4,497	18.2	15,727	0.6
	1988	24,658	4,135	16.8	12,122	0.5
	1989	24,608	3,695	15.0	11,350	0.5
	1990	24,586	3,163	12.9	9,035	0.4
	1991	24,557	2,984	12.2	7,718	0.3
	1992	24,487	2,883	11.8	7,300	0.3
	1993	24,432	2,684	11.0	6,390	0.3
중·고등학교	1985	10,346	7,113	68.8	52,891	5.1
	1986	10,517	4,532	43.1	23,690	2.3
	1987	10,555	3,061	29.0	16,796	1.6
	1988	10,585	3,696	34.9	15,452	1.5
	1989	10,578	3,575	33.8	15,215	1.4
	1990	10,588	3,403	32.1	13,121	1.2
	1991	10,595	3,234	30.5	11,922	1.1
	1992	10,596	3,440	32.5	13,632	1.3
	1993	10,578	3,371	31.9	12,817	1.2
고등학교	1985	4,273	1,818	42.5	5,718	1.3
	1986	4,178	1,130	27.0	2,614	0.6
	1987	4,191	948	22.6	2,544	0.9
	1988	4,189	883	21.1	2,212	0.5
	1989	4,183	969	23.2	2,523	0.6
	1990	4,177	888	21.3	2,152	0.5
	1991	4,170	954	22.9	2,422	0.6
	1992	4,166	982	23.6	2,326	0.6
	1993	4,164	1,009	24.2	2,391	0.6
계	1985	39,415	21,899	55.6	155,066	3.9
	1986	39,434	12,222	31.0	52,610	1.3
	1987	39,438	8,506	21.6	35,067	0.9
	1988	39,432	8,714	22.1	29,786	0.8
	1989	39,369	8,239	20.9	29,088	0.7
	1990	39,351	7,454	18.9	24,308	0.6
	1991	39,322	7,172	18.2	22,062	0.6
	1992	39,249	7,305	18.6	23,258	0.6
	1993	39,174	7,064	18.0	21,598	0.6

주: 1985 년도는 1985. 4. 1 - 10. 31 일 간의 발생수임.

2) 학년별·남녀별 이지메의 발생건수

이지메의 발생건수를 학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간의 비교에서는 초등학교부터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져서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뒤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남녀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남자가 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수학교에서는 고등부에서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지메 발견의 단서

학교가 이지메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발견”이 가장 많고, 이어서 “보호자가 알림”, “이지메 당한 학생이 알림”의 순서이다. 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발견” “이지메 당한 학생이 알림” “보호자가 알림”의 순서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이지메 당한 학생이 알림” “담임교사가 발견” “보호자가 알림”의 순서이다. 특수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발견” “이지메 당한 본인이 알림” “다른 교사로부터의 정보”·“보호자가 알림”의 순서로 되어있다.

표 II-4: 이지에 발생건수의 학년별, 성별 내역

(단위: 명)

		1994 년		
		남 자	여 자	계
초등학교	1 학년	1,184	738	1,922
	2 학년	1,489	1,040	2,592
	3 학년	2,022	1,518	3,504
	4 학년	2,676	2,248	4,924
	5 학년	3,022	2,932	5,954
	6 학년	3,237	3,189	6,426
	소 계	13,630	11,665	25,295
	1 학년	6,284	4,577	10,861
중 학 교	2 학년	6,117	3,923	10,040
	3 학년	4,022	1,905	5,927
	소 계	16,423	10,405	26,828
	1 학년	1,899	554	2,453
고등학교	2 학년	922	297	1,219
	3 학년	414	167	581
	소 계	3,235	1,018	4,253
	초등부	25	17	42
특수교육학교	중학부	39	17	56
	고등부	93	34	127
	소 계	157	68	225
합 계		33,445	23,156	56,601

표 II-5: 이지메 발견의 단서 (1994)

(단위: 건, %)

	계		초등학교		중학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담임교사가 발견	17,703	¹⁾ 31.3	8,976	¹⁾ 35.5	7,828	¹⁾ 29.2
다른 교사로부터의 정보	4,196	⁵⁾ 7.4	1,003	⁵⁾ 4.0	2,595	⁵⁾ 9.7
이지메 당하고 있는 학생이 알림	13,926	²⁾ 24.6	5,454	³⁾ 21.6	7,051	²⁾ 26.3
다른 학생이 알림	6,289	⁴⁾ 11.1	2,554	⁴⁾ 10.1	3,270	⁴⁾ 12.2
보호자가 알림	12,348	³⁾ 21.8	6,661	²⁾ 26.3	4,852	³⁾ 18.1
교육센터 등 관계기관이 알림	473	0.8	179	0.7	272	1.0
기 타	1,666	3.0	468	1.8	960	3.5
계	56,601	100.0	25,295	100.0	26,828	100.0
	고등학교		특수교육학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담임교사가 발견	826	²⁾ 19.4	73	¹⁾ 32.4		
다른 교사로부터의 정보	571	⁴⁾ 13.4	27	³⁾ 12.0		
이지메 당하고 있는 학생이 알림	1,362	¹⁾ 32.0	59	²⁾ 26.2		
다른 학생이 알림	446	⁵⁾ 10.5	19	⁵⁾ 8.5		
보호자가 알림	808	³⁾ 19.0	27	³⁾ 12.0		
교육센터 등 관계기관이 알림	21	0.5	1	0.4		
기 타	219	5.2	19	⁵⁾ 8.5		
계	4,253	100.0	225	100.0		

주: 1), 2), 3), 4), 5)의 숫자는 순위를 나타냄

4) 이지메의 양태

이지메의 양태에 관해서는 초등학교에서는 “놀림·조롱” “친구따돌림” “폭력”의 순으로 많고, 중학교에서는 “놀림·조롱” “폭력” “언어상의 위협”의 순, 고등학교에서는 “폭력” “언어상의 위협” “놀림·조롱”의 순서로 되어 있다. 특수학교에서는 “언어상의 위협” “놀림·조롱” “폭력”의 순으로 되어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교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놀림·조롱”이나 “친구 따돌림”이 접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폭력”이나 “언어상의 위협”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5) 이지메의 해소상황

1994 년도에 발생한 이지메의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그중 초·중학교에서 약 90%, 고등학교에서 약 95%가 1994 년 중에 해소되었다.

표 II-6: 이지메의 해소상황 (1994)

(단위: 건,%)

구 분	이지메가 해소됨		이지메가 계속되어, 현재 지도중		전체 건수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초등학교	22,616	89.4	2,679	10.6	25,295
중 학 교	24,237	90.3	2,591	9.7	26,828
고등학교	4,024	94.6	229	5.4	4,253
특수교육학교	187	83.1	38	16.9	225
계	51,064	90.2	5,537	9.8	56,601

표 II-7: 1994 년도 이지메의 양태

(단위: 건, %)

	계		초등학교		중학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언어상의 위협	13,626	³⁾ 16.8	5,432	⁴⁾ 15.2	6,796	³⁾ 17.7
놀림·조롱	21,194	¹⁾ 26.1	9,923	¹⁾ 27.7	9,982	¹⁾ 26.0
소지품 감추기	5,705	⁵⁾ 7.0	2,735	⁵⁾ 7.6	2,612	6.8
친구 따돌림	13,054	⁴⁾ 16.0	7,308	²⁾ 20.4	5,278	⁴⁾ 13.7
집단에 의한 무시	5,114	6.3	2,174	6.1	2,697	⁵⁾ 7.0
폭력	14,591	²⁾ 17.9	5,548	³⁾ 15.5	7,156	²⁾ 18.6
치근댐	3,678	4.5	805	2.3	2,026	5.3
참견·친절의 강요	1,330	1.6	681	1.9	510	1.3
기 타	3,075	3.8	1,156	3.3	1,401	3.6
계	81,367	100.0	35,762	100.0	38,458	100.0

	고등학교		특수교육학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언어상의 위협	1,322	²⁾ 19.4	76	¹⁾ 23.6
놀림·조롱	1,234	³⁾ 18.1	55	²⁾ 17.1
소지품 감추기	309	4.5	49	⁴⁾ 15.2
친구 따돌림	439	6.4	29	⁵⁾ 9.0
집단에 의한 무시	233	3.4	10	3.0
폭력	1,833	¹⁾ 26.9	54	³⁾ 16.8
치근댐	830	⁴⁾ 12.2	17	5.3
참견·친절의 강요	123	1.8	16	5.0
기 타	502	⁵⁾ 7.3	16	5.0
계	6,825	100.0	322	100.0

주: 1) 복수응답

2) 1), 2), 3), 4), 5) 의 숫자는 순위를 나타냄

6) 이지메 문제에 대한 대응

이지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취했는가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특수교육학교 모두 “직원회의 등을 통한 공통이해” “아동·학생회활동과 학급활동” “전교적인 실태조사” 등의 대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II-8: 1994 년도에 있어서의 이지메 문제에 대한 대응

(단위: 건, %)

	계		초등학교		중 학교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직원회의 등을 통한 공통이해를 모색했다	33,103	¹⁾ 22.8	19,898	¹⁾ 23.2	9,363	¹⁾ 21.4
전교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4,093	³⁾ 16.6	14,276	³⁾ 16.6	7,353	³⁾ 16.9
교육상담의 체제를 정비했다	19,036	⁵⁾ 13.1	10,792	⁵⁾ 12.6	6,080	⁴⁾ 14.0
아동·학생회 활동과 학급활동을 통해서 지도했다	28,060	²⁾ 19.3	16,636	²⁾ 19.3	8,412	²⁾ 19.3
가정이나 지역과 협력하여 대응을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	16,080	11.1	9,578	11.1	5,053	11.6
학급통신 등을 통해서 가정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20,253	⁴⁾ 13.9	12,415	⁴⁾ 14.4	5,916	⁵⁾ 13.6
기 타	4,575	3.2	2,415	2.8	1,400	3.2
계	145,200	100.0	86,010	100.0	43,577	100.0
	고등학교		특수교육학교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직원회의 등을 통한 공통이해를 모색했다	3,296	¹⁾ 24.2	546	¹⁾ 27.4		
전교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165	³⁾ 15.9	299	³⁾ 15.0		
교육상담의 체제를 정비했다	1,926	⁴⁾ 14.1	238	⁵⁾ 11.9		
아동·학생회 활동과 학급활동을 통해서 지도했다	2,640	²⁾ 19.4	372	²⁾ 18.7		
가정이나 지역과 협력하여 대응을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	1,258	9.2	191	9.6		
학급통신 등을 통해서 가정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1,675	⁵⁾ 12.3	247	⁴⁾ 12.4		
기 타	660	4.9	100	5.0		
계	13,620	100.0	1,993	100.0		

주: 1) 복수응답

2) 1), 2) ... 의 숫자는 순위를 나타냄

7) 취학학교의 지정변경 등을 행한 시정촌(市町村) 및 아동·학생수

1994 년도에 이지메 문제로 인하여 취학학교 지정의 변경 또는 구역 외 취학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시정촌 수는 141 개 지역이었다. 또한 취학학교의 지정변경 등의 대상이 된 초등학생은 51 명, 중학생은 297 명이었다.

표 II-9: 취학학교의 지정변경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수

(단위: 명, %)

구 분		인 구	구 성 비
초등학교	1 학년	4	7.9
	2 학년	5	9.8
	3 학년	3	5.9
	4 학년	7	13.7
	5 학년	10	19.6
	6 학년	22	43.1
	계	51	100.0
중 학 교	1 학년	85	41.1
	2 학년	74	35.7
	3 학년	48	23.2
	계	207	100.0

참고 : 이지메에 기인한 사건의 상황 (경찰청 조사)

1994 년 중에 경찰이 인지한 이지메에 기인한 사건은 103 건 (전년대비 13 건, 14.4% 증가) 이었다.

이지메에 기인한 사건으로 보도된 소년은 372 명 (전년대비 138 명, 59.0% 증가) 이었다.

표 II-10: 이지메에 기인한 사건의 인지건수 (경찰청 조사)

	계	이지메 가해사건	이지메의 보복
1993 년	90	84	6
1994 년	103	99	4
증감수	13	15	-2
증감률	14.4	17.9	-33.3

표 II-11: 이지메에 기인한 사건의 보도인원 (경찰청 조사)

		계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1993 년	인 원	234	14	180	40
	구성비	100.0	6.0	76.9	17.1
1994 년	인 원	372	5	279	88
	구성비	100.0	1.3	75.0	23.7
증 감 수		138	-9	99	48
증 감 율		59.0	-64.3	55.0	120.0

표 II-12: 이지메에 기인하는 사건의 추이 (경찰청 조사)

	1985	1986	1987	1988	1989
건 수	638	281	128	97	98
보도인원	1,950	845	403	279	314
	1990	1991	1992	1993	1994
건 수	112	95	105	90	103
보도인원	346	305	322	234	372

문부성 이지메 실태조사(1996)*

문부성

아동·학생의 문제행동등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 회의

1994. 5.

1.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취지

이지메의 발생을 등의 수량적인 파악이 아니라 이지메의 원인·배경, 그 양태, 학생·교사·보호자의 견해와 대응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한다.

2) 조사방법

(1) 조사대상·실시방법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조사의 취지에 적합한 이지메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교의 선정 및 조사대상 학교의 조사대상 학년(초등학교 4-6년, 중·고등학교 전학년) 중 1 학급의 선정을 의뢰하여 해당 학급의 학생 전원, 그 보호자 및 대상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이번 조사에서는 각 도도부현에 2 학교의 선정을 의뢰했는데, 학교규모 등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미리 기준을 제시하여 협력을 요청했다.

* 출처: 日本 國立教育會館 인터넷 웹페이지, “いじめ問題に関する行政資料情報: 児童生徒の等に関する調査結果” (<http://www.naec.go.jp/kaigai/ijimeg>)

(2) 실시시기

1994 년 12 월 - 1995 년 1 월

(3) 회수율

100%

3) 조사대상

- 학교수 : 합계 94 개교 (각 도도부현 2 개교) - 초 23·중 47·고 24 개교
- 학생수 : 합계 9,420 명 - 초 (4-6 학년) 2,048 명, 중 6,694 명, 고 2,678 명
- 교원수 : 합계 557 명 - 각 학교마다 원칙적으로 교장 1 명, 학급담임 3 명, 생활지도 주사 1 명, 양호교사 1 명
- 보호자 수: 합계 9,420 명 (조사대상 학생의 보호자 - 초 2,048 명, 중 4,694 명, 고 2,678 명)
- 합계: 19,387 명

2. 이지메의 실태와 청소년의 생각·반응 등**1) 이번 조사에 있어서의 이지메의 상황**

- 현재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초등학교 22%, 중학교 13%, 고등학교 4%
- 현재 학년에서 이지메한 체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초등학교 26%, 중학교 20%, 고등학교 6%
- 현재 학년에서 학급에서의 이지메 (자신이 이지메당한 경우도 포함) 가 “있다” 또는 “장난처럼 보이지만, 이지메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를 포함 하면 (이하 “이지메의 견문”이라 함) 초·중학교에서 50% 남짓. 또한 청소년의 이지메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면, “이지메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

의 이지메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면, “이지메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60%이다.

2) 이지메의 양태, 시기 등

-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험담·조롱, 친구따돌림·무시가 많다. 친구따돌림·무시는 여자에게서, 때리기·발로 차기는 남자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 이지메한(가해자) 측의 사람수는 2-3 명이 45%-50%로 가장 많고, 한 사람에게 이지메당한 경우는 10-20% 남짓. 이지메당한 사람 중 복수에게 이지메당한 경우는 약 80%이고, 특히 중·고교 여학생 중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10명 이상에게 이지메당했다는 응답이 약 20%에 달하고 있다.
- 이지메당한 시기는 2 학기가 많다(조사시점: 12월-1월)
- 이지메의 빈도에 관해서는 주 1회 이상 이지메당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초등학교에서 60%(전체의 13%), 중학교에서 70%(전체의 9%), 고등학교에서 75%(3%).
- 이지메당한 시간대는 쉬는 시간이 60-70%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에서는 등·하교시 및 방과후가, 중학교에서는 부활동 중이 그 다음이다.
- 이지메의 양태로서는 복수에 의해 이지메당했다, 또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지메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다. 또한 쉬는 시간에 이지메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3) 이지메에 대한 청소년의 견해·반응 등

(1) 이지메당한 청소년의 기분 등

- 이지메당했을 때의 기분으로서는 “언젠가 복수하고 싶다”가 약 50% (전체의 6%)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다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40% 남짓, 전체의 5%), “반을 바꾸고 싶다” “참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친구

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반당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괴로웠다"가 30-40%.

- 이지메로 인하여 학교를 원 경험에 있는 청소년("많이 쉬었다" "조금 쉬었다"를 합산)이 이지메당한 청소년 중 초등학교에서 10%(전체의 2%), 중·고등학교에서 20%(전체의 0.6-2.6%). 이것을 남녀별로 보면, 모든 학교 단계에서 여자가 많고 특히 중학교에서 이런 경향이 현저하다.
- 이지메당했을 때에 "그만두도록 말하거나 반항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초등학교에서 50%, 중학교에서 40%, 고등학교에서 30%인 한편, "아무 말없이 하는 대로 둔다"가 20-30%. 이지메당한 청소년 중 "선생님께 말한다"나 "부모에게 말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에서 30% 미만, 중학교에서 약 20%, 고등학교에서 약 10%.
- 이지메당한 청소년중 언젠가 복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약 절반에 이른다. 다음으로 다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또는 학업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다. 이지메당해서 학교를 원 사람은 초등학교에서 10%, 중·고등학교에서 20%이고 특히 여학생들이 많다. 교사나 부모에게 말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고등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감소한다.

(2) 이지메한 청소년의 기분

- 이지메했을 때의 기분으로서는 "뒤에 좋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약 40%), "불쌍하다고 생각했다"(약 30%)고 응답한 사람이 다른 항목에 비해 많다. 한편 "기분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약 20% 정도이다.
-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재미있었다" "기분이 좋다고 생각했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기분이 후련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초등학교에 비해 많다. 또한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뒤에 좋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들켜서 야단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복수당할지 몰라 조금 두려웠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에서 낮다.

(3) 이지메의 입장의 변화

- "지금 이지메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으로서 "최근에 이지메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초등학교에서 약 40%, 중학교에서 약 30%, 고등학교에서 약 20%. "최근에 이지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지금 이지메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0% 전후이다. 또한 "지금 이지메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지금 이지메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0-20% 정도 이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는 "보통 사귀는 정도였다"가 30-40%로 가장 많고, "사이좋은 친구"를 이지메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약 20%. 전부터 사이가 나쁜 사람보다도 사이좋은 친구를 이지메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여학생에게서 그런 경향이 강하다.
-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중에는 후회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재미있었다" "기분이 좋았다"는 응답비율이 증가. 지금 이지메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이지메당하였다"와 "지금 이지메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치면 40-65%. 보통 사귀는 정도 또는 사이좋은 친구 관계에서 이지메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4) 이지메에 대한 청소년의 관련방식

- 이지메의 건물이 있는 청소년중, 학급의 이지메에는 "가능한 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가 40-50%로 가장 많다.
- 초등학교에서는 "뒤에 이지메당한 아이를 위로했다" "그만두도록 말했다" "뒤에 선생님에게 말했다" "뒤에 부모에게 말했다"로 이어지는데, 중·고등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5) 이지메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

- 이지메는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지메는 불쌍하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을 합산)은 80-90%.

을 합산)은 80-90%.

- 또한 이지메는 “재미있는 것이다” “대단한 일은 아니다”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 미만, “이지메는 교사가 보다 주의깊게 살펴보면 없어진다”는 고등학교에서 약 40%임에 대해서 초·중학교에서는 약 50%이다.
- 이지메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이지메에 대한 견해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만, “매우 그렇다”고 하는 중고생은 약 50%.

3. 교사·보호자의 이지메 인지상황과 대응 등

1) 이지메의 고지·인지에 관해서

(1) 담임에 대한 고지·인지

- 현재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청소년 중 자신이 말했기 때문에 담임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초·중학교에서 약 30%, 고등학교에서는 약 10%. 담임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초등학교에서 약 30%, 중학교에서 약 40%, 고등학교에서 약 60%.
- 이지메를 담임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말한 것이 모두에게 알려지면 더욱 이지메당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아서 약 50%, 다음으로 “선생님께 말하는 것은 고자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25%), 중학교에서는 “선생님께 말한 것이 모두에게 알려지면 더욱 이지메당하기 때문에”가 가장 많고(약 30%), 다음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약 30%)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이지메는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께 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가 가장 많고(약 30%), 다음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25%)이다.

- 이지메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자신은 이지메하지 않고 뒤에서 지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또는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35-50%.
- 현재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 중 담임이 자신의 학급에는 “이지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약 40%, 중학교에서 약 30%, 고등학교에서 약 70%.
- 이지메를 담임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로서 초·중학교에서는 “더욱 이지메당하기 때문에”가 가장 많고 이어서 “고자질이 되기 때문에” 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가 많다. 고등학교에서는 “우리들의 문제로서 선생님께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다.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중 담임이 자신의 학급에서 이지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초·중학교에서 30-40%, 고등학교에서 약 70%.

(2) 보호자에 대한 고지·인지

- 현재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 중 보호자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약 30%, 중학교 약 40%, 고등학교 약 50%.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이 “말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 현재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의 보호자 중, “이지메당하지는 않는 것 같다” 또는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은 초·중학교에서 약 60%, 고등학교에서 약 80%.
- 현재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 중 보호자에게 그 일을 “말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부모 중 자기 자녀에게 이지메는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20-40%.
- 청소년들이 현재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것을 알고 있는 보호자 중 “자녀로부터 들었다”는 사람이 60-70%, 다음으로 “자녀의 모습을 보고 알았다”는 사람이 약 30%.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녀로부터 들었다” “자녀의 모습을 보고 알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감소.
- 자녀가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한 것(가해)을 알고 있는 보호자 중 자녀

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약 30%. 초·중학교에서는 교사로부터 들었다는 사람이 약 20%.

- 지금 학년에서 이지메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보호자 중 70-80%은 자신의 자녀는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한 경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 자신의 자녀가 이지메당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보호자가 알고 있는 비율은 낮다. 자녀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지메는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한 보호자도 발견된다. 자신의 자녀가 이지메의 가해자임을 알고 있는 보호자는 매우 적다.

2) 이지메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

(1) 담임의 대응

- 담임의 대응의 결과 이지메가 없어졌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0-50%.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다”가 20% 남짓. “몰래 이지메당하게 되었다”가 15% 전후. 한편, “더욱 심하게 이지메당하게 되었다”는 약 2%에 머물고 있다.
- 담임의 대응의 결과, 해소되었다고 응답한 담임은 초·중학교 약 60%, 고등학교 약 50%.
- 이지메에 관한 견해에 관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담임은 약 90%. 이중 “매우 그렇다”는 담임은 초·중학교에서 약 70%, 고등학교에서 50%. 한편, “이지메는 학생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 담임은 20% 전후. “기본적으로는 이지메는 청소년의 세계에 맡겨야 할 문제이다”는 초·중학교 약 10%, 고등학교 약 20%.
- 담임의 대응에 따라 청소년들이 보기에 40-50%의 이지메가 해결되었다. 한편으로는 의연히 이지메당하고 있는 사람도 발견되지만, “더욱 심하게 이지메당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적다. 이지메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담임의 의식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보호자의 대응

-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청소년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보호자가 50-60%, “담임과 상담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0-40%,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가 20-25%. 또한 교육센터나 이동상담소, 민간 교육상담기관 등 학교밖의 기관에 상담한 사람은 극히 적다.
- 담임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로서는 “연락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아서 초·중·고등학교 모두 약 50% 전후.
- 이지메를 알게 된 보호자로서 담임에게 상담한 사람은 30-40%이고 학교밖의 상담기관의 이용도 적었다.

3) 이지메의 원인·배경에 관한 견해

- 이지메·교내폭력의 원인·배경에 관해서 “청소년들에게 정의감과 규범의식이 사라지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감이 사라지고 있다”고 응답한 보호자가 50-60%. 담임의 경우는 “가정의 교육력이 저하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가 약 85%, 이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의감과 규범의식이 사라지고 있다”(약 70%).
- 이지메나 교내폭력의 원인·배경으로서 보호자는 청소년의 정의감, 규범의식이나 배려심과 같은 점에 많이 주목하고 있음에 대해서 담임은 가정의 교육력의 저하를 첫번째로 들고 있다.

4. 이지메의 방지를 위하여

1) 어떤 학교에서 이지메가 많이 발견되는가

- (1)~(4) 이지메의 체험·견문과 학교규모·학급규모와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살펴봤을 때 특별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 (5)~(8) 담임이 교내폭력을 확인한 경우에 청소년의 이지메의 체험이나

전문의 비율이 높다. 또한 청소년이 교내폭력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이 발견된다.

- 이지메와 학교규모나 학급규모와의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교내폭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지메의 체형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

2) 어떤 학급에서 이지메가 많이 발견되는가

(1) 청소년이 본 학급의 분위기와 이지메의 전문

이지메의 전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청소년 전체의 학급관은 “밝고 유쾌한 아이가 많다”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잘치는 아이가 많다” “자유로운 분위기이다”고 보는 사람이 70-90%.

현재 학년에서 이지메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청소년은 학급의 분위기에 관해서 “두려운 느낌이 드는 아이가 있다” “험악한 분위기이다” “주변에 휩쓸리는 아이들이 많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다. 또한 “따돌림당하는 친구는 없다” “사려깊은 아이가 많다” “학급의 분위기가 공평하다” “매사에 열심히 하는 아이가 많다” “밝고 유쾌한 아이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낮다.

(2) 청소년이 본 학급 분위기와 이지메의 체형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청소년은 학급의 분위기에 관해서 “두려운 느낌이 드는 아이가 있다”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고, 또한 “사려깊은 아이가 많다” “학급의 분위기가 공평하다” “따돌림당하는 친구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낮다.

3)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은 담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1) 청소년의 이지메 견문과 담임과의 상담

현재 학년에서 이지메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상담하기 어렵다 또는 전혀 상담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다. 한편, 이지메의 견문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다 또는 대체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다.

(2) 청소년의 이지메당한 체험과 청소년의 담임관

청소년 전체의 담임관은 “학교나 학급의 규칙을 지키도록 엄하게 말한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매사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고 응답한 사람이 70-80%.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은 “선생님을 믿을 수 있다” “선생님은 사려깊은 분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은 올바르게 행동을 허용하지 않으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 낮다.

(3) 청소년의 이지메당한 체험과 담임의 자기인식에 의한 교사의 유형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담임은 자신의 타입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타입”,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매우 좋아하는 타입”,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즐기는 타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 낮다.

(4) 청소년의 이지메당한 체험과 교사의 원인·배경에 관한 견해

현재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담임은 이지메의 일반적인 원인·배경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사회 전체의 문제”, 중학교에서는 “지역의 교육력의 저하”,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서 정의감이나 규범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다”, “교내폭력을 일으키는 청소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다.

-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중에서 담임과 상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또한 이지메의 체험이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담임교사에 대해서 신뢰, 배려심 또는 정의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적다.

4)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은 이지메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 이지메에 관한 견해

청소년 전체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지메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지메는 불쌍한 일이다” “자신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지메를 목격하게 되면 그만 두도록 말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70-90%.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지메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지메는 불쌍한 일이다” “이지메를 목격하게 되면 그만두도록 말하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비율보다 낮다. 또한 “이지메당하는 아이도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 “이지메당했다면 복수를 하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지메는 재미있는 것이다” “이지메는 대단한 일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다.

(2)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의 사고방식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정의감이나 배려심 등에 관한 항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낮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좋지못한 일을 해도 용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3)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의 공부에 대한 생각

초·중학교에서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공부가 “힘든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이것은 보호자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4)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즐거운 것

- 전체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중 즐거운 것으로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잡담하거나 노는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0%을 넘는 반면 “학교생활에서 즐겼던 것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극히 적다.
-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잡담하거나 노는 것”을 가장 즐겁다고 응답한 점에서 전체와 큰 차이는 없지만, 학교생활에서 즐거운 것으로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 “운동회나 문화제 등에서 학급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적다.
- 이지메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이지메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고 정의감이나 배려심이 부족하다.

5)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은 학교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1)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체험과 전학의 유무**

- 초·중학교에서 현재 학년에서 전학을 한 청소년들 중에는 이지메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보다 높은 경향이 발견된다.

(2)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의 공부에 대한 생각

-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에는 공부가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 단지 고등학교에서는 “잘할 수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전체에 비해 높다. 또한 초·중학교에서는 보호자의 생각도 거의 동일한 경향이 발견된다.

(3)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즐거운 것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청소년들 중에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잡담하거나 노는 것” “운동회나 문화제 등에서 학급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을 학교생활에서 즐거운 것으로 든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낮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에서 즐거운 것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에 비해서 높다.

(4) 이지메당한 체험과 교우관계·생활실태

-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에 비해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학급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고, 중·고등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이런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 전학과 이지메 피해와의 사이에는 관련이 인정된다. 이지메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즐거운 것으로서 파악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이 발견된다.

6)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관하여

(1)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서 이지메의 체험이 많은 경향이 있다.

(2)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전체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보면 “부모에게 학교에서의 공부에 관한 것을 자주 얘기한다” “부모에게 공부 이외의 것을 자주 얘기한다” “부모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중·고등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감소.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참견을 한다” “부모가 말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어도 그

자리에서는 그렇다고 말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고, “부모에게 학교에서의 공부에 관한 것을 자주 얘기한다” “부모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다. 또한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부모에게 공부 이외의 것을 자주 얘기한다” “부모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비율에 비해 낮고, “부모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참견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

(3)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부모의 태입

전체 청소년들은 “부모를 믿을 수 있다” “부모는 남을 배려한다” “부모는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다” “부모는 올바르게 않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님은 완고하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에 비해 높은 경향. 또한 “부모님은 매사에 대해서 공평하시다” “부모님은 남을 배려하신다” 등에 관해서 전체에 비해 낮은 경향

(4)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의 보호자는 행실지도에 관해서 어떠한 불안과 고민을 안고 있는가

현재의 학년에서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의 부모는 “행실지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배우자가 협력해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다. 또한 “행실지도에 관해서 불안이나 고민은 없다”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은 전체에 비해서 낮다.

-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은 가정에서의 생활을 즐겁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부모와의 사이에는 대화의 부족이 발견된다. 또한 이지메한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다.

7) 방관자의 상황

(1) 학생의 방관적 태도와 사고방식

전체 청소년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면 고치려고 한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80%. 한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좋지못한 일을 해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10-20%.

이지메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친구의 일에 대해서는 참견않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고,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주위의 모든 사람과 다른 의견이더라도 옳바르다고 생각 되면 모두에게 얘기하는 편이다” “같은 반이라면 친구가 아니더라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을 보면 도와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낮다.

(2) 학생의 방관적 태도와 이지메에 관한 견해

이지메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자신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찬신도 이지메당할까봐 걱정이다” “이지메는 선생님이 더욱 주의해서 관찰하면 없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다.

이지메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친구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도 이지메당할까봐 걱정이다” “이지메는 선생님이 더욱 주의해서 관찰하면 없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다.

5. 다변량분석에 의한 이지메와 학생의 교사관 등

다변량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인자분석 후 공통성이 있는 집단구분을 행하는 클러스터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청소년의 이지메당한 체험의 유무와 크로스 집계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와 같은 경향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1) 학생의 교사관

- 농담이나 장난의 요소가 강하고 밝고 유쾌하지만 배려심이나 신뢰감을 결여한 타입의 교사의 경우 청소년의 이지메당한 체험이 많이 발견된다.
- 배려심이나 신뢰감을 결여하고 또한 교칙이나 규율에 대한 엄격성을 결여한 타입의 교사의 경우, 청소년의 이지메당한 체험이 많이 발견된다.
- 한편, 농담이나 장난의 요소가 강하고, 밝고 유쾌하고 배려심이나 신뢰감이 있는 타입의 교사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지메당한 체험은 비교적 적다.

2) 학생의 학급관

- 정의감이나 배려심이 있고 두려운 느낌이 드는 아이가 없고 애기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고 또한 농담이나 장난의 요소가 발견되고 밝고 유쾌한 사람이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분위기의 학급에서는 이지메당한 체험이 적다.
- 그러나 농담이나 장난의 요소가 강하고 밝고 유쾌한 사람이 많지만, 정의감이나 배려심이 결여된 분위기의 학급에서는 이지메당한 체험이 많다.
- 두려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애기하고 싶은 것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이고 또한 농담이나 장난이 많고 밝고 유쾌한 사람이 있고 정의감이나 배려심의 요소가 약한 분위기의 학급에서는 이지메당한 체험이 비교적 많다.

3) 학생의 부모관

- 신뢰, 배려심, 정의감 등이 결여되고 무서운 느낌을 주는 부모의 경우 이지메당한 체험이 많다.

규범감각과 이지메*

일본 베넷세교육연구소

1. 조사개요

- 대 상: 도쿄·사이타마·카나가와의 중학 1-3 학년생 2,086 명
 - 남자 1,068 명, 여자 1,000 명, 총 65 학급
- 시 기: 1996 년 2~3 월
- 방 법: 학교를 통한 질문지 조사

표 II-13: 이지메 실태조사 표본구성 (베넷세교육연구소)

(단위: 명)

	남 자	여 자	계
중 1	328	327	655
중 2	390	328	718
중 3	368	345	713
계	1,086	1,000	2,086

2. 조사결과

1) 이지메의 체험

“몇번” 이상 “이지메한 체험이 있다”는 7.2%, “이지메 당한 체험이 있

* 日本 ベッセ教育研究所 인터넷 웹페이지, “モノグラフ・中學生の世界：規範感覚とい
じめ”(http://www.crn.or.jp/LIBRARYCYUU/VOL54)

다"가 11.8%로 나타났다.

표 II-14: 이지메한 체험

(단위: %)

		있 다			없 다	
		여러 번	몇 번	조 금	거 의	전 혀
전 체		2.6	4.6	36.6	31.4	24.8
학 년	중 1	3.5	5.7	35.8	31.5	23.5
	중 2	1.7	3.6	34.1	33.9	26.7
	중 3	2.5	4.5	40.1	28.8	24.1
성	남	3.9	5.6	37.8	28.3	24.4
	여	1.1	3.5	35.4	34.7	25.3
학 교 다니는 즐거움	즐겁다	2.4	4.5	33.1	35.6	24.4
	대체로 즐겁다	2.0	3.2	38.3	32.7	23.8
	전혀 즐겁지 않다	6.1	4.1	34.7	32.0	23.1

표 II-15: 이지메 당한 체험

(단위: %)

		있 다			없 다	
		여러 번	몇 번	조 금	거 의	전 혀
전 체		5.0	6.8	33.4	27.4	27.4
학 년	중 1	5.4	7.7	35.5	27.6	23.8
	중 2	5.3	4.9	30.3	28.2	31.3
	중 3	4.4	7.9	34.5	26.4	26.8
성	남	4.7	6.3	30.6	27.5	30.9
	여	5.3	7.3	36.5	27.3	23.6
학 교 다니는 즐거움	즐겁다	2.6	6.3	30.4	30.8	29.9
	대체로 즐겁다	5.0	8.1	35.8	25.4	25.7
	전혀 즐겁지 않다	9.5	11.6	26.5	31.3	21.1

2) 이지메의 비율

전체중에서 “이지메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0.1%, “이지메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5.4%이다.

표 II-16: 이지메했다 x 이지메 당했다(전체)

(단위: %)

	이지메를 하 거나 이지메 를 당한 일이 전혀 없다	이지메를 하 거나 이지메 를 당한 일이 거의 없다	이지메를 당 한 적은 있지 만 이지메한 적은 없다	이지메를 한 적은 있지만 이지메 당한 적은 없다	이지메를 당 한 경험과 이 지메를 한 경 험이 있다
비 율	36.9	45.9	10.1	5.4	1.7

표 II-17: 이지메 했다 x 이지메 당했다(전체)

(단위: %)

		이지메 했다		
		여러 번 있다	몇번 있다	전혀 없다
이지메 받았다	여러 번 있다	1.7	4.4	5.7
	몇번 있다	2.4	17.4	13.7
	전혀 없다	3.0	14.8	36.9

3) 이지메와 통학의 즐거움

이지메를 당하고 있는 학생은 통학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II-18: 학교에 다니는 즐거움 x 이지메

(단위: %)

		즐 겹 다				
		매 우 즐겁다	대체로 즐겁다	소 계	약 간 즐겁다	
전 체		18.6	18.5	37.1	18.5	
이지메 당했다	여러 번 있다	18.8	9.9	28.7	22.6	
	몇번 있다	16.6	16.8	33.4	17.3	
	전혀 없다	23.7	20.3	44.0	22.5	
이지메 했 다	여러 번 있다	24.5	17.0	41.5	9.4	
	몇번 있다	17.2	16.7	33.9	21.5	
	전혀 없다	21.7	18.3	40.0	14.3	
		보 통	즐겁지 않다			
			약 간	그다지	전 혀	소 계
전 체		24.2	6.5	7.1	6.6	20.2
이지메 당했다	여러 번 있다	24.8	0.9	13.9	9.1	23.9
	몇번 있다	25.9	7.1	5.6	10.7	23.4
	전혀 없다	22.6	4.6	5.5	0.8	10.9
이지메 했 다	여러 번 있다	18.9	1.9	17.0	11.3	30.2
	몇번 있다	25.4	5.8	6.8	6.6	19.2
	전혀 없다	23.4	6.7	6.7	8.9	22.3

4) 이지메와 자기능력 발휘

이지메를 당하고 있는 학생도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지메하고 있는 학생들은 부활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II-19: 자기능력의 발휘 x 이지메

(단위: %)

			발휘하고 있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자주	여러번	소 계	약 간	그다지	전 혀
이 지 메 당 했 다	수 업 시간에	여러 번 있다	12.5	8.7	21.2	18.3	37.4	23.1
		몇 번 있다	4.8	8.1	12.9	34.3	38.0	14.8
		전혀 없다	7.4	9.0	16.4	35.1	32.2	16.3
	부활동 시간에	여러 번 있다	21.6	17.6	39.2	18.6	18.6	23.6
		몇 번 있다	20.0	22.2	42.2	28.7	17.7	11.4
		전혀 없다	24.8	22.5	47.3	25.3	12.1	15.3
	친구들과 있을 때	여러 번 있다	34.6	22.1	56.7	23.1	9.6	10.6
		몇 번 있다	35.7	33.9	69.6	22.5	6.3	1.6
		전혀 없다	45.6	27.2	72.8	20.3	3.9	3.0
	가정에 있을 때	여러 번 있다	37.6	11.5	49.1	20.2	13.6	17.1
		몇 번 있다	30.2	25.9	56.1	23.0	12.7	8.2
		전혀 없다	28.4	22.8	51.2	24.8	15.0	9.0
이 지 메 했 다	수 업 시간에	여러 번 있다	13.5	9.6	23.1	30.7	23.1	23.1
		몇 번 있다	4.0	9.9	13.9	33.7	36.6	15.8
		전혀 없다	7.0	9.4	16.4	32.7	35.9	15.0
	부활동 시간에	여러 번 있다	36.5	17.3	53.8	7.7	13.5	25.0
		몇 번 있다	21.2	23.5	44.7	28.2	15.0	12.1
		전혀 없다	21.4	20.4	41.8	27.0	16.1	15.1
	친구들과 있을 때	여러 번 있다	44.2	26.1	70.3	25.3	0.0	4.4
		몇 번 있다	35.7	32.1	67.8	22.9	6.9	2.4
		전혀 없다	40.8	26.1	66.9	25.3	4.1	3.7
	가정에 있을 때	여러 번 있다	32.7	11.5	44.2	13.5	9.6	32.7
		몇 번 있다	27.1	24.4	51.5	26.9	14.2	7.4
		전혀 없다	34.6	24.8	59.4	20.9	11.5	8.2

5) 이지메와 장래의 전망

이지메하고 있는 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품고 있지만, 이지메 당하고 있는 학생들도 직업에서의 활약 등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표 II-20: 장래의 전망 x 이지메

(단위: %)

	이지메 당했다			이지메 했다		
	여러번 있 다	몇 번 있 다	전 히 없 다	여러번 있 다	몇 번 있 다	전 히 없 다
원하는 고교에 진학한다	33.0	27.0	32.3	46.1	14.8	15.6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다	16.8	14.1	19.2	52.0	29.6	33.8
원하는 직업을 가진다	34.0	21.6	26.7	28.8	16.7	19.0
이상적인 사람과 결혼한다	28.9	20.5	31.0	28.3	22.9	26.2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낸다	35.6	29.7	39.6	20.8	13.1	14.9
직업에서 크게 활약한다	39.4	23.1	29.9	34.0	14.8	18.2
유명해 진다	22.1	13.3	21.7	50.0	47.4	42.7
부자가 된다	17.3	12.8	19.0	46.2	39.5	45.7
사회적으로 존경받는다	24.0	10.9	18.3	51.9	42.1	48.6
노후에 행복하게 지낸다	47.1	38.5	46.1	21.2	13.7	15.2

주: “대체로” +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비율

대체로 이지메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평가가 긍정적이고 미래에 밝은 꿈을 품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 그에 대해서 이지메 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교칙을 지키고, 장래의 직업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성실한 노력이 타입으로 생각된다.

표 II-21: 자기평가 x 이지메

(단위: %)

	“여러 번” 이지메 당했다	이지메 했다
가족을 좋아한다	54.8	47.2
친구가 많이 있다	36.9	62.3
반항적이다	58.7	66.0
유모어의 센스가 있다	27.2	50.0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35.9	54.7
동료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다	29.8	47.2
성적이 좋다	22.1	28.8
공부를 잘 한다	24.0	35.8
교칙을 잘 지킨다	61.6	33.9
학급에서 인기가 있다	16.3	28.3
확신감을 갖고 있다	16.4	30.2
이성에게 호감을 얻는 타입	12.6	32.6
고집이 다소 센 편이다	12.5	22.6
비행화하고 있다	14.4	26.4
불량끼가 있다	7.7	26.4

주: “매우”+ “약간” 그렇게 생각한다는 비율

6) 일탈행위와 이지메

이지메를 당하고 있는 학생도 일탈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지메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이상으로 일탈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표 II-22: 일탈행위의 체험 x 이지메

(단위: %)

	이지메 했다			이지메 당했다		
	여러번 있 다	몇 번 있 다	전 혀 없 다	여러번 있 다	몇 번 있 다	전 혀 없 다
학교에 교과서를 놓고 간다	52.8	57.6	56.5	40.4	51.6	53.8
립 크럼을 바른다	60.4	65.7	57.8	61.7	62.9	57.6
신발 뒤축을 꺾어서 신는다	45.3	38.7	22.2	25.9	28.5	34.5
오락실에 간다	65.4	43.2	32.7	45.2	37.1	42.5
가방 등에 실을 붙인다	13.2	7.6	5.2	11.7	8.0	6.5
규정보다 폭넓은 바지를 입는다	16.6	4.7	3.2	4.3	2.6	4.7
학교에 만화책을 가지고 간다	41.5	26.1	16.6	36.6	22.0	17.5
얇게 매니큐어를 바른다	13.5	15.1	11.6	12.4	15.3	11.8
용무도 없이 양호실에 간다	17.0	8.4	5.7	17.3	7.1	6.5
집에서 술을 마신다	32.7	17.5	6.6	17.3	14.2	12.0
심야에 변화가를 돌아다닌다	25.0	7.7	4.5	4.8	6.1	8.0
남의 우산을 말없이 사용한다	5.7	2.0	1.4	2.9	1.7	2.5
담배를 피운다	13.4	2.7	0.6	4.8	2.2	1.6
남의 자건거를 말없이 사용한다	11.5	1.7	1.2	4.8	1.5	1.9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다	11.6	0.7	0.6	2.0	1.2	0.7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한다	5.7	1.3	0.6	2.0	0.7	1.6
부분적으로 퍼머를 한다	3.8	0.3	0.6	1.0	0.4	0.9

주: “항상” + “때때로” 하고 있다는 비율

7)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지메

이지메 당하고 있는 학생은 꺾연과 음주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그에 대해서 이지메하고 있는 학생들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적다.

표 II-23: 중학생으로서 좋지 못한 행동 x 이지메

(단위: %)

	이지메 했다			이지메 당했다		
	여러번 있 다	몇 번 있 다	전 혀 없 다	여러번 있 다	몇 번 있 다	전 혀 없 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다	82.7	83.3	80.5	65.4	80.2	83.3
학교에서 담배를 피운다	79.8	78.3	74.6	55.8	76.0	77.0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한다	79.8	72.2	69.7	51.9	69.6	72.3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	66.3	65.4	64.6	40.4	62.5	68.9
남의 자전거를 말 않고 탄다	71.3	64.9	60.6	51.0	58.3	66.7
친구집에서 술을 마신다	58.7	55.2	52.6	30.8	49.1	57.8
남의 우산을 말 않고 사용한다	58.7	51.3	50.4	46.2	51.5	53.0
집에서 술을 마신다	45.3	39.9	39.7	21.2	34.2	46.7
심야에 번화가를 돌아다닌다	47.1	38.9	34.9	25.0	36.8	40.1
부분적으로 퍼머를 한다	33.7	17.2	23.6	21.6	16.9	26.1
규칙보다 폭 넓은 바지를 입는다	18.6	13.5	16.3	11.5	11.6	18.4
학교에 반화를 가지고 간다	20.2	10.7	10.9	13.5	9.8	12.5
용무도 없이 양호실에 간다	14.6	7.2	10.6	13.5	7.0	8.0
오락실에 간다	12.5	7.7	8.5	11.5	6.2	11.1
얇게 매니큐어를 칠한다	17.3	6.3	7.9	13.5	5.3	9.5
신발 뒤축을 접어서 신는다	11.5	5.1	6.9	11.5	4.5	7.6
가방 등에 스티커를 붙인다	10.7	2.2	4.1	13.7	2.5	5.5
학교에 교과서를 두고 간다	6.7	1.6	3.9	9.6	1.3	3.9
립 크림을 바른다	4.8	1.3	2.8	3.8	1.5	2.1

“내가 이지메 당한 일기”가 의미하는 것*

土屋 守

(쓰치야 마모루·교토심신·학습통합카운셀링룸 주재)

1. 이지메가 부등교와 고교중퇴의 계기로

나는 자신의 카운셀링 룸에서 부등교와 고교중퇴, 수험생 부모-자녀의 고민을 상담·치료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이다. 또한 의사가 되기 전에 13년간 공립 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현대 일본과 같은 고학력 지향의 사회에서는 부등교나 고교중퇴 등의 교육문제를 접어놓고 사춘기, 청년기를 말하는 것은 구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진로나 카운셀링 중에서 부등교나 고교중퇴의 계기로서 “음습한 이지메”가 있었다고 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부등교나 고교중퇴가 급증하여 그 보편적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지메가 “유야무야 되거나 심한 상처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내 딸이 이지메를 당하고 이에 대해서 딸이 다니는 학교의 일부 교사들의 매우 치졸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목격하게 되었다. 이지메를 당하는 내 자식의 고통은 격심한 것이었다.

나는 직업상 자살원망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많이 진료하였다.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이지메 당하고 담임으로부터도 소외되어 깊은 마음의 상처로 학교불신 상태에 도달한 딸에 대한 정신요법, 마음의 안정화라는 의미에서

* 출처: 土屋 守(1993), “いじめられ日記の意味するもの,” 青少年問題研究會, 「青少年問題」40-6, pp.40-46.

카운셀링 룸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서 내가 사용해 오던 "일기요법"을 응용하여 딸에게 매일 일기를 쓰게 하였다. 정신적 성숙성의 지체가 현저한 오늘날의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표현이 서투르다. 사춘기, 청년기의 신경증의 치료에 일기를 쓰게 하고 그 경과를 관찰해 보면 자기표현에 익숙해짐에 따라 신경증 증상도 점차 회복하게 되는 데 주목하였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은 과묵하여 치료자가 상대(신경증환자)의 마음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매일 일기를 쓰게 하고 치료자가 그것을 읽음으로써 신경증 증상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지매뿐만 아니라 사춘기, 청년기의 고민 상담이나 정신적 치료에 내가 "일기요법"을 즐겨 사용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이유이다.

2.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지매

이지매는 최근 감소한 것이 아니라 지하로 잠행한 것이다. 교사가 발견할 수 있는 종류의 "이지매"는 이미 "이지매"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습화" (陰濕化) 하고 있다. 이지매가 음습화하면 할수록 실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춘기, 청년기의 자기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이지매의 진실을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묵하기 때문에, 또는 "싫은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에서 진실을 털어놓지 않는 케이스도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령에서는 자기의 언동에 자신이 없고 강한 수치심 때문에 "이지매 당했다"는 것이 "자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양친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약한" 자신을 내보이기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오래 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지매가 음습화하면 할수록 실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으로 연구가 필요하여 그 연구의 하나로 "일기요법"을 응용하게 된 것이다.

이지매가 음습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나 우리 부모들은 항상 자신의 판단이나 대처방법에 지나친 자신감을 가진 나머지 겸허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를 상실하여 이지매의 실상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중대한 "오진" (誤診)을 범하여 구할 수도 있었던 "작은 새"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

)을 범하여 구할 수도 있었던 “작은 새”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년에 아마카타, 카가와, 오사카 등 전국에서 이지메를 원인으로 하는 죽음이 빈발했다. 아마카타의 “이지메 치사사건”은 최근의 이지메가 교사의 눈에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초보적인 형태의 미숙한 것이 아님을 세상에 알렸다. 교사를 비롯한 성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학급이나 가정의 “이지메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출발해야만 비로소 “이지메가 원인인 죽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3. 학교가 좋고 친구가 좋다

최근에 학교를 싫어하는 청소년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딸아이가 학교를 매우 좋아한 것은 어릴 때 소아천식과 자가중독(自家中毒)으로 심하게 고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치원은 1년 중 3분의 1만 다녔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거의 학교를 쉬었다.

천식이라는 마음과 신체의 부조화는 학교·학습부적응을 일으키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 딸 아이가 학교를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한 것은 천식재발 방지를 위한 마음의 자기균형 회복능력(자연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밸런스의 회복)에 의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무렵 “이지메”가 있었다.

자신이 오랜 기간 이지메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아이에게는 공격성이나 타인을 의심하거나 타인의 행동을 나쁘게 해석하는 “마음의 상태”는 천식재발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좋지 않다고, 마음의 의사로서 또한 부모로서 딸을 교육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이지메 당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심신의 피로, 정신적 쇼크, 상대에 대한 공격성 등의 마음의 동요를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지메 당한다는 사실” 그 자체와 동시에 부모로서의 커다란 과제였다.

4. 내가 계획한 정신요법적 대응

일기요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1) 이지메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였던 자신을 어떻게 재평가하게 할 것인가(자기혐오감으로부터의 해방)
- 2) 매일 변화하는 교사, 친구의 상황을 일기에 정리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정신적 에너지)을 비축시킨다(우울증의 방지, 공격성의 승화).
- 3) 교사, 친구의 변화에 수반하는 딸의 마음의 실상을 부모가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때그때의 아이의 심리상태의 흐름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지지, 공감, 수용, 격려, 고양된 감정의 진정 등을 꾀한다.
- 4) 자신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자각을 촉진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와 자신감을 주고 인간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킨다.

일기요법은 이 이지메 사건의 당초부터 시도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지메의 추이와 일기요법의 적용과의 관계를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이지메의 추이와 일기 요법

1) 제 1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약 3개월. 이 시기는 딸이 학급의 세 사람과 사귀면서 이지메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 했던 시기이다.

세 사람은 딸이 눈치 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이지메를 에스컬레이트 시켜 갔다. 이지메를 눈치 채지 못한 딸은 어떻게든 세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개선하고자 노력했지만 끝내는 그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여 초조해 하면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차라리 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끝내버릴까”하는 갈등이

일어났다. 이 시기는 갈등으로 심신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복통으로 대표되는 각종 심신증상이 나타난 시기이다. 딸에게 있어서는 초조함과 갈등의 시기.

2) 제 2기

딸이 갈등에 의한 심인성 복통으로 학교를 쉬게 되면서 제 2기로 들어간다.

딸이 복통으로 학교를 쉬었던 날, 세 사람은 딸의 친구 A 양에게 “숫치(딸)를 이지메했다. 내일도 학교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선언했다.

딸은 A 양의 얘기를 듣고 아직 “초등학교 때부터 사이 좋던 친구들이 설마...” 하는 생각에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날 밤 “이지메 당했음”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아내는 곧 이지메 사실을 담임에게 알리고 다음 날 “사실관계를 딸로부터 직접 청취해 주도록, 그리고 아이들간의 관계는 딸의 판단과 행동에 맡기고 지켜 봐 주셨으면 한다”고 의뢰하고 담임의 확약을 받았다. 이 시기는 딸이 이지메를 확인한 뒤, 세 친구에게 이지메가 인간으로서 비열한 행위라고 말하고 신뢰하는 담임에게 이지메 당한 사실관계를 직접 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세 사람과의 나쁜 인간관계를 끝내고자 결의한 중요한 시기.

3) 제 3기

다음날 세 사람은 딸의 태도가 서먹서먹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봐” 하고 도발적 태도로 나온다. 딸이 자신은 세 사람에게 이지메 당해 왔고 이지메는 비열한 행위라고 말하자 세 사람 중 한 명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담임에게 호소하였다. 여기서부터는 아이들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학교의 성인”인 담임이나 같은 학년 담임이라는 복수의 교사들이 관여하게 되어 사태의 성격은 크게 변화하고 복잡화한다.

담임은 다음 날 A 양과 딸을 상담실에 불러서 문을 일부러 반쯤 열어 놓고 옆 방에 기다리고 있는 이지메 한 두 사람에게 대화내용이 들리도록 해 놓고 “설교”를 하여 A 양과 딸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아울러 아내가 “아이들을 모두 불러놓고 직접 얘기한 것은 전날의 약속과는 다르다”는 항의를 받고 나서

는 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한편 세 아이들은 이지메를 학교에 알려서 딸을 고립화시키기 위해 광기 어린 듯이 다수와 공작을 개시했다. 담임의 태도에 대해 결정적인 불신감을 가졌던 A 양은 딸이 세 아이들의 다수와 공작으로 점차 고립화되고 담임이 딸을 계속 무시하는 가운데 좌절하는 딸을 필사적으로 도와주려고 다양한 형태로 딸의 에너지를 공급해 줬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과 그 뒤의 그 에너지 공급에 의해서 딸이 간신히 구출되는 시기이다. 이 때부터 일기요법이 시작된다.

4) 제 4기

학교의 관리직의 방문이 있었고 교장은 자신의 책임으로 “즉각 사태해결에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딸에게 있어서 교장의 출현과 강력한 약속에 의해서 희망이 빛이 비취지는 듯했다. 그런데 세 아이의 다수와 공작은 점차 심해졌을 뿐 아니라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연락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딸은 학교에서의 정신적 괴로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이지메라는 비열한 행위에 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으로 통학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5) 제 5기

“이지메 편지”의 반환을 둘러싸고 딸을 계속 무시하는 담임과의 충돌이 시작된 시기.

딸은 어른들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정신적 에너지도 소진되어 부등교 상태로 지냈던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 부부는 괴로로 인하여 심신의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담임과의 격돌을 계기로 딸의 등교를 보류시키기로(부등교) 결정했다.

6) 제 6기

부등교의 조치와 동시에 같이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

자녀의 적극적인 행동이 시작된 시기이다.

7) 제 7기

교토의 B 교장의 성의 있는 적극적인 중재에 의해 시교위(市教委)에 실정을 호소했다. 딸이 기록한 일기를 읽은 시교육위원회는 곧 학교의 관리직과 부모간의 협의의 장을 만들었다.

교육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계기로 교착되어 있었던 사태는 급속히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딸이 학교행정의 성의 있는 대응으로 인하여 “학교와 관계된 성인들”에 대한 신뢰를 간신히 회복할 수 있었던 시기.

8) 그 뒤의 딸의 마음의 추이

이 이지메 사건에 의해서 그녀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깊다. 자신이 “이지메 당했다”는 것을 수개월이나 자각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났던 그날, 신뢰하고 있었던 세 친구가 “이지메해 왔다”는 발언을 A 양으로부터 들음으로써 딸은 충격을 받아 깊은 자기혐오감을 품게 되었다. 이 깊은 자기혐오감은 이지메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 친구를 좋아하여 그들에게 온갖 정신적 에너지를 쏟았던 데 대한 억울함(깊은 낙담) 등으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점점 깊어갔다.

또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어른들”에 대한 불신감도 부모인 나조차 어떻게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

사건의 발단에서 거의 1년, 딸은 자신을 이지메한 세 사람에 대한 공격적 감정을 승화시키려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공부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부에 몰두함으로써 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었다. “학교의 어른들”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씻어낼 수도 없었다. A 양 이외의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극단적으로 주저하였다.

반년 정도 전부터 A 양과 딸에게 이따금씩 “주의”를 주면서 아픈 상처를 건드렸던 교사가 딸의 마음의 상처와 가정의 염려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네 통지표 평가란에 3 점을 줬어. 사실은 2 점을 줘야 하는데.....”라는 말을 던졌

다. 공부에 몰두하여 성적을 올림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는 바로 그 때 이와 같은 처사는 쇼크였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이번 일의 “사건성”은 일단 해소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성인사회”에서만 통용되는 타협의 산물로서 청소년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

6. 일기의 출간을 결행하다

부모가 염려했던 사고(자살)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전의 그녀의 맑은 정신의 약동이 사라졌다. “그것은 정신적 죽음입니다”. 어떤 이로부터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받았을 때,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청소년과 청년에 관련된 정신과 의사이면서 딸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청소년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성인사회”의 타협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와 동시에 부모로서 가능한 긴급하고도 적극적인 행동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딸이 공부에 몰두하여 성적이 올라감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는 바로 그 순간, 평가를 빌미로 한 교사의 발언에 직면하여 나의 마음은 확고해졌다. 부모로서의 적극적인 행동의 제 1 단계로서 “내가 이지메 당한 일기”를 출판하고자 결심했다.

우연히도 야마카타 지방을 비롯하여 “이지메 죽음”이 연달아 일어나서 TV,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미디어의 취재가 있었고, 딸의 이지메 내용은 곧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여러 미디어의 추정으로는 7 천만 명의 사람들이 딸의 호소를 보거나 들었다고 한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강한 인간불신에 빠져있던 딸에게 있어서 취재사의 스캔들의 따듯한 대응과 이 이지메의 내용을 전해들은 전국의 사람들로부터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음은 “내가 이지메 당한 일기”의 “맺음말”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선 제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

으로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와 같은 정도로 깊고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건이 그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는 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무언가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지메 한 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다정한 많은 분들이 저를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격려하고 뒷받침해 주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위 분들의 힘이 저의 에너지의 전부입니다. (중략)

그리고 지금 이지메 당하고 있으면서 저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저서는 안됩니다! 제가 자신의 괴로운 체험을, 일기를 이렇게 출간한 것은 저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나는 주의의 많은 분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상처를 받더라도 필사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기 때문에”라고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7. “내가 이지메 당한 일기” - 두가지의 의미

이지메 일기를 기록함으로써 딸은 자신을 되찾고 이지메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 또한 딸의 개인적 문제와는 별개로 “내가 이지메 당한 일기”의 출판이 널리 보도된 것은 크게 두가지의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내가 이지메 당한 일기”는 이지메 당한 본인이 극명하게 이지메를 기록하였고, 양친이 우연히도 이지메의 와중에서 학교와 접촉한 FAX를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기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게 되어 앞으로 이지메의 입증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와 같이 이지메 당한 청소년이 울면서 잠자리에 들지 않고 딸과 같이 이지메 당한 체험이나 SOS를 공개하고 고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남으로써 이지메 죽음의 예방에 다소라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土屋 怜・土屋 守(1993), 「私のいじめられ日記」 青弓社.
- 2) 土屋 守・不破 哲(1993), 「子たちを元氣にしたいー 醫者が見た, 記者が見た不登校」白揚社.

Ⅲ. 대 책

이지메대책 긴급회의 긴급 어필*

문부성 이지메대책 긴급회의

1994. 12. 9

아이치현의 중학 2학년생이 11월 27일 이지메의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깊은 슬픔을 부여하였다. 이지메대책 긴급회의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거듭되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이지메 문제에 관한 긴급 검토를 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의의 결과, 이지메 문제는 학교·가정·사회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하에 당면하여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또한 본 회의는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 음

1. 이지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든 학교에서는 곧 학교 전체 단위의 총점검을 행함과 아울러 실정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
2. 학교·가정·사회는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청소년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강한 인식에 입각하여 청소년 지도에 임하고 청소년들도 그

* 출처: 日本 國立教育會館 인터넷 웹사이트, “いじめ問題に関する行政資料情報: いじめ対策緊急會議 緊急アピール”

(<http://www.naec.go.jp/kaigai/ijimeg>)

것을 자각할 것.

3. 청소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곧 부모나 교사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부모, 교사와의 신뢰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4. 가정은 이지매 문제가 지닌 비종과 가정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청소년의 생활태도를 다시금 살펴볼 것.
5. 학교는 자신의 책임을 깊이 자각함과 아울러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제휴·협력을 추구할 것.
6.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에 있어서도 이지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책의 충실에 노력할 것.

이지메 문제 대응을 위한 체크 포인트*

문부성

1994. 12. 9

1. 취 지

이 체크 포인트는 최근에 있어서의 심각한 학생 이지메문제의 상황을 감안하여 1985년 10월 25일부(文初中 제244호 별첨) “이지메 문제에 관한 지도 상황에 관한 체크 포인트”에 이번 통지의 취지를 덧붙여서 이지메 문제에 관한 학교 및 교육위원회의 대응 충실을 위해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참고예로서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지메”의 정의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1: 자신보다 약한 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2: 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하여, 3: 상대방이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개별 행위가 이지메에 해당되는가 여부의 판단은 표면적·형식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이지메당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행해져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출처: 日本 國立教育會館 인터넷 웹사이트, “いじめ問題に関する行政資料情報: いじめの問題への取組についてのチェックポイント”

(<http://www.naec.go.jp/kaigai/ijimeg>)

2. 체크 포인트

1) 학 교

- 지도체제

- (1) 이지메 문제의 중대성을 전 교직원이 인식하여 교장을 중심으로 협력체제를 확립하여 실천에 임하고 있는가.
- (2) 이지메 양태 및 특질, 원인·배경, 구체적인 지도상의 유의점 등에 관해서 직원회의 등의 모임에서 논의하여 교직원간의 공통이해를 도모하고 있는가.
- (3) 교사는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학생들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육성에 노력하고 있는가. 또한 학생의 생활실태의 세심한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4) 학생이 발하는 위험신호를 간과하지 않고 그 하나하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 (5) 이지메에 관해서 호소하는 등의 일이 있을 때 학교는 문제를 경시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 교육상담

- (6) 교내에 학생의 고민이나 요망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돌일 수 있는 교육상담의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가. 또한 그것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가.
- (7) 학교의 교육상담에 관해서 보호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보호자의 고민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8) 교육상담에서는 고민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지도가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 (9) 교육상담의 실시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교육센터 등의 전문기관과

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가.

- (10) 교육센터, 인권상담소, 아동상담소 등 학교 이외의 상담창구에 관해서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주지·홍보하고 있는가.

- 교육활동

- (11) 학교 전체적으로 교장을 비롯하여 각 교사가 각각의 지도장면에서 이지메 문제에 관한 지도의 기회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12) 도덕이나 학급활동·홈 활동의 시간에 이지메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지도가 행해지고 있는가.
- (13) 학급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등에서 이지메 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도·조언이 행해지고 있는가.
- (14) 학생에게 폭넓은 생활체험을 쌓게 하거나 사회성 함양이나 풍요로운 정서를 배양하는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는가. 특히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청소년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강한 인식에 입각하여 지도에 임하고 있는가.

- 가정·지역과의 협력

- (15) 학교는 PTA나 지역의 관계단체와 더불어 이지메 문제에 관해서 협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이지메 근절을 위해서 지역단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 (16) 학교는 가정에 대해서 이지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과 아울러 가정방문이나 학교통신 등을 통하여 가정과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가.
- (17) 이지메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에서는 가정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여 상호협력하여 그 해결에 임하고 있는가.
- (18) 이지메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육센터, 아동상담소, 경찰 등 지역의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는가.

2) 교육위원회

- 지도체제

- (1) 교육위원회는 관할 학교 등에 대해서 이지메 문제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지도방침 등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지도를 행하고 있는가.
- (2) 교육위원회는 관할 학교에 있어서의 이지메문제에 관하여 학교방문 조사의 실시 등을 통해서 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3) 이지메 문제에 관한 지도상 곤란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도주사나 교육센터 전문가의 파견 등에 의한 중점적인 지도, 조언, 원조를 행하고 있는가.

- 교육상담

- (4) 교육위원회는 학교로부터의 상담은 물론, 보호자로부터의 상담도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상담체제를 구비하고 있는가. 또한 상담 담당자로서 적절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 운용에 유의하여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가.
- (5) 교육위원회는 교육상담의 이용에 관해서 관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는가. 또한 교육센터, 인권상담소, 아동상담소 등 학교 이외의 상담창구에 관해서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홍보하고 있는가.
- (6) 교육위원회는 교육상담의 내용에 따라 학교와 연락·협력하여 지도에 임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지도를 적절하게 행하고 있는가.
- (7) 교육상담의 실시에는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가.
- (8) 이지메에 따른 고민을 안고 있는 학생의 초·중학교의 학교 지정 변경의 상담이 있을 때, 성실하게 상담에 임함과 아울러 그 처리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행해지고 있는가.

- 교원연수

- (9)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지메 문제를 교원의 연수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 (10) 이지메 문제에 관한 지도의 충실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을 작성·배포하고 있는가.

- 가정·지역과의 협력

- (11)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PTA, 지역의 관계단체 등이 이지메 문제에 관해서 협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이지메 근절을 위한 지역단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 (12) 교육위원회는 이지메 문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가정 및 지역의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계발·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가.
- (13) 교육위원회는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계당국·기관과 적절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가.

문부대신 긴급어필*

- 돌이킬 수 없는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문부성

1996. 1.30

금년에 접어들어 이지메로 고통을 받았던 학생들의 자살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등 이지메 문제는 의연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 문부성에서는 개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의 추진, 교원의 자질·능력 향상, 교육상담체계의 정비, 가정·학교·지역의 협력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지난 1월 30일 “긴급 어필”을 발표하여 이지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의 협력을 요청하게 되었다.

문부대신 奥田幹生

1. 이지메에 관해서 본인은 지금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학교 교사,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청소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호소한다.
2. 우선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호소한다. 체군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괴로운 일이나 고민이 있더라도 그에 굴하지 않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앞으로의 멋진 인생을 향유해야 한다. 고민이 있을 때에는 결코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고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아버님, 어머님, 선생님, 선배, 친구 등 누군가에게 상담하기 바란다.

* 日本 文部省 인터넷 웹페이지, “いじめの問題に関する文部大臣緊急アピール”
(<http://www.monbu.go.jp/special/kodomo/>)

다. 고민을 털어놓은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상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가 상담에 응해 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이지메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호소한다. 약자를 이지메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가벼운 놀이나 장난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군의 말이나 태도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호소한다. 이지메를 부추기거나 방관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4. 학부형 여러분께도 호소한다. 자녀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이지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그를 위해서 가능한 한 자녀와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고민이 있는 청소년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지메가 발견되면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바란다.

또한 다른 청소년을 이지메하는 일이 없도록 이지메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가정에서 충분히 얘기해 주기를 바란다.

5. 모든 학교의 교사분들에게는 심각한 이지메는 어느 학교, 어느 학급, 어느 청소년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호소한다. 이지메 문제를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간주하고 대응하기를 부탁한다. 이지메 당하고 있는 청소년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말과 태도로 보여주고 의연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과 가능한 한 자주 접촉하고 청소년들로부터 신뢰받는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이지메의 발견과 예방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지메를 발견했을 경우 한두번의 지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이지메가 움지에서 심각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거듭 지속적으로 지도를 행해야 한다. 또한 교장과 상담하여 다른 교사나 양호교사의 협력을 얻거나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여 최대한 이지

메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각 학교의 교장은 이지메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목숨을 끊어서는 안된다는 것, 반드시 누군가와 상담할 것을 반복해서 직접 청소년들에게 호소하고, 학교의 구석구석, 청소년 한사람한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란다. 그리고 선두에 서서 이 문제의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7. 마지막으로 지역의 성인 여러분들에게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지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모두가 손을 맞잡고 이지메를 허용하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PTA 나 청소년교육, 스포츠 활동 등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지메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 이지메에 굴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당부한다.
8. 문부대신으로서 충심에서 이상의 부탁을 드리는 바이다. 본인도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학교를 통한 지도의 철저,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일체가 된 대응의 충실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이지메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에 관하여*

- 지금이야말로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행동할 때 -

문 부 성

아동·학생의 문제행동 등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 회의 보고

1996. 7. 16

1. 서 론

본 협력자회의는 1994년 7월 이지메 등의 문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식 등에 관해서 검토하기 위해 문부성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본 협력자회의가 이 문제에 관한 검토를 시작한 뒤 바로 1994년 11월에 아이치현의 중학교 2학년생이 이지메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본 협력자회의는 곧 “이지메대책긴급회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같은 해 12월 모든 학교에서 즉시 이지메의 실태에 관한 총점검을 행할 것 등을 요청하는 “이지메 대책 긴급회의” 긴급 어필을 발표했다. 또한 1995년 3월에는 이지메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가 당면해서 취해야 할 방책에 관해서 정리하여 문부성에 보고했다.

사회의 이지메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는 가운데 이 보고를 토대로 관계자의 대응도 한층 적극적으로 되어 갔지만, 그 뒤 이지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아동·학생의 자살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지메의 문제는 의연히 우려할

* 출처: 日本 國立教育會館 인터넷 홈페이지, “いじめ問題に関する行政資料情報: いじめ問題に関する総合的な取組について - 今こそ,子どもたちのために我々一人一人が行動するとき” (<http://www.naec.go.jp/kaigai/ijimeg>)

만한 상황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본 협력자회의는 1995년 7월부터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 학교를 대상으로 이지메의 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몇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행하는 외에 아동·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생의 이지메 등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1996년 5월에 결과를 공표. 이하 “이지메 앙케이트 조사”라 한다.)와 이지메 문제의 사례연구 등을 행했다. 또한 1995년 12월에는 문부성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시정촌 교육위원회, 학교에 있어서의 이지메 문제의 대응 상황에 관한 총점검(이하, “이지메 총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했다. 본 보고는 1995년 3월의 “이지메대책 긴급회의” 보고와 이들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종합적인 대응에 관해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보고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이제까지의 문부성의 전문가 회의의 제언과 보고, 지도통지 등에서 이미 다루어진 것도 적지 않지만, 현 시점에 있어서의 이지메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에 관한 정리라는 관점에서 이들도 포함하여 설명하기로 했다. 학교관계자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본 보고를 참고하면서 다양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을 기대한다. 또한 관계자에게는 끊임없이 그 대응을 점검하고 각각의 실태에 따라서 창의·연구하여 다양한 대응이 있기를 당부한다.

이지메의 문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각각의 교육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일체가 되어 대응해 가면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일본 그리고 세계를 담당할 청소년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을 사회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지금이야말로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행동할 때”에 있다는 것을 호소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단순히 문부성에 대해서 보고하는 데 머물지 않고 모든 이지메가 해결되어 한사람 한사람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염원을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2. 이지메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

이지메 양케이트 조사 등에서 발견되는 배경

이지메의 배경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서 현 시점에서 특정 요인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각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앞서의 이지메 양케이트 조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면 다음에 열거하는 가정·학교·사회의 각각의 요인을 고려할 수 있고 그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 가정에 있어서의 요인

첫째는 가정에 있어서 유아기부터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생활태도가 충분히 교육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배려심과 정의감, 선악의 판단에 관한 지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가정은 본래 청소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반드시 그 기능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원의 장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부모-자녀간에 필요한 마음을 나누는 신뢰관계가 희박해 지고 있다.

청소년과의 대화의 부족으로 “이지메는 인간으로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채 있다는 경향도 엿볼 수 있다. 또한 가치관이 다양화하는 가운데, 부모 자신이 자녀에 대한 지도에 불안을 품고 있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부친이 가정에서 자녀와 접촉하는 기회가 적은 것도 이들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지메 양케이트 조사의 결과에서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지메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철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지메를 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는 이지메 했을 때의 기분으로서 후

회감을 느끼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재미있었다” “기분이 좋았다”는 등의 응답비율이 증가함과 아울러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뒤에 꺼림직한 기분이 들었다” “야단맞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등의 응답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지메는 재미있는 것 같다” “이지메는 큰 문제는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전체 청소년의 응답에 비해 높고, 정의감과 배려심 등에 관한 항목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나쁜 일을 해도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중·고등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에게 이지메의 체험이 많은 경향이 발견되어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는 내가 하는 일에 이런저런 간섭을 한다”는 응답비율이 전체보다 높고 역으로 “부모는 나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비율은 낮다.

보호자들이 이지메 문제의 원인·배경에 관해서 가정의 교육력(教育力)의 문제로 파악하기 보다는 청소년 자신의 정의감과 규범의식, 배려심 결여의 문제로서 파악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지메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의 보호자는 “행실지도에 자신이 없다” “자녀가 공부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전체보다 높고, 특히 중·고등학교의 보호자는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배우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높다.

2) 학교에 있어서의 요인

학교에 관해서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일의 척도로 아동·학생을 평가하는 경향이 외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개개인의 개성·특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 유연성이 결여되어 아동·학생의 다양한 실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것 등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학급 내에 신뢰, 배려심과 정의감, 혹은 이지메는 비겁한 행위라는 인식 등을 심어주는 지도가 철저하지 않은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 “약한 자를 이지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인식이 충분히 절저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학교가 하나가 되어 이지메에 대해서 외연한 자세로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 또한 교사 중에는 이지메 문제의 원인·배경으로서 가정교육의 문제를 첫째로 생각하여 학교의 지도방식, 교사의 지도력과 같은 학교교육의 문제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다는 등의 측면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지메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에서도 다음과 같은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즉, 이지메 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은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다” “선생님은 배려심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전체와 비교하여 낮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은 정당하지 않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전체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담임교사의 이지메에 관한 시각에 있어서는 이지메는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사는 약 9 할이지만, 이 중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초·중학교에서 약 7 할, 고등학교에서 약 5 할에 머물고 있다.

한편, “이지메는 아동·학생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2 할 전후, “기본적으로는 이지메는 청소년의 세계에서 허용되어야 할 문제이다”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초·중학교에서 약 1 할, 고등학교에서 약 2 할 발견된다.

교사에게 이지메 등의 원인·배경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 “가정의 교육력이 저하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가 약 85%, 다음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의감과 규범의식이 사라지고 있다”고 응답한 자가 약 7 할이고, 교사의 지도력과 지도방법 등 학교의 문제라고 응답한 자는 3-4 할에 머물고 있다.

3)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요인

지역사회에 관해서는 우선 첫째로 주민의 연대의식이 희박해져서 지역 전체가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의식이 저하하여,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자녀이더라도 좋지 못한 일을 하면 야단치든가, 지적해 주는 등의 일이 감소하고

있는 등 그 교육력이 저하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도시화의 진전 등 사회의 변화는 동시에 청소년의 놀이에 질적인 변화를 야기함과 아울러 그 장소와 시간을 한층 위축시켜서 청소년이 자연과 접촉하고 연령이 다른 친구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때문에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해서 청소년이 용감하게 살아가는 힘을 충분히 기를 수 없고, 청소년 사회에서 함양되어야 할 서로간의 알력과 마찰 등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과 노하우를 충분히 체득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이 지닌 에너지가 놀이와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서 적절하게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4) 사회 전체의 요인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이지메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식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지메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는 성인 사회에서도 존재한다는 등의 생각이 남아 있는 한 이지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각자가 어떤 사회에서도 “이지메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내면화하지 않은 것이 이지메를 낳는 토양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동질지향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은 이 “동질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약한 자와 이질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지메를 가하거나 이지메 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행동으로서 표면적으로 동료집단에 가담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인간관계가 획박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타인과의 깊은 유대를 회피하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하여, 이와 같은 경향이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청소년들간의 인간관계가 표면적, 형식적인 것이 되고 가는 상황이었다. 또한 성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등 모럴을 결여한 행동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지메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에서도 “사이가 좋았던 친구”를 이지메하는 케이스가 많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인간관계의 변화와 신뢰관계의 희박화를 보여주고 있다.

3. 이지메 문제에 관한 기본적 인식

우리는 이지메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이지메의 배경을 이상과 같이 분석했다. 이와 같은 이지메의 배경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지메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1) “약한 자를 이지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강한 인식을 가질 것

우선 이지메 당하는 청소년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철저히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지메는 누구보다도 이지메하는 청소년이 나쁜 것으로서 이지메 당하는 청소년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지메는 성인 사회를 포함하여 인간 집단에서는 반드시 발견되는 것이라든가 이지메 당하는 청소년들이야말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인내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과 생각도 뿌리 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이지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막고 또한 이지메의 책임소재를 애매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이 존재하는 한 이지메의 해결을 위한 대응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이지메는 허용될 수 없다, 이지메하는 쪽이 나쁘다는 명쾌한 입장을 외연한 태도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그것이 이지메 문제에 관한 기본적 인식의 첫번째이다.

이지메는 그 사람의 장래에 걸쳐서 내면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인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폭행, 공갈과 같은 범죄행위에 상당하는 이지메는 물론, 언어에 의한 이지메

와 무시하는 태도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이지메는 비겁한 행위로서 인간으로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청소년 개개인에게 철저하게 심어줘야 한다.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청소년에게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감각을 청소년들이 갖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지메는 청소년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생각도 인정될 수 없다. 이지메는 청소년들의 문제로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서 보호자와 교사를 비롯하여 성인 각자가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지메 하는 청소년과 이지메 당하는 청소년 외에 주위에서 이지메를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청소년이 많이 발견된다. 이지메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에서도 이지메에는 “가능한 한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 이지메를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행위도 이지메 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허용될 수 없다는, 이지메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청소년에게 심어줘야만 한다. 이지메를 중지시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하고, 혹은 보호자나 교사에게 알리는 등 이지메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정의감과 배려심을 청소년에게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이지메 당하고 있는 청소년과 이지메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지메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청소년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연한 태도를 보호자와 교사는 평소부터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2) 이지메 당하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성실한 지도를 행할 것

이지메 당하는 청소년이 이지메를 인정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이지메를 알리면 더욱 심하게 이지메 당하리라고 생각하여 보호자나 교사에게 말하지 않고 고민을 안으로만 삭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이지메는 외부에서는 발견하게 어려운 교묘한 방법과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호자와 교사는 이지메와 그 조짐을 지나쳐 버리지 않도록 항상 청소년들의 활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고민을 진지하

게 받아들여 청소년이 발하는 위험신호를 모든 기회를 통하여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이지메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이지메 당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표면적·형식적인 판단에 머무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지메는 특별한 아동·학생이나 특별한 학교의 일만은 아니다. 언제 자기 학습의 아동·학생이나 자기 학교에 심각한 이지메 사건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의식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건이라는 안이한 사고와 방심은 금물이며, 각 교사들이 이지메에 관해서 위기의식을 갖기 않으면 안 된다. 이제까지의 사례를 보면, 이지메 문제를 자신과 관련된 절실한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그다지 철저하지 못하였고, 이지메의 발견 등이 적절하게 행해진 예가 드물다.

또한 이지메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지메 당하고 있는 청소년을 끝까지 지킨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전 교직원이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이지메 당하고 있는 청소년의 입장에 서서 성실한 지도를 행하고 진지하고 외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심각한 이지메 사건을 방지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교사 개개인은 이를 자각하고 자신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이지메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를 봐도 교사가 진지하게 대응함으로써 이지메 문제는 상당한 정도로 해결되고 있다.

또한 이지메의 실태조사에 있어서 이지메 건수가 적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발견되는 데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이지메가 일어나지 않는 학교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지메 건수가 적은 것만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경솔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지메의 많고 적음과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만일 이지메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이지메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혹은 조기에 진정한 해결을 꾀하는가에 있다.

이지메의 많고 적음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이를 의식하여 이지메의 실태파악에 신중을 기하거나 불충분하게 행하는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생각을 시정함으로써 이지메의 발견과 실태파악에 교직원 전체가 성실하게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3) 이지메는 가정교육 방식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가정이다. 따라서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도시화의 진전, 핵가족화의 진행 등 가정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현저한 변화 속에서 가정의 교육기능 저하와 행실지도의 불철저와 같은 상황이 유발되고 있다. 이 사실은 이지메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풍요, 물질적인 만족은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마음의 풍요는 불충분한 채 청소년들간의 혹은 청소년과 성인, 성인들간의 신뢰에 기초해야 할 인간관계가 회박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다양한 생활체험, 사회체험, 자연과의 접촉, 다양한 연령집단 속에서의 놀이 등을 통해 그 건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한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생명과 인권의 존중, 선악의 판단, 정의감, 준법정신 등의 기본적인 윤리관, 혹은 자존심, 자율정신 등의 생활태도의 형성에 커다란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커다란 과제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이, 가족 전원이 협력하여 우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악한 사람을 이지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이지메 문제의 기본적인 관점을 우선 가정에서 책임 있게 청소년에게 철저하게 심어줘야만 한다. 이지메 당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는 보호자임과 동시에 다른 청소년을 이지메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보호자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가정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의 따뜻한 애정과 정신적인 뒷받침, 신뢰에 토대를 둔 엄격함이다. 부모-자녀의 대화와 접촉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의 모임이나 함께 하는 활동, 부모-자녀 동반 지역행사 참가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풍요로운 자연체험, 사회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할 필

요가 있다.

4) 이지메 문제는 교사의 아동·학생관과 지도방식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

이지메의 배경으로서는 이미 설명한 복잡한 요인이 서로 얽혀있다고 생각되지만, 이지메는 일반적으로 약한 자, 집단과는 이질적인 자에 대해서 공격 또는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이 많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개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차이를 서로 인정해주는 것의 중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왔다. 말하자면, “동질성에 사로잡힌 사회”였다. 그리고 이것이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료와 어울리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심정이나 무리를 해서라도 동료와 같아지는 것이 이지메 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책이 된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다. 나아가서는 사귀기 위해서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으면 이지메 당하기 때문에 라는 소극적인 이유에서 행동을 함께 하는 표면적인 교우관계의 예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청소년들의 개성의 신장이나 자아의 확립, 풍요로운 정서 함양의 관점에서 좋지 않은 것임은 제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도한 동질지향을 배제하여 개체를 소중히 하고 개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와 그 기초가 되는 새로운 가치관을 함양한다는 아동·학생관에 입각하여 지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이지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개성의 존중과 개체에 따른 지도를 보다 철저하게 할 것이 요망된다.

청소년들은 한사람 한사람 다양한 개성을 지니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는 존재이다. 교사는 이 개성을 존중하여 청소년의 인격이 보다 원만하게 발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아동·학생관, 지도관으로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교과지도에 있어서도 개체에 따른 지도를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가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수업을 진행함과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이 규율과 정의와 더불어 배려심이 있고 맑고 즐거운 것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학생지도를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의 재검토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개성과 차이의 존중은 교과지도와 학생지도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도덕교육, 마음의 교육을 통해서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고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하는 태도 등을 육성하는 것은 이지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불가결하다. 이 때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아름다움과 즐거움 등을 깨닫게 하고 발달단계에 따라서 죽음과 자연에 관해서도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나아가서 교사의 무의식적인 언동이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또한 교내폭력이 발생하거나 수업이 성립될 수 없는 분위기일 때 이지메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 교사의 과도한 처벌이 이지메에 대한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모든 관계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일체가 되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 중요한 것은 이지메의 해결을 위해서 관계자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지메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 모두가 부모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청소년의 교육환경과 사회환경을 형성하는 사회의 직업인으로서 적지 않은 책임을 갖고 있다. 각자가 그 책임을 자각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가능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감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의 이지메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토대 위에 이지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와 관계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 일체가 되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지메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매스미디어의 위상과 각종 잡지 등 유해환경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TV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타인을 이지메하는 행위를 통해 웃음을 유도하는 것을 사회의 다수가 용인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는 데에는 강하게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타인을 이지메하는 인권과 관련된 비열한 행위를 웃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경향이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주의를 기울여 현명한 시청자로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가치관이 다양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무엇이 옳바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는 청소년

들이 TV의 영상 등을 통해 타인을 이지메하는 행위를 무의식 중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모방하여 즐기거나 재미있어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TV 등이 방송기준과는 무관하게 폭력과 죽음에 관하여 청소년들에게 미칠 중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안이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풍조가 청소년들의 마음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지역을 단위로 한 대응도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는 필요 이상으로 이지메 사건을 학교 내부로만 축소시키지 말고 보호자, PTA는 물론 평상시부터 교육센터, 아동상담소, 인권옹호기관, 경찰 등의 관계기관, 청소년단체와 스포츠 단체 등의 관계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실태에 따라서 볼런티어 단체 등과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향한 구체적인 대응

이지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가정·지역사회, 학교, 교육행정의 관계자 전원이 서로 협력을 기하면서 각각의 입장의 과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착실하게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이지메 대책 긴급회의”의 보고(1995. 3)에서 다루어진 당면 대책을 토대로 하면서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정·지역사회, 학교, 교육행정기관은 어떻게 대응을 진행해 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구체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가정·지역사회

(1) 가정교육의 중요성의 재인식

이지메 문제에 관한 기본적 인식에서도 지적인 대로 이지메는 가정교육의 존재방식과 밀접한 관련되어 있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고와

태도, 즉 선악의 판단과 정의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약한 이를 돕는 용기 등을 청소년에게 함양시키는 일차적인 책임은 우선 가정에 있음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항상 청소년의 생활태도에 주의하고 선악의 판단과 정의감 타인에 대한 배려심 등이 결여되지 않도록 평소부터 세심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깊은 애정과 신뢰가 기반이 되는 부모-자녀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약한 이를 이지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우선 보호자가 강하게 가져야만 한다. 보호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활태도를 부단히 되돌아보고 자녀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자 자신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스스로의 중대한 책무를 충분히 자각해야 한다.

(2)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가정 만들기

①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관심

가정은 깊은 애정과 신뢰로 결합되어 강한 인간관계로 유지되는 장소여야만 한다. 특히 이지메 당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정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춘기에는 이지메를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수치심과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은 보호자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채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정은 이와 같은 청소년의 심정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감성을 가져야만 한다.

청소년에게 가정이 진정으로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가 이지메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이지메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여 자녀가 발하는 위험신호와 자녀의 변화를 예민하게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호자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지메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를 보면, 가정의 현 상황은 매우 미흡하여, 예를 들면 자신의 자녀가 이지메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보호자의 비율이 매우 적고, 계중에는 자녀는 이지메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지메는 없다고 응답한 보호자도 발견되는 실정이다. 보호자 스스로가 지금 다시 한번 자녀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충분히 관찰하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 가정의 존재방식이 청소년의 생활태도와 정서면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이지메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 부모-자녀의 접촉

다음으로 가정에서는 보호자 자신이 자녀와의 접촉의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자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기를 바란다. 볼런티어 활동이나 지역행사 등에 부모-자녀가 참가하거나, 가족이 함께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평소부터 배려하거나 때로는 하이킹 등의 야외활동을 자녀와 함께 즐기는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모-자녀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의 보호자들간의 정보교환과 다양한 협력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지역 단위의 대응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교육에 있어서의 부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부친의 자녀양육 참가가 당연한 책임으로서 요청된다. 이지메 양케이트 조사의 결과에서도 응답한 보호자가 모친인 경우, 이지메 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의 보호자가 자녀의 행실지도에 관해서 “배우자가 비협조적이다”며 불만을 갖고 있는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행실지도에 자신이 없다”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응답비율이 전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자녀의 행실지도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모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부모-자녀의 접촉시 공부나 진학과 같은 단일한 척도로 자녀를 평가하거나 정신적인 억압을 가하지 않고 폭 넓은 시각에서 자녀의 성장을 따뜻하게 지켜보는 것, 자녀가 가진 특성·개성을 충분히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배려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인생의 목표와 학습의 목적, 꿈과 희망과 같은 사항에 관해서 부모-자녀가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도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③ 가정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가정에서는 자녀가 고민을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지메를 당하게 되면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의연한 자세를 평소부터 보여주고 자녀가 고민이나 곤란한 상황에 부딪쳐도 안심하고 보호자에게 고민거리를 상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의 자살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이들 자살사건 중에는 이지메와 관련이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청소년들이 인생의 행복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청소년의 자살방지를 위해 학교의 대응을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정이 생명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올바르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심각한 이지메는 어떤 청소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모든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지녀야 한다.

(3) 가정과 학교의 역할분담

이지메 문제를 비롯하여 아동·학생의 교육에 관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항상 긴밀한 협력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함과 동시에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3자간의 교육의 밸런스를 유지할 것이 요망된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의 행실지도는 가정이 우선 책임을 지고 대처해야 할 사항이고, 이지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가정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종래에는 학교 밖에서의 아동·학생의 다양한 비행사건에 관해서 그 다수가 우선 학교로 귀속되어 학교에 그 대응이 요청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경우, 가정이 책임감을 느끼고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은 어려운 것이다.

가정의 책임이 앞으로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학교는 가정에 요청해야 할 것은 요청하는 한편, 학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가정의 역할을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지역 단위의 적극적인 대응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사회체험, 생활체험, 자연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단체와 스포츠단체 등 지역내 각종 단체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민간활력을 도입한 각종 프로그램의 전개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지역 단위의 운동으로서 문부성이 예시한 다음과 같은 대응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대응사례

□ 이지메 근절 추진본부의 설치 등

시정촌에 교육위원회, 학교, PTA, 사회교육시설, 청소년교육시설, 법무국, 가정재판소, 아동상담소, 아동위원, 아동관, 경찰, 소년보호센터, 자치회, 부인회, 청년단, 어린이회, 상공회의소, 스포츠소년단, 보이 스카우트·걸 스카우트 등의 청소년단체의 대표, 지역의 퇴직 경관이나 스포츠 지도자 등의 협력을 얻어 캠페인의 실시주체가 되는 조직으로서 “이지메 근절 추진본부(가칭)”를 설치한다.

이와 같은 조직이 주체가 되어 예를 들면 이지메 문제를 테마로 하는 시민대회의 개최나 도시선언의 채택, “이지메 근절 강조의 달”의 실시, 또는 청소년이 참가하는 “이지메 근절 1일 시의회”의 개최 등과 더불어 포스터 배포, 현수막, 애드벌룬 등에 의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 예를 들면 각 중학교 교구(教區) 단위로 조직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스포츠단체 및 사회교육단체의 협력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의 스포츠 관계단체나 지도자 등의 협력하에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 동료와의 연대감과 협조정신, 패어 플레이의 정신 등을 청소년에게 함양시키는 지도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사회교육단체나 지도자 등의 협력을 얻어 청소년 볼런티어

활동이나 자연체험활동 등 사회교육활동을 통해 배려심과 약한 이를 돕는 용기 등을 체득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인재뱅크의 설치

“이지메 근절 지역 리더”(가칭) 인재뱅크를 설치하여 PTA 관계자나 지역의 청소년활동 리더, 퇴직 교원, 퇴직 경관 등의 협력을 얻어 볼런티어로 등록시키고 교외 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을 지도하거나 상담상대가 되도록 한다.

또한 이 “이지메 근절 지역 리더”를 중심으로 하여 “인사하기 운동”이나 “먼저 말 걸기 운동” “다른 집 아이 꾸짖기 운동”이나 유해자판기 철거 등 지역의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지역 마스터 플랜의 책정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역의 대응방침, 지역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사업 등을 수록한 “이지메 근절 지역 마스터 플랜”(가칭)을 책정한다. 예를 들면, 지역의 사회교육단체, 스포츠 단체, PTA 등의 협력을 얻어 패밀리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대회 등을 개최하여 부모-자녀가 함께 하루를 즐기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볼런티어·각종 체험활동 등의 지역행사에 부모-자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될 수 있게 한다.

□ 의식계발 운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지메 문제에 관한 의식계발을 위해 각종 운동을 전개한다. 예를 들면 지역의 TV·라디오, 신문이나 각종 공보 등 미디어에 의뢰하여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교육센터나 아동상담소, 인권옹호기관, 경찰 등 상담창구 기관의 협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주민의 의식 계발을 위한 관계기관 연례회의나 일반인이 참가하는 청소년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가정의 의식계발을 위해 가정 대상의 팜플렛 등 각종 자료를 작성·배포하거나 보호자, 지역주민 및 교사간의 공통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PTA가 주체가 되어 협력추진회의를 설치한다.

2) 학 교

(1) 학교운영 개선의 기본자세

학교는 청소년들이 즐겁게 배우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 청소년 개개인이 중요하게 간주되어 자신의 존재감과 자기실현의 즐거움을 실감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는 이지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커다란 책임을 갖고 있다.

이지메를 용납하지 않는 학교, 또는 이지메가 일어나지 않는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끊임없는 학교운영의 점검·개선의 노력이 요망된다. 이 때 우리는 청소년의 입장에 입각한 학교운영과 개방적인 학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청소년의 입장에 선 학교운영

학교와 지역의 실태에 따라서 창의적인 연구·노력에 기초한 학교운영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유연성이 결여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여기에는 학교·교사의 무사안일한 의식, 전체 학교 단위의 대응의 전제가 되는 충분한 논의와 평가를 하지 않는 풍조, 나아가서는 학교의 대응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은 일부 보호자에 대한 배려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지메 문제는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학교에 공통된 과제로서, 개별 청소년의 입장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요청된다. 종래의 관행에 집착하지 않고 학급이나 학년 경영의 방식을 포함하여 학교운영 방식을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생지도에 있어서 두발이나 제복의 규칙을 비롯한 지나치게 사소한 교칙 등도 발견된다. 청소년 개개인의 인격 향상·발달을 지향하는 “개체에 따른 학생지도”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지메 문제와 관련하여 결석에 대한 처리나 전학 문제, 클라스 교체나 그룹 교체 등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특별한 사례나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지도가 불가능해진다는 생각에서 획일적인 처리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각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학급·학년 경영의 방식을 재검토함으로써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진정한 모습이나 이지메의 실태를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다. 물론 학교는 어디까지나 집단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교육·지도의 장으로서, 일정한 제약이 수반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개성의 존중이 무책임한 자유방임이나 청소년에 대한 영합주의로 빠지는 것은 학교교육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것이 종래 학교운영의 재검토, 개선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열린 학교

이지메는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지메의 정보를 보호자 등에게 제공하여 이해와 협력을 구하거나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을 꾀하는 등 이른바 열린 학교만들기는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평소부터 학교의 대처방침과 연간 지도계획, 이지메의 대처사례를 비롯한 이지메에 관한 다양한 정보 등을 적시에 관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열린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내에서 학급간 혹은 학년간의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급 중심 또는 교과 중심의 닫혀진 의사소통 구조를 재검토하여 교장의 리더쉽 하에 학교 전체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내부적으로 열린 학교”를 실현함으로써 외부에 대해 열린 학교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외부에 대해 열린 학교 만들기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학교와 보호자·지역주민들과의 일상적인 교류와 의사소통으로서, 학교가 그 교육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지역의 교육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지메 총점검에 따르면 보호자·지역주민에게 수업을 수시로 공개하거나 학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학교도 적지 않다. 보호자·지역주민들의 수업참관이나 교육상담의 요청에 주저 없이 응함으로써 학교가 보다

친숙한 존재가 되고 이지메 문제를 비롯한 학생지도상의 과제해결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자의 다양한 의견과요망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 등의 운영방식에 관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이와 같은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방안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또한 학교 및 교육위원회 관계자 이외의 전문가들이 학교의 이지메 문제 대응상황에 관해서 조사·검토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행하는 대응상황에 관한 점검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과 평가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도는 앞으로의 열린 학교 운영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① 실효성 있는 지도체제의 확립

□ 학교 단위의 대응

■ 전교직원의 상호협력

이지메 문제예의 대응에 있어서는 교사가 체면 등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학급 내에서만의 문제해결을 고집하여 적절한 대응의 기회를 놓치거나 역으로 자신의 학급 이외의 문제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인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지메의 조기발견과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학급 담임 자신의 자각과 책임있는 지도가 가장 절실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지메는 외부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한 해당 교사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생지도 주사(主事), 학생주임, 학교 사무직원 등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양호교사, 학교 영양사, 학교 사무직원 등 모든 교직원이 평소부터 학교 전체적으로 아동·학생의 학교생활을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지도 주사나 양호교사 등 일부 교사에게만 대응을 일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교직원 상호간의 긴밀한 정보교환에 의한 공통이해 하에서 이지메 문제에 대한 대응에 전 교직원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 대응체제로서는 기존

의 직원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외에 각 학교의 실태에 따라 이지메 대책위원회 등 전교적인 조직을 설치하여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교장의 리더쉽

전교적인 조직을 설치해도 표면적, 형식적인 회의를 거듭하는 것만으로는 이지메 문제에 대한 유효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급담임, 학생지도 주사, 보건주사, 양호교사, 스쿨 카운셀러를 비롯한 각 교직원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결하다. 이 때 특히 요청되는 것이 교장의 강력한 리더쉽이다. 교장의 적절한 지시하에 기본적 인식과 대처방침 등에 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확고한 공통이해에서 입각하여 교장, 교감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이 일치협력해서 학교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지메의 호소 등을 토대로 하여 교장이 이지메에 관한 대응을 지시하거나 정보를 전달할 경우, 교감이나 학생지도 주사, 학급담임 등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시보고를 받는 등 그 해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지메의 호소 등을 학급담임이 혼자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되고 신속하게 교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실천적인 교내연수의 실시

이지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사 한사람 한사람이 아동·학생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카운셀링에 관한 지식·기법 등 아동·학생의 마음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 둘 필요가 있다. 본 협력자회의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충분한 교내연수가 시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각 학교는 이지메 문제에 관한 교직원의 공통이해와 지도력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전 교직원의 참가에 의한 사례연구나 카운셀링 연습 등 실천적인 내용이 있는 교내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카운셀링 등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협력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교장이 이와 같은 교내연수가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점과 지시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양호교사와 보건주사의 역할

양호교사가 보건실에서의 아동·학생의 모습에서 이지메의 징후를 발견하는 예가 적지 않다. 양호교사는 그 직책상 아동·학생의 심신의 건강에 관한 지도에 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고 있는 아동·학생의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예도 많다. 양호교사를 학생지도에 관한 교내조직에 참가시키는 등 교무 분장상 적절하게 배치함과 아울러 적절한 자질·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주사로 충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아동·학생과의 신뢰관계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양호교사가 지닌 정보를 교직원 전체가 공유하면서 이지메 문제의 해결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와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보건주사는 학교 보건에 관한 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보건계획의 책정 등 보건에 관한 기획 입안, 연락·조정, 학교보건위원회 등 보건에 관한 조직활동의 추진 등 학교보건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지메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 보건주사는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동·학생의 마음의 건강에 관한 교내연수를 기획하고 마음의 건강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력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학교보건위원회를 통해 보호자, 학교의사 및 지역의 관계기관 등과 협력을 기하는 등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의 강화

■ 교육상담기관 등과의 협력

이지메 문제への 대응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배치된 스쿨 카운셀러 등과의 협력 외에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카운셀링 등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경험이 있는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센터나 교육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적인 교육상담원, 주임 아동위원, 아동상담소 등 아동복지 관계기관의 상담원이나 케이스 워커, 인권옹호위원이나 아동 인권 전문위원 등 전문가들과 평소부터 협력을 긴밀히 하여 교육상담 기능을 충실히 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경찰과의 협력

심각한 이지메 사건의 경우 이지메 하고 있는 아동·학생에 대한 지도는 어디까지나 학교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경찰서와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폭행이나 공갈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이지메 사안은 학교의 지도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학교나 교육위원회 등의 관계자들은 경찰과의 협력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청소년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는 당연한 인식에 입각하여 의연한 대응을 취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과의 협력은 일상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그에 관해서 교사와 보호자들간의 공통된 이해를 평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② 사실관계의 구명 등

□ 사실관계의 구명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구명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실제 케이스에서는 이지메의 징후를 발견하더라도 이지메 하는 측과 이지메 당하는 측의 주장에 차이가 있거나 이지메 당하는 아동·학생의 호소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경시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는 이지메 당하고 있는 아동·학생의 심리적 압박감을 정확하게 파악함과 아울러 당사자만이 아니라 교우관계 등에 관한 정보수집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의 평가를 신속·정확하게 행해야만 한다. 이 때 해당 정보의 입수방법 등에 관해서 다른 아동·학생들에게 안이하게 누설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만 한다.

□ 이지메 피해와 상담 등

이지메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지메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지메에 관해서 교사와 상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사는 이지메의 실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예가 적지 않다. 또한 보호자도 자신의 자녀가 이지메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거나 다른 청소년을 이지메 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많은 경우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청소년들은 “선생님에게 말한 것이 모두에게 알려지면 더 심하게 이지메 당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여 교사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러나 실제로는 교사와 상담을 하여 교사가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청소년들이 판단하기에 절반 가까이 이지메가 해결되어 “더 심하게 이지메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조사결과는 무엇보다도 아동·학생에 대해서 전 교직원이 이지메 당하고 있는 아동·학생을 반드시 지켜준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지메를 방관하는 것은 이지메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이지메를 교사나 보호자 등 성인에게 알리는 것은 비난 받기는커녕 정당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지메 사실을 알려 준 아동·학생에 대해서는 그 행동력과 배려심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보수집의 다양한 연구

이지메에 관한 정보수집과 실태파악의 방법은 각 학교마다 다양하지만 이지메 총점검의 결과에 따르면 투서함의 설치나 이지메관련 정보를 접수하는 팩시밀리의 설치, 쉬는 시간에 교내를 순회하면서 청소년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시도 등이 발견된다. 교육상담의 충실이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 보호자와의 긴밀한 협력

이지메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가 이지메에 관해서 교사와 상담하는 케이스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사실은 교사나 학교에 대한 신뢰가 불충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로부터 이지메에 관한 호소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불안감과 고통 등에 대하여 겸허하게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지메 문제를 학교에서만 해결하려 말고 가정, 나아가서는 PTA 등의 협력을 요청하여 관계자 전체가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③ 이지메하는 아동·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지도

□ 이지메하는 아동·학생에 대한 지도

■ 충분한 교육적 배려와 의연한 대응

이지메를 행한 아동·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고립감·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하에 이지메의 비인간성과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려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도를 철저히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보호자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충족감을 느낄 수 없는 심리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학교생활에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인간관계와 생활체험 등을 풍요롭게 하는 지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동·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학교 외부의 다른 장소에서 특별한 지도계획을 세워서 지도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지도의 내용, 방법, 기간, 장소 등은 학교나 아동·학생의 실태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설정하고 사전에 아동·학생 자신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지메의 상황이 일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이지메 당하고 있는 아동·학생을 지키기 위해 이지메하는 아동·학생에 대해서 출석정지의 조치를 강구하거나 경찰 등 적절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구하여 엄격한 대응책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폭행과 공갈 등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이지메를 행하는 아동·학생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지도를 행할 때 청소년의 이지메를 인정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보호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와의 협력하에 지속적으로 강하게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지메를 한 아동·학생에 대해서는 이지메를 계속 반복하거나 이지메 당하는 청소년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하게 지도할 것이 요청된다.

□ 아동·학생이 자기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학교운영 및 학습경영

■ 세심한 학습지도

이지메 하는 아동·학생들은 기본적인 윤리관이 함양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외에 종종 학업부진의 돌파구로서 약한 아이를 이지메 하는 행동을 취하곤 한다. 이지메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에서도 이지메 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은 공부가 “싫은 편”이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지메 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모든 아동·학생이 스스로 참가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수업을 연구하는 등 개체에 따른 지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지도계획의 연구를 비롯하여 교재·교구의 연구와 개발, 학습형태와 지도체제의 연구, 교육기기의 활동 등 외에 개별 지도나 그룹 지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습의 틀을 초월한 학습집단의 탄력적 편성 등 지도방법의 개선도 중요한 사항이다.

학습이 뒤쳐진 아동·학생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충지도를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학습경영상 및 학교운영상의 배려

이지메를 용납하지 않는 학교, 이지메가 일어나지 않는 학교 만들기에 있어서는, 아동·학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는 학교, 청소년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학교, 각자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학교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여기서는 특히 학습경영의 중요성, 학습담임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특히 지적하고자 한다. 연도 시작 무렵의 아동·학생의 생각과 소망, 불안 등을 토대로 하여 학습 담임은 학년 초의 학생들과의 만남을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수업에는 그다지 자신이 없는 아동·학생이 학교행사나 부 활동 등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상의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④ 이지메 당하고 있는 아동·생도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 긴급피난으로서의 결석

현재 학교 교육제도에서는 아동·학생이 자유롭게 쉬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지메를 당하고 있는 아동·학생에게는 이지메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응을 추진하여 긴급피난으로서의 결석이 탄력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학교를 쉬는 것에 관한 예외 인정은 지나치게 신중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용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 때 학교는 보호자와 충분히 협력하고 향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연구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나

위도 없다.

□ 학급 교체 등 탄력적인 운용

■ 학급교체 등의 유연한 대응

이지메 문제への 대응으로서 이지메 당하고 있는 아동·학생 또는 이지메 하고 있는 아동·학생의 그룹 교체나 좌석 교체, 나아가서는 학급 교체를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대처방식이 교사나 학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나머지 지금까지는 매우 신중했지만 지나치게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 탄력적인 학급편제 교체

종래 학급은 1년 또는 2년간을 단위로 편제를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운영방법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청소년의 입장에 기초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년 전체의 교사가 집단지도할 수 있는 체제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년 중도의 편제 교체를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학급 담임만이 아니라 교과담당 교원, 부담임 등의 충분한 협력을 요청하는 등 관계교사의 집단지도의 시도를 추진하여 복수의 교사가 청소년을 지도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와 같은 탄력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전교(轉校) 조치의 탄력적 운용의 철저

아동·학생이 이지메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희망, 관계학교 교장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교를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도 제도로서는 인정되어 왔지만, 이지메 당하고 있는 아동·학생의 입장에 입각한 유연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뒤에 설명할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 등과 아울러 어디까지나 이지메 당하고 있는 아동·학생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보다 탄력적인 전교 조치의 시행이 요망된다.

□ 졸업할 때까지의 계속 지도

아동·학생이 이지메에 관해서 교사에게 상담하거나 통보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도리어 심한 이지메를 당하거나 혹은 새로운 이지메의 대상이 되는 케이스도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나타나고 있다. 교사는 아동·학생을 끝까지 지켜주는 자세를 견지함과 아울러 그 당시의 지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지메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의 깊게 계속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지메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교사의 눈을 피해서 음습한 이지메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아동·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수시로 지도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적극적인 학생지도 등

□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통한 지도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개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과지도뿐만 아니라 학생지도에 있어서도 개인에게 적합한 지도가 충분하게 이루어져 왔다고는 볼 수 없다. 학생지도의 본래적인 의의는 적극적으로 아동·학생의 인격향상을 지향함과 아울러 학교생활이 아동·학생 개개인 및 학급과 학년 혹은 학교 전체에 있어서도 의미있고 흥미로우며 충실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지도의 기능이 학급활동(홈 활동), 도덕시간이나 각 교과지도 시간은 물론 학교생활의 모든 장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이 거듭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지메의 해결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단체활동 등의 추진과 청소년 자신의 대응 지원

아동·학생이 밝고 활발한 학교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학급활동(홈 활동)이나 어린이회·학생회 활동 등 아동·학생의 자주성·주체성을 기르는 활동을 통해서 아동·학생 집단에 내재해 있는 정화기능을 현재화시키고 아울러 원만한 인간관계와 연대감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활동 시간에 이지메 문제에 청소년 자신들이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을

충분히 배려하여 학급활동(휴롬 활동)을 비롯한 특별활동의 연간의 지도계획을 재검토함과 아울러 예를 들면 롤 플레잉 등의 방법을 도입한 교육활동의 연구를 행하는 등, 그 내용의 충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볼런티어 활동이나 자연체험, 다양한 연령집단 속에서의 활동 등 인간관계와 생활체험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아동·학생의 사회성과 정서를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 신뢰관계의 형성

학생지도의 기반은 무엇보다도 우선 교사와 아동·학생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수용과 공감의 관계를 확보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이지메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에서도 이지메 당한 체험이 있는 청소년은 “선생님을 믿을 수 있다” “선생님은 배려심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사와 청소년 사이에 공감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이지메 체험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지메 당하고 있는 아동·학생은 수치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지메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지메 사실을 밝히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평소부터 학생과의 마음의 채널을 형성하는 등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전제이다.

교사는 이지메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그 철폐에 모든 힘을 쏟음과 아울러 이지메 당하고 있는 학생을 끝까지 지킨다는 자세를 평소부터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의 이지메는 단순한 장난과의 구별이 대단히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자신의 학급이 단순히 밝고 유쾌한 분위기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정의감, 인권의 존중, 배려심 등이 학급 내에 함양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이 요청된다.

□ 학생·보호자와 접촉하는 시간의 확보

■ 학생이나 보호자와의 접촉

이지메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학생과 접촉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에 쫓겨 이와 같은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곤란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학교가 학생 교육의 장으로서 특히 이지메는 현재 학

교교육의 중요과제의 하나인 이상 이와 같은 시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운영은 어디까지나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므로 회의와 행사의 재검토 등 교무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무엇보다도 학생이나 보호자와 접촉하는 기회의 확보와 충실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깊은 신뢰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청소년과의 충분한 접촉이 불가결하다. 평소부터 예를 들면 학생과 함께하는 급식, 놀이, 청소활동 등을 통해 학생과의 접촉 기회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이지메 총점검의 결과에 따르면 각종 회의, 그 운영방법, 교내조직의 형태를 재검토하여 청소년과의 접촉을 위한 시간의 확보, 보호자와의 정기적인 교육상담 기회의 설정 등 다양한 연구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부활동을 통한 지도와 배려

부활동은 학교교육 활동의 일환으로서 학급이나 학년을 떠나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학생의 몸과 마음의 발달과 친구만들기, 교과를 초월한 실제적인 활동이나 교사와의 밀접한 접촉 등을 할 수 있는 장으로서 그 교육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부활동의 본래적 기능을 활성화하여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은 이지메 문제에 대한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부활동에 있어서도 승패나 부의 규율에만 집착하여 각 학생의 인격을 경시하는 등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하여 이지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연일 부활동에만 매달려 다른 학생과의 접촉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는데, 부활동 지도에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과의 접촉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는 부활동 지도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자발성·자주성을 존중하면서 학생들간의 인간관계와 각자의 개성을 배려함과 아울러 교사가 다른 학생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교무 분장을 비롯하여 학교 전체적으로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활동의 고문과 담임 등과의 정보교환도 이지메 문제에 대한 유효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주체성의 발휘가 가장 중요하며 교육위원회 등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지메 총점점의 결과에 따르면, 부활동이 없는 날을 설정하여 교사와 학급의 학생들이 접촉할 수 있는 교육상담의 기회를 확보하거나 부활동 종료 후의 하교지도를 이지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등의 시도도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등 여러가지 대응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나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가 행해질 것을 기대한다.

□ 청소년의 친구의식의 변화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심리 때문에, 혹은 이지메를 받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그룹에 가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이를 이지메하는 사례보다도 보통의 관계나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간에 이지메가 발생하는 예가 많다. 청소년들의 동료의식이나 교우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들간의 신뢰관계의 희박화 또는 결여 현상을 엿볼 수 있다. 학교는 이와 같은 변화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이지메의 발견과 대응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교교육 활동을 통해서 우정의 중요성이나 마음으로부터의 신뢰관계 형성 등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지도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인간관계의 변화, 특히 그룹 내의 인간관계의 변화를 감안해 볼 때 학급경영이나 그룹지도의 방식이 형해화(形骸化)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반별 지도에 관해서는 그 교육적 의의는 인정되고 있지만, 쓸모 없는 대립을 야기하거나 반내에 약한 입장에 있는 학생에 대한 비난이나 배척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여 그 실시방법에 관해서 부단한 재검토와 연구·개선이 필요하다.

□ 상담하기 용이한 체제 만들기

학생들이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교육상담실을 학생 지도실과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거나 그 방을 상담하기 쉬운 분위기가 되도록 연구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 지도부와는 별도로 교육상담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현지지도의 결과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던 교육상담의 기록 등을 적절하게 정리·보관하여 교육상담이 조직적, 계속적으로 실시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한편 정신과 의사를 학교의사로 위촉하는 것도 유효하리라 생각된다.

⑥ 가정·지역사회와의 협력

□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이지메 문제는 학교에서만 해결하려 고집하지 말고 가정과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가정·지역사회 사이에는 평소부터 학생들의 풍요로운 성장발달에 중점을 두고 진정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학교는 “열린 학교”의 관점에서 평소부터 이지메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보호자 등의 이해·협력을 구함과 아울러 각 가정에서의 이지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의 결과, 개별 이지메에 관한 정보는 물론, 이지메 문제와 관련된 통지나 자료 등의 일반적인 정보조차 보호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학교가 보호자와의 협력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지메사건의 당사자를 필요 이상으로 배려하거나 다른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경우, 또는 학교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심리 등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교운영 방식은 앞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지메 행위나 이와 관련있는 학생들의 학교 밖에서의 행동 등에 관해서 학교로 제보되는 정보에 대해 학교가 성의있게 대응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 PTA 등과의 협력

학교는 이지메 문제에 관해서 보호자나 지역의 대표자와의 의견교환의 기회를 마련하는 외에 널리 지역으로부터 이지메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등의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지메 문제를 협의하는 장으로서 중학교구 단위로 PTA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청소년단체나 스포츠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PTA와 학교간의 이지메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의 장을 확보하여 적

극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열려진 학교운영이 필요하다.

□ 간담회 등의 형태

학교와 보호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한층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PTA 활동의 활성화가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 개별 회원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형태를 연구함과 아울러 이지메 총점검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휴일 날 학교 외의 장소에서 PTA 간담회나 보호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개최시간이나 개최장소를 제검토하여 많은 보호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솔선하여 노력함으로써 보호자의 참가나 PTA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교육위원회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위원회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대응을 행정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위원회의 대응에 있어서는 학교지도사무 담당과뿐만 아니라 생애학습·사회교육 담당과나 체육·스포츠 담당과 등에서도 자신의 과제로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사관리 사무의 담당과도 인사면에서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지메 문제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있어도 경시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 담당과에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을 도모하면서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위원회 내부에서 이지메 문제에 관한 회의를 조직하는 등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예도 적지 않은데, 관계부서와의 협력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교육위원회가 하나가 되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진행해 갈 필요가 있다.

(1) 가정교육에 대한 지원의 충실

거듭 지적했듯이 이지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정이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성윤리관과 예의범절을 함양시켜 주는 역할은 제1차적으로는 가정에 있다. 가정의 교육력의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육위원회는 보호자나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계발활동이나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의 시책의 추진상황을 재검토하고 가정교육의 중요성,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사회의 문제, 행실지도의 중요성, 자녀양육의 과제나 이지매 문제의 현실태 및 대처방법에 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와 정보의 제공, 상담체계의 정비, 부모-자녀의 공동체험 기회의 충실, 부친의 가정교육 참가 지원 등 가정의 교육기능의 충실을 도모하는 시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런티어 활동, 자연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모-자녀가 함께 참가하는 이벤트를 기획·실시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부친의 직장참관이나 업무의 모의체험 등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보호자 등이 자주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도 잊어서는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의 의의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거나 학교와의 협력에 비협조적인 보호자, 혹은 바빠서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에 참가할 수 없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세심한 시책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기회를 충실히 함과 아울러 지역에 카운셀링 지식·기법을 구비한 가정교육관계의 지도자를 양성·배치하는 것과 지역의 사회교육시설에 가정교육에 관한 지원기능을 부가하는 것, 일상적인 생활권 속에서의 자녀양육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가정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PTA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위원회가 스스로 각 지역의 PTA 단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가정교육 학습의 개설 등 PTA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교육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자료 등을 PTA 단체에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각 학교가 PTA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 지역의 실상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법을 제시하는 등 그 지원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학교에서의 대응에 대한 지원의 충실

① 학교의 대응에 대한 항상적 지원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교육위원회는 각 학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지메 문제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지도방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 학교의 실태에 따라 교내연수의 강사로서 지도주사나 교육상담 전문가 파견, 학생·교사에 대한 상담사업 실시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한다.

특히 곤란한 이지메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담당 지도주사 등을 파견하여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문제의 해결에 임하면서 교육활동의 확보를 위한 지도·조언이 가능하도록 교육사무소나 교육센터를 포함하여 교육위원회의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지메 총점검에서 교육상담원 등으로 지도 팀을 편성하여 전화상담 등의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학교나 가정에 대한 방문상담을 행하는 등의 예도 발견되었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교육센터의 직원으로서 임상심리사 등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② 교직원 배치를 통한 학교에 대한 지원

이지메, 교내폭력, 등교거부 등이 많이 나타나는 이른바 학생지도상 곤란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는 관리직의 등용, 교직원의 배치, 연령이나 경험을 고려한 교원구성의 방식 등 교직원 배치에 있어서 가능한 한 중점적, 우선적으로 행하도록 배려하여 인사면을 통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 인사에 노력하여 신규채용을 확보하는 등 지역 전체의 교원의 연령구성의 적정화를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소부터 학교방문 등을 통해서 각 학교 실태의 정확한 파악에 노력하고 학교지도사무 담당과와 인사관리사무 담당과가 이지메 문제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해서 충분히 정보교환을 행하여 공통의 이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③ 학교 대응상황의 점검

이지메 총점검의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교육위원회에서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생 혹은 보호자 대상의 리플렛이나 교사용 수첩 등 각종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의 자료도 임시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 교육장 회의나 교장회의 등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이지메 현지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 학교에서 이들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에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예를 들면 이들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그 취지가 어떻게 주지·철저화 되었는가 등 학교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도, 조언을 행하여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지메 문제에 관한 교내연수나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내용 등에 관한 점검도 필요하다. 학교의 주체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은 물론이지만, 대응이 불충분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주사를 파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행정으로서도 학교의 다양한 상황을 배려하여 가능한 것부터,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한 각종 회의의 개최나 조사보고의 요청, 각종 조사연구의 형태, 교원연수의 체계화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④ 출석정지 및 “전교” 조치의 탄력적 운용

□ 긴급을 요하는 조치로서의 출석정지 등

이지메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의 조치가 안이하게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지속적으로 충분한 사전지도를 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에서 특별지도를 하는 등 학교의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위원회가 이지메 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강한 촉구 등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한 뒤에도 계속 심각한 이지메를 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서의 출석정지를 포함한 엄격한 지도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둔다. 교육위원회와 학교는 이지메 문제 중에는 학교의 지도 한계를 넘는 경우

도 있다는 것, 출석정지의 조치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것 등에 관해서 평소부터 충분한 공통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석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서 출석정지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출석정지의 기간은 각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너무 오랜 기간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그 기간 중에도 보호자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를 계속 행함과 아울러 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학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도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교 전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전교” 조치에 대한 배려사항

이지메 당하고 있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이른바 “전교” 조치, 즉 취학해야 하는 학교 지정의 변경이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지역 학교로의 취학을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공립 초·중학교의 경우)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의 지도책임의 포기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와 보호자로부터의 전교 희망이 증가하리라는 걱정에서 이 조치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지메 당하고 있는 학생을 지킨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시기를 놓침으로써 이지메가 보다 악화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전교 조치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치가 행해졌을 경우 학생을 인계받은 학교에서도 이지메가 계속되지 않도록 해당 학생의 지도상의 유의사항 등에 관해서 이전 학교와 충분한 정보교환을 행해야 할 것이다. 이 때 교육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원조를 해야 한다.

⑤ 효과적인 교원연수의 실시

□ 모든 기회를 활용한 교원연수의 실시

이지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교사 각자가 교과와 도덕, 특별활동에 관한 높은 지도력을 함양하는 외에, 학급경영, 교육상담, 카운셀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지도력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학교에서는 충실한 교내 연수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육위원회에서도 체계적, 효과적인 교

원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위원회는 학생지도나 교육상담에 관한 교원연수의 충실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한 많은 교원이 이지에 문제에 관한 실천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의 충실을 가해야 할 것이다.

□ 세심한 연수 프로그램

교원연수에 있어서는 학교 지도의 중핵이 되는 학생지도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적·계획적인 연수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강자의 인선에 배려함과 아울러, 초임자, 중견, 관리직, 양호교사 등 수강대상자의 구분에 따른 세심하고도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관리직 연수에서는 구체적인 이지에 사례에 대한 리더쉽의 행사방식은 물론 이미 언급한 “청소년의 입장에 선 학교운영”과 “열린 학교”라는 학교운영 개선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지에 문제 해결과 교육상담의 충실을 위한 실천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수내용·방법에 관해서는 심리, 의료 등의 전문분야는 물론, 각종 민간 교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강의형식만이 아니라 사례연구나 카운셀링 연습을 실시하는 등 수강자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천적인 지식·경험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상담이나 카운셀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기간의 전문연수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⑥ 교육상담체제의 충실

□ 상담체제의 정비와 홍보

■ 교육상담원의 적극적인 배치

학생과 보호자, 교사 등이 부담 없이 안심하고 다양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나 교육센터 등의 상담체제를 충실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상담원의 경우, 1995 년부터 이지에 문제 관련 교육상담원의 배치를 위한 지방재정 조치가 강구되고 있고 1996년에는 대폭적인 예산확충이 있었다. 각 시정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조치를 토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도도부현에 따라 그 상황에 커다란 격차가 있는 실정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상담원의 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 요망된다.

종래에는 교육상담원으로 퇴직교원이 많이 임용되었지만, 임상심리사나 카운셀링·교육상담에 관해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등 각 지역에 적합한 인재를 폭 넓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상담욕구를 배려한 연구

상담체제에 있어서는 이용자, 특히 이지메 당하고 있는 학생의 상담욕구를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상담기간을 연장하거나 야간에도 실시하는 등 상담창구의 개설시간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내용, 상담자, 상담을 통한 조치사항의 대응의 비밀보장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제공에 노력하는 등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불문티어나 관계단체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일부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전화상담의 프리 다이얼화나 프리 다이얼 카드의 배포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

□ 학생 등의 참가에 의한 교육상담

학생들과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을 상담원으로 배치하는 것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미 일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학생 등에 의한 상담활동 사업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장래 교원을 지망하는 교원양성 학부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상담자나 피상담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 대학생들은 상담자로서의 충분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들 학생 등은 교육센터 등의 상담원이나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가의 지도조언 하에 학생 상담활동에 임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 적응지도교실 등과의 협력

현재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등교거부(부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도·원조를 행하는 “적응지도교실”의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공적 기관의 적응지도교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활동을 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각 교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수강을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적응지도교실의 수강생 중에는 이지메와 관련하여 등교거부(부동교) 하는 학생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학교 외부에서의 등교거부에 대한 대응상황을 교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내연수나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원연수의 강사 선임에서 이들 시설의 협력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상담기관과 학교 및 상담기관 상호간의 협력

이지메 문제의 보다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담기관, 학교, 교육위원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아동복지, 인권옹호, 경찰, 의료 등의 관계 상담기관과 학교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보교환·연수 협의의 기회를 마련함과 아울러 연수회의 강사 등 기관 상호간 인력의 공동 활용 연구를 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된다.

□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의 충실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물론 학교 밖에서도 풍요로운 생활체험을 쌓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집단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령집단간의 교류사업이나 청소년 교육시설 등의 이용은 학교생활과는 다른 체험을 통해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들 활동에의 참가나 시설의 이용에 관해서 학교가 가정에 적극적으로 권유할 것이 요망된다. 학교 내부에서도 교사 개개인이 이들 학교외 활동의 교육적 의의에 관해서 깊이 이해함과 아울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지시킬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는 충분한 정보제공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단체나 스포츠단체 등이 시행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은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나 약한 자를 돕는 용기, 동료와의 유대감, 규범의식 등을 함양할 수 있는 등 이지메 문제와 관련하여 커다란 역할이 기대된다. 이들 단체는 이지메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단위의 대응에서 그 핵심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단체의 주체적인

대응이 기대되며 교육위원회도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국 가

국가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인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1)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하고 개성을 살리는 교육의 충실

국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대중요법이 아닌 이지메 문제의 근본적인 대처방안으로서, 학교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고 개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1992 년도부터 학교 교급 별로 순차 실시되고 있는 현행 학습지도 요령은 이와 같은 관점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 학습지도 요령의 취지가 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조건의 정비가 불가결하다. 팀 티칭의 도입 등 지도방법과 교직원 배치의 개선을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6 차 공립의무교육학교 교직원 배치개선 계획” 및 “제 5 차 공립 고등학교 학급편제 및 교직원 배치 개선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이해하기 쉽고 즐거운 수업과 활기찬 학교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배치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육내용의 면에서도 풍요로운 마음을 함양하기 위한 도덕교육의 충실, 자연체험 활동, 볼런티어 활동, 집단생활 체험 등의 추진을 비롯하여 각 학교의 교육활동 개선·충실을 위한 노력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 요망된다.

개개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개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행해져야 하며,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한 조사보고의 요청방식, 각종 조사연구의 형태, 교원연수의 체계화 등에 관해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을 둘러싼 각종 제도 운용의 개선도 요망된다. 개개인을 소중히 하게 생각하고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의 충실이라는 관점에서 이지메

로 인하여 학교에 다니기가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청소년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교육위원회, 학교에 철저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① 취학해야 할 학교 지정의 변경 등 탄력적인 운용

이지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써 취학해야 할 학교 지정의 변경이나 구역 외 취학과 같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지도가 행해져 왔지만, 관계자 중에는 아직도 이 조치의 채택을 주저하여 그 결과 이지메가 더욱 악화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국가에서는 이지메 당하고 있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호자의 희망을 존중하여 이들 조치가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이지메 당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학습 기회의 확보

이지메로 인하여 학교에 다니는 것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도 적절한 학습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교가 긴급조치로서의 결석을 탄력적으로 인정하여 결석 중의 지도를 적절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했지만, 이들 학생이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등교거부(부등교) 학생을 위한 적응지도교실의 활용은 물론 예를 들면 공적인 교육관련 기관에 긴급 피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부 현에서 이른바 “편안한 교실”(가칭)로 지칭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는 이와 같은 시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의의와 형태에 관해서 신속하게 조사연구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③ 중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의 효과적인 활용

취학의무 유예 면제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중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이지메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오랜 기간 등교할 수 없었던 학생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교원의 자질·능력의 향상

이지메의 예방, 발견,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교사가 이지메 문제와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한 충분한 이해, 카운셀링 등의 전문적인 기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심신의 문제에 관한 상담과 심신의 건강에 관한 지도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원의 양성, 채용, 연수 각각의 단계에서 교원의 자질·능력의 향상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교원 양성의 충실

첫째, 교원양성의 단계에서 이지메 문제에 관한 과제나 구체적인 지도의 방식 등을 확고하게 체득할 수 있는 지도가 행해져야 한다. 현행 교원양성에서는 이들 지도가 충분히 행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특히 이지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원면허의 기준으로 서 교과과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도덕, 특별활동의 지도법 등 뿐만 아니라 학생지도나 교육상담 등에 관한 지식·기법도 고려해야 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련과목의 충실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상담에 관한 실천 경험이나 심리임상 경험이 풍부한 지도교관에 의한 지도의 기회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지메 문제 등에 관해서 양호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문제를 포함하여 마음의 건강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호교사의 교육상담 등과 관련된 과목의 충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양성 커리큘럼의 충실을 위한 대학의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1996 년도부터는 국립 교원양성 대학·학부의 학생지도, 교육상담 등에 관한 교육·연구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3 개 대학에 교육실천종합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이와 같은 대응을 보다 충실히 할 것이 요망된다.

셋째, 교육실습의 기간, 내용 등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실천적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중학교의 교육실습 기간이 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짧은 것이나 교육실습 이외에도 실습생이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충실히 하는 것 등에도 배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교원채용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교원채용에 있어서는 인물평가 중시를 기본으로 선발방법의 다양화와 평가방식의 재검토를 추진하여 교직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지메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지도와 카운셀링 등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개성이나 매력 있는 인간성과 같은 자질이 중요하다. 다양한 생활체험·사회경험을 구비한 교원이 학생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질을 적절하게 평가할 것이 요망된다. 국가에서도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이 행하는 채용의 실태를 파악하여 인물평가 중시의 시각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해야 할 것이다.

□ 교원연수의 효과적 실시

■ 체계적인 연수

현재,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서 전원을 대상으로 한 초임자 연수와 경험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들 연수 중에 이지메 문제에 관한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도, 원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지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교장의 리더쉽 발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도 이지메 문제가 적절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 전문적인 연수

국가에서는 1996 년도부터 “이지메 문제 등 대책 연수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각 학교에서 이지메 대응에 중핵적·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지메에 대한 지도방식, 카운셀링의 이론과 그 연습, 사례연구 등에 관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수를 한층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지메 문제에 관해서 양호교사가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한 초임시, 중견시의 연수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④ 교육상담체제의 정비

이지메 당하고 있는 학생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또한 이지메 하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위해 교육상담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학생의 고민에 관한 교육상담은 일차적으로는 학급 담임을 비롯하여 학교의 교사가 담당하여 적절한 지도를 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심각화·복잡화하는 이지메 문제가 다양화하고 있는 학생의 실태를 감안할 때 전문가의 협력을 얻거나 각종 상담기관과의 협력을 기하는 등 교육상담체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세심한 학생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호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배치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착실한 추진이 요망된다. 학교 카운셀링 등의 기능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교원 배치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99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스쿨 카운셀러 활용 조사연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평가가 나와서 1996 년도에는 약 3 배의 규모로 확대된 바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교 스쿨 카운셀러의 위치설정과 교사·보호자와의 협력방안 등에 관해서 보다 정밀한 조사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상담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용의 교육상담실을 정비하고 상담하기 용이한 분위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유허교실을 활용한 대응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원책의 충실·강화도 필요하다.

1995 년도에는 국립교육회관에 “이지메문제 대책 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물론 교육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상담에도 응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었다. 현재 이지메 문제에 관한 사례나 전국의 이지메 문제 관련 상담창구 등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관계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1996 년도에는 전화상담의 프리 다이얼화가 추진되었는데 그 역할과 기능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체제·정보제공이 보다 충실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생이나 보호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교사의 상담창구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외에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교육상담원 배치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교육연구소와 교육센터가 행하는 교육상담 등과 관련된 비용의 지방재정 조치에 관해서도 확충이 요망된다.

⑤ 가정, 학교, 지역사회 협력의 추진

이시메 문제의 원인·배경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문부성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 단위의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1996 년도부터 새롭게 “이시메대책 지역협력 모델 시정촌(市町村)”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모델 지역의 성과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따른 다양한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

□ 가정교육에 대한 지원의 충실

가정의 교육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위원회가 지역의 실정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며, 국가에서도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한층 충실하게 추진할 것이 요망된다. 예를 들면,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와 정보 제공의 충실, 자녀양육 지원 네트워크 형성의 추진, 상담체제의 정비, 부모-자녀의 공동체험 기회의 충실, 부친의 가정교육 참가 지원·촉진 등의 관점에서 각 교육위원회에 대한 지도, 조언, 원조가 요청된다.

가정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정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의 작성·배포나 포럼의 개최 등 보급·계발사업의 강화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체험, 사회체험 등에 관해서 분석을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편부모, 단신부임(單身赴任) 가정 등 다양화하고 있는 가정 형태별 과제에 대응하는 가정교육 지원방안을 조사연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위원회를 지원해 가는 것이 요망된다.

특히 이시메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부모-자녀의 공동체험 기회의 확보와 부친의 가정교육 참가라 할 수 있다. 이미 설명한 교육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국가 레벨의 대응, 예를 들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생애 학습 페스티벌” 등을 충실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단체와 스포츠단체는 청소년들의 학교 밖에서의 자주적·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지역사회의 단위이다. 단체 활동은 청소년들의 사회성, 협조성과 적극성 등을 함양함과 심신의 건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교육력의 저하가 지적되고 있는 오늘날, 그 기능과 역할

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단체 중에는 자체적으로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발활동을 전개하는 곳도 있지만, 앞으로 각 단체의 특성을 살린 이지메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한층 충실히 전개함과 아울러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역 단위의 이지메 근절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이 요망된다.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이들 단체의 활동 정보제공과 많은 청소년들의 참가를 촉진하는 제발활동, 활동 지도자의 육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원조하는 등 청소년단체와 스포츠단체 활동의 진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⑥ 관계 부처와의 협력 강화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된 지역 중심의 관계기관 협력체제와 더불어 국가 레벨에 있어서의 관계 부처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1994년 12월 및 1995년 12월에 “학생의 이지메 문제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하여 관계 부처가 협력을 강화하여 이지메 문제에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관계 부처의 국장급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추진회의”나 과장급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행등문제행동대책 관계성청연락회의” 등이 설치되어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이지메 문제에 관해서 정보교환 등을 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 회의가 보다 활성화되어 1994년 12월 27일의 청소년대책추진회의 합의의 취지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5. 맺 음 말

사회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기 업

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학생의 건전육성,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를 요청한다.

예를 들면,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지메의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혹은 관계단체나 행정기관이 행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각종 미디어에서 이지메를 조장하는 내용이 다뤄지지 않도록 기업의 입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요청한다.

이와 같은 대응과 더불어 사원의 가정교육 참가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도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보호자, 특히 부친이 자녀양육과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단신부임에 대한 배려, 새로운 휴가제도의 창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망된다.

2) 매스컴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각종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한 것이다. 보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청소년의 풍요로운 인간성 함양을 위하여 이지메를 조장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도록 관계자의 이해와 협력이 있기를 요청한다.

먼저 청소년의 자살보도에 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1986년도에 청소년 자살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시 텔런트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의 영향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살을 모방하는 성향이 있어서 보도된 방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자살하는 청소년이 나타나곤 한다. 사건보도는 매스컴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자살의 수법 등에 관해서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도록 관계자의 신중한 대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TV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의 문제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는 다른 사람을 이지메 하여 웃음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동일한 행위를 하면서 즐거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지메와 같은 인권과 관련된 비열한 행위를 웃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또한 TV가 폭력과 죽음을 안이하게 다루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각 가정에서의 주체적인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측에서도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이 점에서 관계자의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미디어의 자체적인 대응 노력과 더불어 지역의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미디어에 호소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기업과 동일하게 매스컴에서도 이지메 해결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기대한다.

3) 성인 개개인

이지메 문제는 성인 개개인에 대해서 커다란 의식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풍조와 인간 상호간의 연대감의 희박화 등에 관해서 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사회 전체에 이와 같은 풍조가 만연되고 있어 이것이 이지메를 허용하고 간과하는 배경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성인 개개인이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함과 아울러 반성해야 할 부분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이지메에 관한 의식 그 자체에 대해서 이다. 이지메는 인간집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으로서 현상으로서 완전한 근절이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이지메 당하고 있는 청소년 쪽이 우선 집단생활 속에서 강하게 살아가는 힘과 인내력을 체득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아직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약한 자를 이지메 하는 비열한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되며 "이지메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당연하고도 명쾌한 명제를 사회 전체의 공통된 규칙으로서 확립하여 이지메에 대해서 사회전체가 의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동질지향 의식이 이지메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마음에 커다란 중압감을 주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과도한 동질지향을 배제하고 개체를 소중히 하여 개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와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의식면에서의 변혁과 더불어 성인 개개인이 각자의 입장에서 그 책무를 자각하여 우선 가능한 일부터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의 이지메나 비행 등

에 관해서 무관심한 성인들이 적지 않다. 성인 개개인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전체가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PTA, 청소년교육, 스포츠활동 등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들 활동을 통해서 이지메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지메에 굴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호소해 주기를 바란다. 이지메 당하고 있는 청소년으로부터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여 살아있다는 사실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장점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이지메 문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면서 단합된 형태로 대응을 행함으로써 반드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행동해야 할 순간에 있음을 호소한다.

지역단위의 이지메·부등교대책 추진활동*

- 문부성위촉사업·환경정화활동사례 -

丹羽 仁

(니와 히토시·니이카타현 長嶺소학교구 이지메·부등교 SOS 상담창구 대표)

1. 머리말

이지메가 전혀 감소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부성의 조사에 따르면 1995 년도에 전국의 공립 초·중학교에서 발생한 건수는 전년보다 6%증가한 약 6 만건에 달하였다. 문부성과 현·시의 교육기관은 이제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왔던 “이지메대책”의 대상을 최근에는 지역과 가정으로 확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는 “학교·지역·가정의 협력”이 불가결함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작년 7 월 중앙교육심의회 제 1 차 답신이 제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중점 대책으로서 “이지메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들 3 자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그 실천 사례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또한 오늘날 이지메의 배경으로 가정과 지역의 교육력(教育力) 저하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그 잃어버린 교육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커다란 과제의 하나이다. 이지메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현장과 교육행정은 “대증요법”(對症療法)적인 대책에 부심하여 지역과 가정에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야말로 주민 한사람한사람이 행동할 때이다. 대증요법이든 미연방지책이든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무언가가 형성될 것이다. 우리는 그 시도의

* 출처: 丹羽 仁(1997), “地域ぐるみのいじめ・不登校対策推進活動,” 青少年問題研究會, 「青少年問題」44-7, pp.40-44.

하나로서 지역단위의 “SOS 상담창구”의 작은 운동을 통해 “이지메 문제”에 도전하고자 했다.

2. 지역활동과 “SOS 상담창구”

아이치현 니시오시의 오가와우치 키요테루군의 이지메 자살사건을 계기로 초·중학생의 자살이 연쇄반응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커다란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이지메문제 전문의 교육상담창구나 행정·시민단체의 관계자들은 이지메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자와 관련된 구도만을 언급하고 있다.

학교·가정·지역에서는 각각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있고 지역의 교육(력)이 있을 것이다. 이지메와 부등교를 낳은 토양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에도 그 책임이 있다. 학교와 가정에만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지역주민으로서 구체적으로 이지메와 부등교 문제에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일까.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상담상대가 되어 줄 수는 없는 것일까.

이에 따라 지역의 힘을 통해 다소간이라도 이지메와 부등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니이카타시 長嶺 초등학교구의 유지들이 주체가 되어 설치한 “이지메·부등교 SOS 상담창구”(대표 丹羽仁)가 1994년 12월 22일 개설되었다.

창구는 “단순한 문제를 해결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이지메가 없는 지역만들기와 학교·가정을 지원하는 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SOS 상담창구”는 학교·사친회(PTA)·정내회(町内會)를 비롯한 지역의 각종 단체·조직과 협력하여 지역활동(행사·이벤트·축제 등)에서 청소년과의 접촉을 중시하는 한편, 연수회·좌담회·강연회 등을 각 조직과 공동개최하여 가정, 지역주민의 계발활동에 임하고 있다.

당 교구(教區)는 니이카타역 주변에 위치하여 도시개발에 따라 급속하게 근대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그러나 현내에서도 유명한 여러가지 축제가 개최되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역단위로 참가하고 있다. 주민의 인정은 두텁고

상호교류도 빈번하여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편이다.

이와 같은 지역단위의 대응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그 활동내용과 조직 등에 관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다른 교구에도 이 네트워크를 확산시켜서 모든 초·중학 교구에서 3자가 협력하면서 이지메 문제에 대응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3. SOS 상담창구의 활동내용

“상담창구”는 연합 정내회의 사무국에 설치되어 있고 구성멤버는 정내회장·전직 교장·지구 민생위원·주임 아동위원·보호사(保護司) 등 10 명의 볼런티어로 되어있다.

이 창구의 역할은 교구에서 발생한 이지메와 부등교의 상담을 처리하기만 하는 대증요법(對症療法)적인 창구는 아니다. 물론 이지메 등의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관계 학교와 PTA·부모·본인과 연락을 취하면서 해결을 모색한다. 그러나 문제의 조기발견·조기대응도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주된 목표는 그 “미연방지”에 있다.

지역주민이 이지메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 각자가 “이지메 없는 지역”만들기에 자신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가정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지역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학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을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이 지향하는 역할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마음의 고향이 될 때 지역의 교육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하에 다음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III-1: SOS 상담창구의 이지메·부등교문제의 주된 활동사례

	형 식	내 용	대 상
95. 2. 21	연수좌담회	長嶺초등학교의 아동·보호자 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	SOS 창구 멤버
95. 7. 11	좌담회	이지메·부등교문제 전문강사 에 의한 초·중학교 상황보고	보호자, SOS 창구 멤 버, 지구 민생위원, 일반 주민 등
96. 2. 3	강연회	“이지메문제에 대한 가정과 지역의 대처방안”	보호자, SOS 창구 멤 버, 지구민생위원 등
96. 3. 5	연수좌담회	이지메대책의 제문제와 앞으로 의 활동	SOS 창구 멤버
96. 8. 8	연수좌담회	이지메·부등교의 현황보고 금년도의 활동계획	SOS 창구 멤버
96. 11. 7	연수좌담회	이지메·부등교의 현상향과 앞 으로의 대응	SOS 창구 멤버
96. 12. 7	좌담·강연회	“이지메문제에 대한 제언”	보호자, 일반주민, SOS 창구 멤버, 지구 민생위원

현내에서는 물론 현외로부터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창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 것인가. 구성 멤버와 활동내용은” 등이 다수이다. “학교와 PTA 수준이면 가능할 지 모르지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텐데 힘든 일을 했다”고 높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현내의 이지메 대책의 관계단체로부터 그 조직과 성과에 관한 문의와 강연 의뢰도 몇차례 있었다. 이 네트워크에 관심이 집중되고 타지역에서도 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1995년 7월 11일의 “이지메·부등교문제 좌담회”는 학교·PTA·지구 민생원·정내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부모, 민생위원, 지구 주민을 비롯하여 이지메 문제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고자 타 지구의 민생위원과 육성협(育成協)의 임원도 참가하여 높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신문과 텔레비전

등 매스컴에서도 크게 다루어져서 주민들의 이지메·부등교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조직의 활동은 학교·지역·가정의 세 축에 의한 상호 신뢰관계가 필수 조건이다. 특히 학교측과의 협력관계는 불가결한 것으로서 지역주민은 이지메와 부등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비관적·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전향적인 사고로 학교와 협력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長嶺초등학교에서는 부모와 아동의 협력 아래 이지메에 관한 설문조사를 1995년 1월과 1996년 1월의 2회에 걸쳐 실시하여 그 실태를 기초로 초기단계의 대응을 행하고 이지메 행위의 미연방지에 노력해 왔다. 또한 지역의 연수회와 좌담회, 강연회 등에서 그 설문조사 결과의 정보를 공개하여 지역 주심들에게 이지메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즉 청소년의 동향을 알려준 것은 “SOS 상담창구”가 원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4. 실천에 대한 정리

연수회, 좌담회, 강연회 활동 등의 실천을 통해 그 성과로서 이지메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변화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1) 지역주민들이 자신들과 밀접한, 개개인의 문제로서 받아들이기 된 것
- 2) 지역 내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봐도 못 본 척하는 풍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
- 3) 지역 단위로 “이지메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자세가 형성된 것
- 4) 이지메의 지역단위 동향을 청소년들도 의식하기 시작한 것
- 5) 지역의 스포츠 활동, 노년층의 모임, 마을 행사·이벤트 등에서 청소년과 노년층을 포함시키는 기획이 많아진 점

대체로 이 활동에 대해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지역주민이 참가하여 이지메 문제와 관련된 현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었다. 즉, 문제의 대중요법에서 한 걸음 진전된 지역단위의 대책으로서 이해하고 있고, 지역 전체가

이 문제에 대응하게 됨으로써 이지메에 대한 억제력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I-2: 실천활동을 통해 체득한 지역활동의 방식·관점

	지역활동의 목표	실시한 활동사례
1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육성한다 - 마음의 교육 - 약자(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친절·배려심을 기른다	- 노년층과 아동의 교류회
2	이지메문제의 논의에 참가한다 - 학교와 부모·지역주민의 대화기회를 만든다 - 지역전체에 이지메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 부모와 주민의 학습·계발을 권장한다	- 이지메·부등교문제의 좌담회 - 이지메문제의 강연회
3	이벤트에 청소년들을 참가시킨다 - 부모와 청소년에게 지역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사회의 리더를 육성한다 - 지역내 가족과의 교류를 도모한다 - 다른 연령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는다 - 집단 규칙을 익힌다	- 교구 3 세대운동회 - 3 세대 친선 스포츠볼 대회 - 3 세대 교류캠프 - 3 세대납량바비큐대회 - 長額어린이 모임
4	이지메의 실태를 인식한다 -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심화시킨다 - 이지메·부등교의 정보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학교와 지역의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의 구축을 도모한다 - “열린 학교”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권장한다-전향적 사고 지역과 함께 육성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 이지메 설문조사의 보고회·강연회 - SOS 상담창구와 학교의 연수회
5	학교·부모·지역의 협력·연대를 심화시킨다 - 지역 주민들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 인재의 육성과 등용 - 그룹·조직의 기능적 운용	- 교구 학교·PTA·정내회의 임원 합동신년회

지역사회 전체에 “이지메는 허용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충만하여 학교·PTA·지역이 삼위일체가 되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이라

PTA·지역이 삼위일체가 되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기본이념하에 항상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분위기·환경 만들기, 즉 교육력이 뒷받침이 되어 이지메·부등교에 대한 커다란 억제력과 사전방지책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지역의 교육력 향상과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가방식에서 종래와는 다른 태도가 형성되어 교구의 분위기가 활성화된 것도 커다란 수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지역의 실천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지역활동의 방식과 관점을 열거한 것이다.

5. 앞으로의 대응

이지메 방지의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학교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성인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학교·가정·지역의 바람직한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때만 청소년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확보되고 또한 이지메·부등교의 진정한 극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지메·부등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조직의 개선이나 종래의 발상만으로는 묘약을 찾을 수 없다. 현재 자신들이 거주하는 커뮤니티 속에서 새로운 행동을 전개하는 이외에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이지메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역 커뮤니티 속에서의 자신들의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위상을 확립해가는 지역참여야말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진정한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역사회야말로 지역의 교육력이 향상되어 지역 그 자체가 이지메 문제를 포함하여 청소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다란 힘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역 단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scope of the problem of "ijime" and the countermeasures in Japan

This report is a translation of documents about bullying, ijime, which is becoming one of the most serious issues related with the adolescence.

The issue of ijime had not attracted much attention in Korean society because it was regarded as the unique Japanese problem. However, as recently as 2-3 years ago,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and adolescence suicides started to make headlines in the media. Since then, it was revealed that there are behavioral patterns among Korean adolescents similar to the Japanese ijime, such as the collective isolation of and bullying of the weakest in school among youngsters. Accordingly, in the academic circle, there are live discussions being underway, calling for the need for systematic research and policy measures to cope with the problem.

This report contains a translation of major documents with regard to ijime of Japan and the translation is offered sector by sector. It is composed of several topics such as ijime of adolescence in the social context of Japan, the academic research results on ijime, the comparison between ijime of Japan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case studies of adolescence ijime, and finally the efforts being made at the government level to solve the ijime issue.

This report seeks to call on the public to pay attention to the ijime issue which is also looming large in Korean society as part of the adolescence issue. This repor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s for academic research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ecessary policies in addressing this issue.

1998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연구보고서 ◇

정 책 연 구

- 98-01 천정웅 · 김정주 · 김영지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체계 연구」
- 98-02 김정주 · 천정웅 · 김영지 「지역청소년센터 운영모델 연구」
- 98-04 노 혁 · 길은배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 98-05 이민희 · 이명숙 · 정희옥 · 이춘화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 개발」
- 98-06 이민희 · 이명숙 · 정희옥 · 이춘화 「가출청소년 쉼터 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98-07 고성혜 · 맹영임 · 신선미 「특성화된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98-08 전명기 · 김영한 · 박창남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 98-09 황진구 · 임지수 「청소년 정보 분류 · 검색체계 개발 연구」
- 98-13 김정배 · 정화수 · 서수자 「청소년 자원봉사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 98-14 윤철경 · 박영균 · 정화수 · 서수자 「중 · 고등학교 봉사활동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해외 청소년정책 동향

- 98-16 정희옥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자료집」
- 98-17 이종원 「일본 청소년 이지매의 실태와 대책」
- 98-18 이종원 「일본 청소년육성의 현실과 대응방안」
- 98-19 이수봉 「중국의 청소년 조직과 활동」

청소년정보자료

- 98-10 김혁진 「청소년정보 길라잡이」
- 98-11 황진구 「인터넷에서 청소년 정보 찾기」
- 98-12 이해연 「청소년문제 어디서 어떻게 지도하나」

프로그램 개발

- 98-15 김정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모음집」
- 98-21 고성혜 · 맹영임 「자연권 청소년수련거리 백과」 (CD-Rom 별도)
- 98-03 천정웅 · 김정주 · 김영지 「청소년정책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4회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보고서)

◆ 학술행사 및 세미나 자료집 ◆

- 98-S01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역별 관계자 워크숍 (1998. 6)
- 98-S02 「국가 경제위기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방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도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1998. 6 문화관광부·중앙일보사 후원)
- 98-S03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998. 6)
- 98-S04 「청소년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 청소년 관련기관 및 전문가 정책협의회 자료 (1998. 7)
- 98-S05 「학생봉사활동 지도교사 일반 연수」 연수교재 (1998. 7)
- 98-S06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 요약·설명자료」 (1998. 8)
- 98-S07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참여 - 청소년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책 워크숍 (1998. 8)
- 98-S08 「청소년 자율참여와 미래」 1998년도 1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교재 (1998. 9)
- 98-S09 「새로운 청소년 현장을 위한 공청회」 청소년의 권리·청소년의 책임·사회의 역할 (1998. 9 문화관광부 공동주최)
- 98-S10 「21세기 새로운 청소년정책 방향 모색 - 한·중·일 국제심포지움」 (1998. 9)
- 98-S11 「지역중심 청소년정책의 실천 방안과 과제」 새로운 청소년정책 과제의 실천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세미나 (1998. 10. '98년 1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세미나 준비위원회)

◆ 학술논문집 ◆

- 『한국청소년연구』 1998년 제9권 제1호(통권 제27호)
- 『한국청소년연구』 1998년 제9권 제2호(통권 제28호)

◆ 청소년지도자 교재총서 ◆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론 / 인간관계수련활동 / 전통문화활동 /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 관계 법과 행정 / 청소년활동론 / 집단지도론 /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과 지역사회 / 청소년 기관운영